한일 고지도 속의
한반도, 동해 그리고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이 책은 2021년, 2022년도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수행 결과물임(NAHF-2021-기획연구- 1, NAHF-2022-기획연구-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일 고지도 속의
한반도,
동해 그리고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들어가며

2006년 9월 동북아역사재단이 창립된 이후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는 재단의 주요 연구 및 정책 대응 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이고,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를 동해로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여전히 일본은 독도가 일본령 '다케시마(竹島)'이고,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를 '일본해'로만 불러야 한다고 강변(强辯)하고 있다.

우리 재단은 독도 및 동해 표기와 관련한 일본의 불합리한 주장에 대응하고자 역사학, 국제법학, 국제정치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리학 분야는 독도와 동해가 지리적 실체인 까닭에 핵심 분야이다. 아울러 고지도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이고, 동해 표기는 일본해 표기와 함께 존중받아야 하는 명칭임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그리하여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다년간 독도 및 동해 표기와 관련된 고지도를 수집·분석하고 연구해 왔다. 그 성과로 2021년에는 『서양 고지도 속의 한반도, 동해 그리고 독도』라는 지도집을 펴냈고, 그 후속 작업으로 『한일 고지도 속의 한반도, 동해 그리고 독도』를 펴내게 되었다.

이 지도집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한반도와 동해 그리고 독도가 그려진 한일 고지도를 소개하는 '도판과 해제' 부분과 한일 고지도에 나타난 한반도·동해·독도에 대한 '논고' 부분이다. '도판과 해제' 부분에는 한국 고지도 74매와 일본 고지도 52매 등 총 126매에 달하는 한일 고지도의 서지 사항 및 해제 등을 수록했다. 이 지도들은 재단뿐만 아니라 국내외 도서관과 기관, 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지도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기관 및 단체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독도박물관, 독도재단, 국립제주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영남대학교 박물관, 한국연구원 등이 있다. 국외 기관은 미국 의회 도서관,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도서관, 영국 국립도서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일본 국립공문서관 등이다.

이 지도집에 수록된 고지도의 선정 작업은 한국과 일본 고지도의 최고 전문가인 제주대학교 오상학 교수님, 서원대학교 심정보 교수님 등이 수고해 주셨다. 수록된 고지도의 명칭, 제작자, 발행 연도, 크기, 소장처 등의 서지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지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한국 고지도의 해제는 오상학 교수님이, 일본 고지도의 해제는 심정보 교수님이 작성해 주셨다. 그리고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필자가 교정 및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

아울러 이 지도집에는 기존의 동해 및 독도 관련 지도집들이 지도만 나열하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일 고지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논고와 고지도 내에 수록된 독도 및 동해 표기의 특성을 분석한 논고도 함께 실었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한일 고지도 속에 나타난 독도와 동해 표기를 분석한 글을 작성하였고, 오상학 교수님은 한국 고지도에 나타난 국토 인식의 변천에 대한 글을, 심정보 교수님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이 담긴 일본 고지도에 대한 글을 작성해 주셨다.

이 지도집의 발간이 이미 국내에 다수 발간된 동해 및 독도 관련 고지도집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한일 고지도에 나타나는 한반도의 형태, 동해 및 독도 표기의 변화 양상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제와 논고를 추가할 수 있었다.

이 지도집의 편찬은 여러 연구자의 노력 덕분에 가능하였다. 이 자리를 빌려 오상학 교수님, 심정보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 아울러 완성도 높은 책자가 될 수 있도록 노심초사 애써 주신 재단 출판팀과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2023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김종근 씀

차례

■ 도판과 해제

Ⅰ. 한국 고지도 속에 나타난 한반도와 동해 그리고 독도

1. 세계 지도 및 동아시아 지도

01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20
02 천하여지도 天下輿地圖 22
03 천하지도 天下地圖 24
04 여지전도 輿地全圖 26
05 『여지도』 내 천하도지도 輿地圖, 天下都地圖 28

2. 전국 지도

06 조선팔도지도 朝鮮八道地圖 32
07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팔도총도 新增東國輿地勝覽, 八道總圖 34
08 조선방역지도 朝鮮方域之圖 36
09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38
10 조선팔도고금총람도 朝鮮八道古今總攬圖 40
11 팔도총도 八道總圖 42
12 여도 輿圖 44
13 동국지도 東國地圖 46
14 『천하도』 내 동국도 天下圖, 東國圖 48
15 조선국팔도통합도 朝鮮國八道統合圖 50
16 『해동지도』 내 대동총도 海東地圖, 大東總圖 52
17 한글본 조선전도 54
18 동국지도 東國地圖 56
19 동국대지도 東國大地圖 58
20 팔도지도 八道地圖 60
21 『환영지』 내 조선팔도총도 寰瀛誌, 朝鮮八道總圖 62
22 동국팔역산천일통전도 東國八域山川一統全圖 64
23 접역전도 鰈域全圖 66
24 한글본 조선전도 6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5 『대명일통산하도』 내 조선전도 大明一統山河圖, 朝鮮全圖 70
26 『사해지방승개지도』 내 조선총람도 四海地方勝槩之圖, 朝鮮總覽圖 72
27 『해동지도』 내 조선전도 海東地圖, 朝鮮全圖 74
28 『해동총도』 내 조선총도 海東總圖, 朝鮮總圖 76
29 『천하지도』 내 조선국 天下之圖, 朝鮮國 78
30 『여지도』 내 아국총도 輿地圖, 我國總圖 80
31 해동전도 海東全圖 82
32 해좌전도 海左全圖 84
33 『도리도표』 내 팔도전도 道里圖表, 八道全圖 86
34 『동여도』 내 대조선국전도 東輿圖, 大朝鮮國全圖 88
35 대한전도 大韓全圖 90
36 대한여지도 大韓輿地圖 92
37 『대한신지지부지도』 내 대한전도 大韓新地志附地圖, 大韓全圖 94
38 필사본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96
39 필사본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98
40 『선역도』 내 경기도·충청도·강원도 지도 鮮域圖, 京畿道·忠淸道·江原道 地圖 100
41 『전세보』 내 조선지도 傳世寶, 朝鮮地圖 102

3. 도별 지도

42 『동람도』 내 강원도 東覽圖, 江原道 106
43 『사해지방승개지도』 내 강원도 四海地方勝槩之圖, 江原道 108
44 『지도』 내 강원도 地圖, 江原道 110
45 『감여전도』 내 강원도 堪輿全圖, 江原道 112
46 『천하지도』 내 강원도 天下之圖, 江原道 114
47 『해동여지도』 내 강원도 海東輿地圖, 江原道 116
48 『여지고람도보』 내 강원도 輿地攷覽圖譜, 江原道 118
49 『조선지도급일본유구중원』 내 강원도 朝鮮地圖及日本琉球中原, 江原道 120
50 『동판수진일용방』 내 강원도 銅版袖珍日用方, 江原道 122
51 『좌해여도』 내 강원도지도 左海輿圖, 江原道地圖 124
52 『팔도지도』 내 강원도 八道地圖, 江原道 126
53 『팔도지도』 내 강원도 八道地圖, 江原道 12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4 『팔도지도』 내 강원도 八道地圖, 江原道 130
55 『여지도』 내 강원도 輿地圖, 江原道 132
56 『여지도』 내 강원도 輿地圖, 江原道 134
57 『해동총도』 내 강원도 海東總圖, 江原道 136
58 『여지도』 내 강원도 輿地圖, 江原道 138
59 『여지도』 내 강원도 輿地圖, 江原道 140
60 『지도』 내 강원도 地圖, 江原道 142
61 『지도』 내 강원도 地圖, 江原道 144
62 『지나조선고지도』 내 울진·평해 지도 支那朝鮮古地圖, 蔚珍·平海 地圖 146
63 『동여비고』 내 울진·평해 지도 東輿備考, 蔚珍·平海 地圖 148
64 『대조선지도』 내 강원도 大朝鮮地圖, 江原道 150
65 『천하지도』 내 강원도 天下地圖, 江原道 152
66 『해동전도』 내 강원도 海東全圖, 江原道 154
67 『팔도지도』 내 강원도 八道地圖, 江原道 156
68 강원도지도 江原道地圖 158
69 『여지도』 내 영동 輿地圖, 嶺東 160
70 『여지도』 내 강원도 輿地圖, 江原道 162
71 『대조선국지도』 내 강원도도 大朝鮮國地圖, 江原道圖 164

4. 울릉도 지도

72 『조선지도』 내 울릉도 朝鮮地圖, 鬱陵島 168
73 울릉도 鬱陵島 170
74 울릉도 鬱陵島 172

Ⅱ. 일본 고지도 속에 나타난 한반도와 동해 그리고 독도

1. 조선 지도 계통 고지도

01 『조선국지리도』 내 팔도총도 朝鮮國地理圖, 八道總圖 178
02 『조선국지리도』 내 강원도 朝鮮國地理圖, 江原道 179
03 조선경도일본대판서국해변항로지도 朝鮮京都日本大坂西國海邊航路之圖 18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04 청조일통지도 清朝一統之圖 182
05 오기팔도조선국세견전도 五畿八道朝鮮國細見全圖 184
06 조선전도 朝鮮全圖 186
07 조선국전도 朝鮮國全圖 188

2. 근세 일본 고지도

08 『삼국통람도설』 내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 三國通覽圖說, 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 192
09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194
10 중전일본여지전도 重鐫日本輿地全圖 196
11 대일본국군여지전도 大日本國郡輿地全圖 198
12 대일본국군여지로정전도 大日本國郡輿地路程全圖 200
13 대일본해안전도 大日本海岸全圖 202
14 대일본연해요강전도 大日本沿海要疆全圖 204
15 『대일본국세도』 내 대일본총계약도 大日本國細圖, 大日本總界略圖 206
16 대일본개정전도 大日本改正全圖 208
17 대일본전도 大日本全圖 210

3. 19세기 중후반 지도

18 대일본국연해약도 大日本國沿海略圖 214
19 대일본부현전도 大日本府縣全圖 216
20 조선여지전도 朝鮮輿地全圖 218
21 『조선신론』 내 측량조선여지전도 朝鮮新論, 測量朝鮮輿地全圖 220
22 장중일본전도 掌中日本全圖 222
23 대일본해륙전도 大日本海陸全圖 224
24 청국여지전도 淸國輿地全圖 226
25 『분방상밀대일본지도』 내 대일본전국 分邦詳密大日本地圖, 大日本全國 228
26 방제적요 일청한삼국대지도 邦制摘要 日淸韓三國大地圖 230
27 조선여지도 朝鮮輿地圖 232
28 조선국전도 朝鮮國全圖 234
29 조선해륙전도 朝鮮海陸全圖 236
30 조선지도 朝鮮地圖 23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1 조선명세전도 朝鮮明細全圖 240
32 상밀대일본신지도 詳密大日本新地圖 242
33 지나해륙전도 조선명세전도 支那海陸全圖 朝鮮明細全圖 244
34 『일로전쟁실기』 내 한국전도 日露戰爭實記, 韓國全圖 246

4. 19세기 말 일본 정부 공식 지도

35 기죽도약도 磯竹島略圖 250
36 관판실측일본지도 官板実測日本地圖 252
37 조선동해안도 朝鮮東海岸圖 254
38 대일본전도 大日本全圖 256

5.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후 시마네현 지도

39 『대일본분현지도』 내 시마네현전도 大日本分縣地圖, 島根縣全圖 260
40 일본교통분현지도-시마네현 日本交通分縣地圖-島根縣 262
41 시마네현 가축 시장 안내 지도 島根縣家畜市場案內地圖 264
42 『대일본분현지도』 내 시마네현전도 大日本分縣地圖, 島根縣全圖 266

6. 동해 표기 관련 지도

43 『북사문략』 내 황조여지전도 北槎聞略, 皇朝輿地全圖 270
44 일본변계약도 日本邊界略圖 272
45 신정만국전도 新訂萬國全圖 274
46 신제여지전도 新製輿地全圖 276
47 동서지구만국전도 東西地球萬國全圖 278
48 지구만국방도 地球萬國方圖 280
49 지구만국방도 地球萬國方圖 282
50 만국신도 萬國新圖 284
51 『지구만국분도』 내 아세아주지도 地球萬國分圖, 亞細亞州之圖 286
52 대일본조선팔도지나삼국전도 大日本朝鮮八道支那三國全圖 28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논고

Ⅰ. 한일 고지도 속에 나타난 독도와 동해 표기

1. 서론 294

2. 한국 고지도 속 독도 294
- 1) 전국 지도류와 도별 지도류 294
- 2) 울릉도와 우산도 상세 지도 301

3. 한국 고지도 속 동해 311
- 1) 바다에 표기된 동해 311
- 2) 육지에 표기된 동해 321
- 3) 대한해 표기 지도 324
- 4) 기타 표기 325

4. 일본 고지도 속 독도 326
- 1) 우산도, 울릉도 표기 지도 326
- 2)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로 표기한 지도 329
- 3) 아르고노트섬을 다케시마(竹島)로,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로 표기한 지도 331
- 4) 아르고노트섬을 다케시마(竹島)로,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로,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표기한 지도 335
- 5)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한 지도 336
- 6) 일본 영역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지도 338

5. 일본 고지도 속 동해 340
- 1) 동해 수역을 '북해'로 표기한 지도 340
- 2) 동해 수역을 '조선해'로 표기한 지도 341
- 3) 동해 수역을 병기한 지도 344

6. 결론 346

참고문헌 34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한국 고지도에 나타난 국토 인식의 변천

1. 서론 352

2. 조선 전기 전도의 국토 인식 353
   1) 정척·양성지의 「동국지도」 유형 353
   2)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동람도』 유형 357

3. 조선 후기 전도의 국토 인식 359
   1) 조선 전기 유형의 계승과 인간적 국토관 확립 359
   2) 국토 인식의 획기: 정상기의 『동국지도』 유형 365
   3) 개항기 이후 전도의 국토 인식 370

4. 결론 377

참고문헌 37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일본 고지도에 등장하는 한반도와 주변 해역

1. 서론 382

2. 에도 시대 최초의 조선 전도 등장 382

3. 메이지 시대 다양한 조선 전도 등장 386
   1) 조선의 영향을 받은 조선 전도 386
   2) 서양의 영향을 받은 조선 전도 391
   3) 20세기 전후 정확한 조선 전도의 완성과 한국에 미친 영향 396

4. 결론 399

참고문헌 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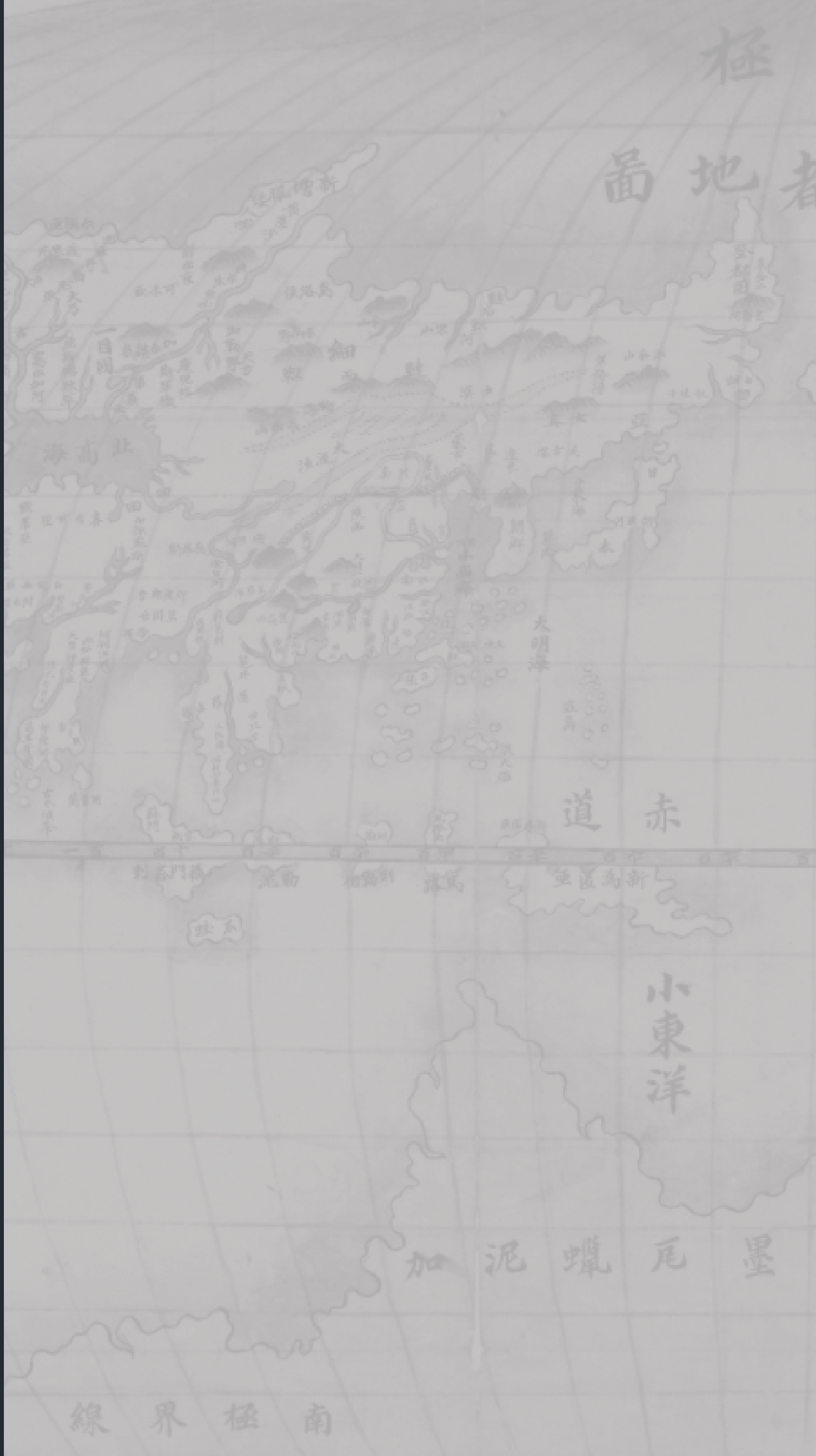
■ 찾아보기 40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판과 해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Ⅰ.
한국 고지도 속에 나타난 한반도와 동해 그리고 독도

1. 세계 지도 및 동아시아 지도
2. 전국 지도
3. 도별 지도
4. 울릉도 지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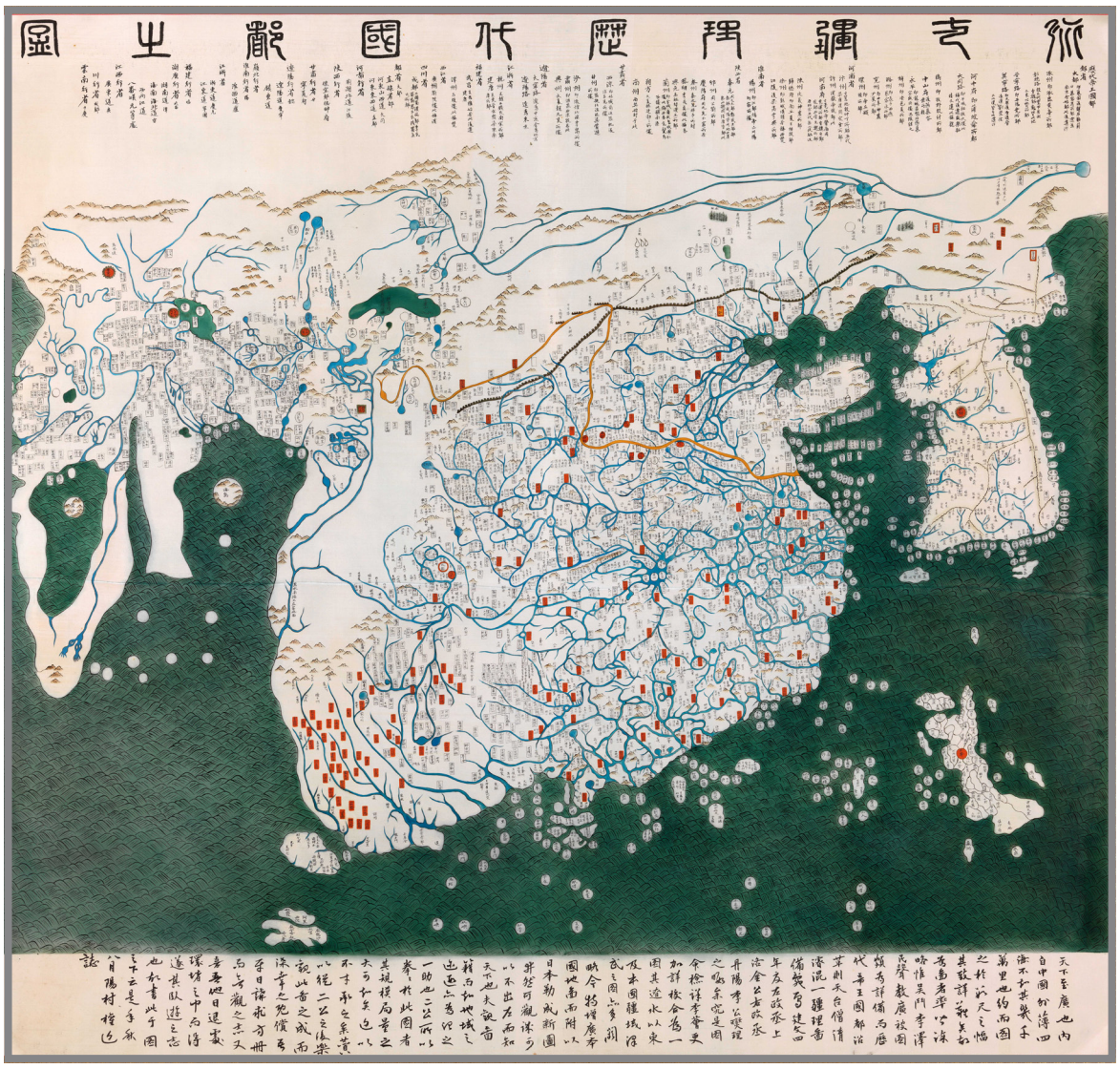
세계 지도 및 동아시아 지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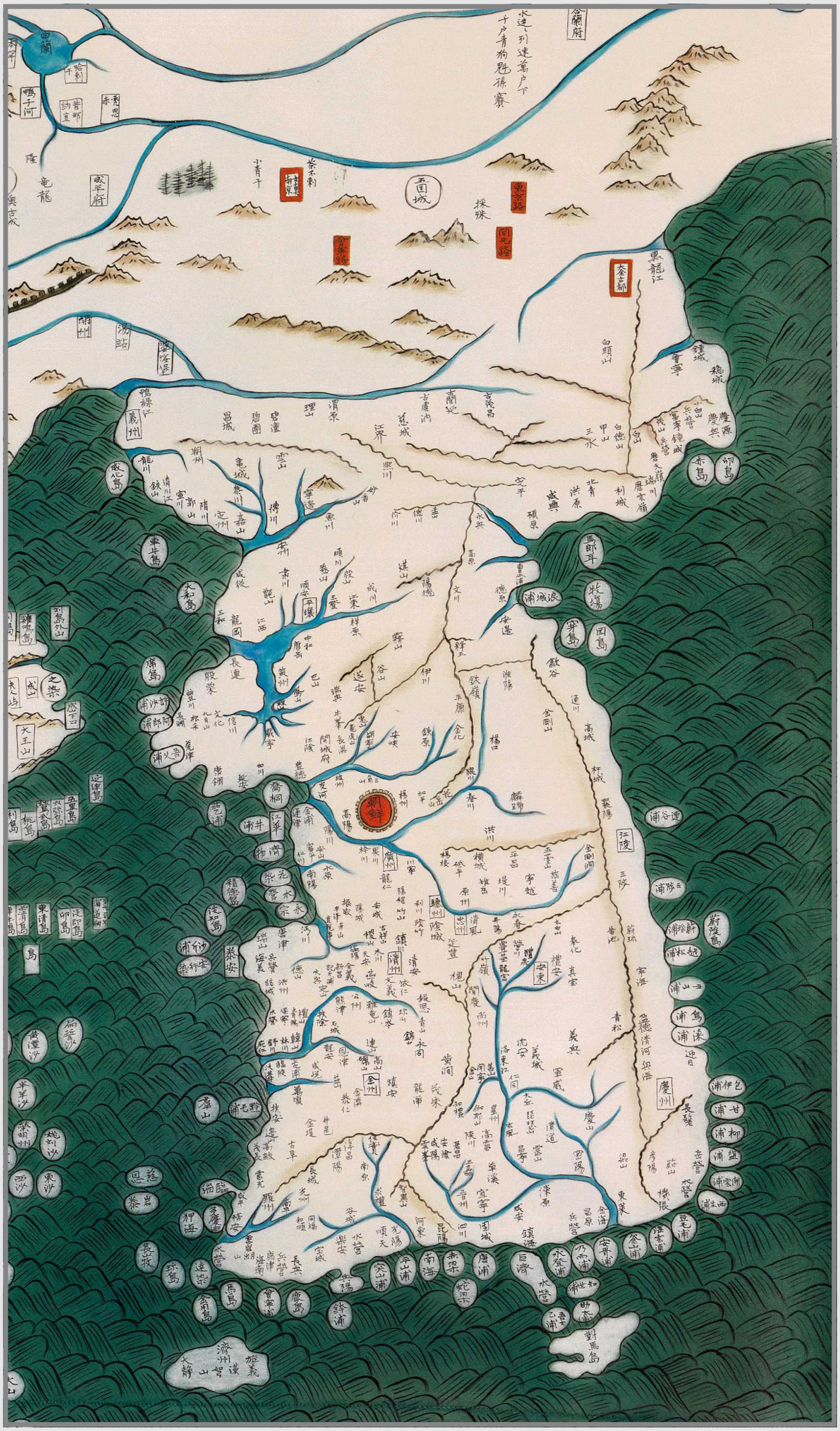
01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제작자 권근·김사형·이무·이회
발행 연도 15세기 후반~16세기 초반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158×168cm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 지도는 1402년(태종 2)에 대사성 권근(權近), 좌정승 김사형(金士衡), 우정승 이무(李茂), 검상 이회(李薈)가 만든 세계 지도를 15세기 후반~16세기 초반에 다시 그린 지도인 일본 류코쿠대학(龍谷大学) 도서관 소장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모사한 지도이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유사한 사본이 일본에 몇 종 남아 있다. 중국을 중앙에 배치하고 동쪽으로는 조선과 일본, 서쪽으로는 유럽 및 아프리카에 이르는 구대륙 전역을 포괄한 세계 지도이다. 아라비아 서쪽 지역은 원나라 때 유입된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을 받아 그려졌다. 아프리카 나일강 하원(河源)의 모습과 내해의 색채 등이 이슬람 지도에서와 유사하다. 중화적 세계관에 기초하면서도 미지의 세계에 관심을 기울였던 당시의 개방적인 대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조선의 영역을 중국 다음으로 크게 그려 문화국가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지도 하단의 서문에 따르면, 이 지도는 중국의 「성교광피도(聲敎廣被圖)」와 「혼일강리도(混一疆理圖)」, 조선의 전도(全圖), 일본의 지도를 합하여 새롭게 편집·제작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15세기 초의 세계 지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도 중 하나로 꼽힌다. 조선 초기의 지도 제작 수준과 동서양의 문화 교류, 더불어 당시 사람들의 세계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도이다. 지도에 울릉도는 그려져 있지만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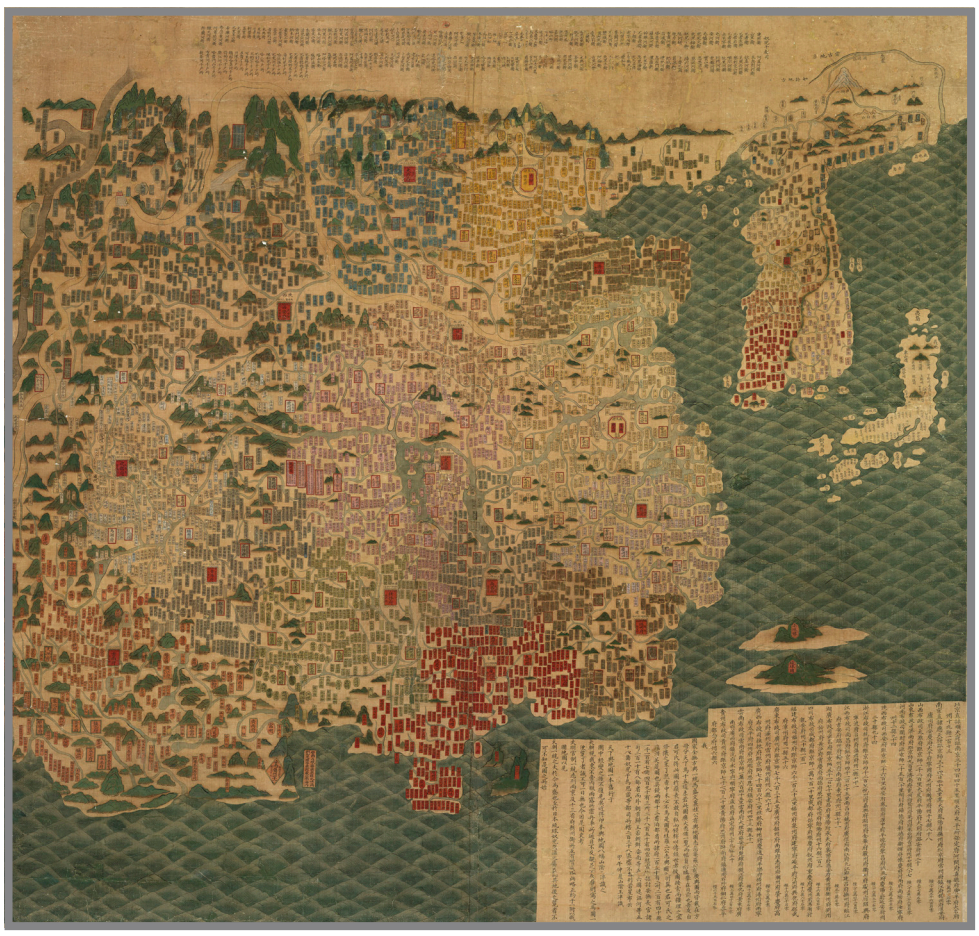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吉蘭府
五国城
黒龍江
白頭山
鴨緑江
義州
龍川
成心島
車牛島
大和島
列島外山
之渋
大王山
對馬島
採珠
亀城
茶川
嘉山
定州
清川江
鉄山
寧遠
博川
宣川
郭山
昌城
碧潼
理山
渭東
古茂昌
慈城
江界
熙川
古康汭
三水
白徳山
甲山
白山
北青
洪原
咸興
利城
永興
徳川
价川
文川
陽徳
安遠
浦項
牧場
弁島
岡島
鉄嶺
鉄原
金化
楊口
麟蹄
春川
横城
平昌
寧越
堤川
原州
忠州
清風
驪州
陰城
延豊
槐山
安東
禮安
真宝
義興
青松
清河浦
慶州
長鬐
浦項
蔚珍
松越
浦口
浦伊包
浦甘
浦柳
浦益
浦雲浦
浦生西
豆毛浦
釜山浦
安骨浦
乃而浦
水營
知世
助音
乙浦
巨濟
鎮海
昌原
金海
唐浦
赤浦
菊海
安山浦
會寧浦
馬島
金甫島
達梁
絶影島
長箭
狸海
多慶浦
恩津
黍岩
滿潭沙
半月沙
漆明洲
桃利沙
西沙
東沙
濟州
旌義
大靜
加德
清河浦
梁山
東萊
蔚山
彦陽
慶山
大邱
星州
高靈
草溪
宜寧
晉州
泗川
固城
咸安
晉陽
金陵
居昌
安陰
咸陽
安義
知禮
茂朱
金山
開寧
金泉
善山
亀山
龍宮
醴泉
尚州
聞慶
洛東江
沙平
利川
陰竹
驪興
楊根
砥平
楊州
抱川
加平
漣川
高陽
坡州
交河
開城府
豊徳
金浦
通津
喬桐
江華
甫井
甫音
花梁
水營
永宗
沙浦
渋行
泰安
德山
洪州
保寧
青嶺
韓山
舒川
藍浦
鎮川
清州
文義
槐山
報恩
青山
永同
鎮安
龍浦
茂朱
金州
金陵
金堤
古阜
井邑
扶安
古阜
興德
長城
光州
和順
谷城
樂安
寶城
長興
務安
羅州
靈巖
海南
珍島
莞島
古今島
甫老島
甫羅島
甫吉島
甫羅島
甫吉島
甫羅島
甫吉

02 천하여지도
天下輿地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7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154.1×183.5cm
소장처 프랑스 국립도서관

중국의 왕반(王泮)이 제작한 「여지도(輿地圖)」를 바탕으로 조선에서 증보한 지도이다. 지도에 적힌 발문에 따르면, 중국 부분은 『대명관제(大明官制)』와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참고하여 수정했고, 조선 지도를 새롭게 첨가했으며, 일본과 유구(琉球), 노아(奴兒), 홀온(忽溫) 등의 나라도 그려 넣었다. 지도 상단에는 노아간도사(奴兒干都司)가 거느리고 있는 200여 개의 위(衛)와 소(所)가 기록되어 있고, 우측 하단에는 양경(兩京, 북경과 남경) 소속 부(府)와 주현(州縣)의 수, 양곡(糧穀) 수, 그리고 13포정사(布政司) 소속 부와 주현의 수, 거경(距京) 이수(里數)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지(地誌)로 지도를 보충해 주는 양식이다. 그 옆에는 왕반의 지문(識文)이 기재되어 있어 지도의 계보를 파악할 수 있다. 왕반의 지문이 실린 여지도는 전통적인 직방 세계 중심의 세계 지도로 조선과 일본, 유구가 상세히 추가되어 있다. 표현하는 지리적 세계로 본다면, 양자기(楊子器)의 「여지도」와 유사하다. 두 지도는 대소와 윤곽 형식이 비슷하고, 내용상으로도 명대의 양경(兩京), 13성(省)과 부주현(府州縣)의 지명을 위주로 한 전국 행정구역도 성격을 띤다. 또한 설명문의 격식과 부주현의 숫자도 같다. 지도의 부호도 대부분 비슷하고 회화적 성격도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일본과 유구의 모습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의 모습은 이전 시기의 세계 지도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졌다. 이는 조선에서 증보한 것인데,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최신 일본 지도를 입수하면서 인식의 진전을 이루어 낸 것이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그려져 있고, 우산도는 '평산도(平山島)'로 표기되었다. 울릉도와 우산도는 남북으로 길쭉한 형상으로 표현되었고, 조선 전기 지도의 전통을 따라 우산도는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졌다. 두 섬의 면적이 거의 비슷하게 그려진 것은 조선 전기의 『동람도(東覽圖)』에서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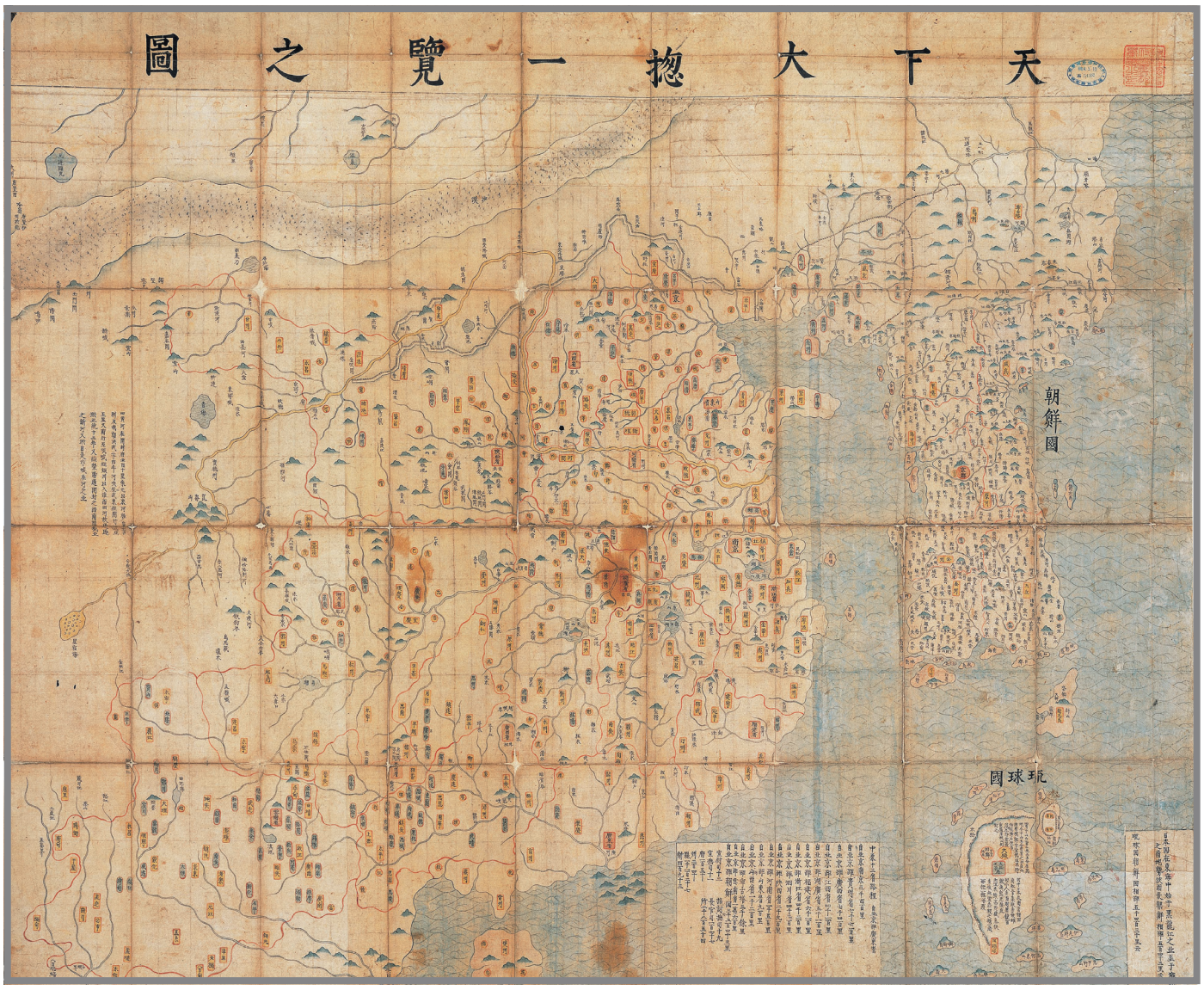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奴兒干都司
建州衛
心里衛
兀者衛
兀者左衛
兀者右衛
兀者後衛
赤不罕衛
屯河衛
安河衛
毛憐衛
虎兒文衛
失里錦衛
奴兒干衛
堅河衛
卜魯兀衛
葛林衛
阿真河衛
木忽剌河衛
欽真河衛
克默而河衛
察剌禿山衛
嗢罕河衛
阮里河衛
列門河衛
禿都河衛
實山衛
忽里古山衛
莫誼河衛
薛列河衛
蒙古地方
如許地方
混同江
忽寨
白頭山
五國城
黃龍府
老寨
長白山
女直
耋部落
錦陽
新眞
尹眞
長興
永興
天興
波樂
金成
赤島
丁山島
海洋島
新島
大靑
小靑
東海宮
東海州
東山道
能登州
隱岐州
其高
對馬
絶影島
加德
天城
水營
巨濟
南海
環島
漢拏山
慶州
京都
江陵
全州
羅州
晉州
南平
安山
水原
南陽
天安
公州
忠州
清風
豐基
榮州
安東
禮安
義城
軍威
義興
新寧
永川
慶山
仁同
河陽
興仁
彦陽
大丘
慶山
清道
齋陽
梁山
東萊
蔚山
金海
熊川
昌原
兵營
水營
標張
金山
知禮
星山
高靈
居昌
陜川
草溪
宜寧
合浦
昆陽
固城
泗川
三嘉
丹城
咸陽
山陰
安陰
大丘
慶山
金山
仁同
善山
金烏
龜山
冶川
善山
金山
金烏
龜山
冶川
善山
金山
金烏
龜山
冶川
善山
金

03 천하지도
天下地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128.5×155cm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1-11-2-1)

중국 중심의 세계 지도로 중국 본토와 조선, 유구 등이 그려진 정도이며 일본은 생략되어 있다. 중국 본토가 명대의 행정구역인 양경(兩京) 13성(省) 체제로 그려졌으나, 청나라의 발상지인 만주 지방의 오라(烏喇), 영고탑(寧古塔)과 청의 세조 이후 명칭이 바뀐 선양(瀋陽)이 옛 명칭인 성경(盛京)으로 표시되어 있어 청의 완전한 중원 장악 이전의 상황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유구의 표현이 독특한데 다른 세계 지도에서와 달리 크게 그려졌으며 방위가 조선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거꾸로 되어 있다. 조선 부분의 윤곽은 북부 지방이 왜곡된 조선 전기의 지도 양식을 따르고 있다. 팔도의 경계를 붉은 선으로 구분했으며 감영 소재지를 크게 부각하였다. 이 지도의 세계 인식도 일본이 지면 관계상 그려지지 않았을 뿐 앞의 지도와 대략 유사하게 전통적 인식을 따르고 있다. 동해상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울릉도를 좀 더 크게 그렸다. 그러나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진 것은 여전히 조선 전기의 전통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04 여지전도
輿地全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형태, 크기 목판본, 85.5×59cm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19세기에 제작된 세계 지도로 남북 아메리카를 제외한 구대륙의 지도이다. 조선에서 서양의 지리 지식을 수용하여 변용된 형태로 만들어진 유일한 세계 지도이다. 지도의 우측 상단에 한성(漢城)과 팔도관찰사영(八道觀察使營)의 북극고도, 즉 위도와 동서경도를 서울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하였다. 이 지도의 중국 부분은 건륭 연간(1736~1795)의 중국 지도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동남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아프리카·유럽 등은 최한기(崔漢綺)가 1834년에 제작한 「지구전후도(地球前後圖)」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지구전후도」는 평사 도법(平射圖法)을 이용한 반구도(半球圖)이나 이 지도는 중국, 한국, 일본을 상대적으로 크게 하고 경선과 위선이 직각으로 교차되는 원주 도법(圓柱圖法)으로 그린 지도에 가깝다. 「여지전도」는 양반구도를 기초 자료로 활용했음에도 신대륙이 그려진 반구도를 제외시키고 구대륙만 대상으로 그린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사례는 일찍이 중국에서 볼 수 있는데, 1744년에 간행된 진륜형(陳倫炯)의 『해국문견록(海國聞見錄)』에는 구대륙만을 그린 세계 지도가 「사해총도(四海總圖)」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지도는 반구도에서처럼 원형으로 세계를 표현하였지만, 적도나 경위선 등은 그려져 있지 않다. 내부 해안선의 윤곽과 지명 등에서도 「여지전도」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지도에서 표현하고 있는 지리적 세계의 범위는 거의 같다. 서구식 세계 지도를 바탕으로 조선에서 새롭게 그린 대표적인 세계 지도이다. 동해에는 울릉도만 그려져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輿地全圖

中朝各省分路程里
京師順天府西南至
盛京奉天府西南至
里由遼瀋至
二千四百里
南至
里由遼瀋至
二千四百里
吉林西南至
里由寧古塔至
二千四百里
黑龍江西南至
里由齊齊哈爾至
二千四百里
烏里雅蘇臺西南至
里由庫倫至
二千四百里
科布多西南至
里由烏里雅蘇臺至
二千四百里
伊犁西南至
里由烏魯木齊至
二千四百里
喀什噶爾西南至
里由阿克蘇至
二千四百里
和闐西南至
里由葉爾羌至
二千四百里
西藏西南至
里由前藏至
二千四百里
青海西南至
里由西寧至
二千四百里
四川成都府西南至
里由打箭爐至
二千四百里
雲南西南至
里由騰越州至
二千四百里
廣西南寧府西南至
里由百色至
二千四百里
廣東西南至
里由高州至
二千四百里
福建西南至
里由汀州至
二千四百里
浙江西南至
里由衢州至
二千四百里
江西南昌府西南至
里由廣信至
二千四百里
安徽安慶府西南至
里由池州至
二千四百里
江南江寧府西南至
里由蘇州至
二千四百里
山東濟南府西南至
里由兗州至
二千四百里
河南開封府西南至
里由歸德至
二千四百里
山西太原府西南至
里由平陽至
二千四百里
陝西西安府西南至
里由鳳翔至
二千四百里
甘肅蘭州府西南至
里由鞏昌至
二千四百里
四川成都府西南至
里由保寧至
二千四百里
雲南省城西南至
里由普洱至
二千四百里
廣西省城西南至
里由百色至
二千四百里
貴州貴陽府西南至
里由安順至
二千四百里
湖南長沙府西南至
里由寶慶至
二千四百里
湖北武昌府西南至
里由荊州至
二千四百里
江西南昌府西南至
里由廣信至
二千四百里
浙江杭州府西南至
里由衢州至
二千四百里
福建福州府西南至
里由汀州至
二千四百里
廣東省城西南至
里由高州至
二千四百里
廣西省城西南至
里由百色至
二千四百里
雲南省城西南至
里由普洱

05 『여지도』 내 천하도지도

『輿地圖』, 天下都地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790년대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60×102cm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원구원

18세기 말 정조 대에 편찬된 서구식 한역 세계 지도이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서양 선교사 줄리오 알레니(Giulio Aleni, 중국명 艾儒略)가 쓴 『직방외기(職方外紀)』(1623년)에 수록된 「만국전도(萬國全圖)」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직방외기』에 실린 지도와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지도의 윤곽, 도법, 지명 등에서 대부분 일치한다.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와 같이 지도의 중앙 경선을 태평양 중앙에 둠으로써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를 중앙 부분에 배치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중화사상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유럽 중심의 세계 지도 구도를 태평양 중심의 세계 지도 구도로 바꾼 것이다. 근대식 지도 제작 기법을 사용했지만 남방의 대륙은 미지의 땅으로 표현되었다. 오세아니아 대륙을 비롯한 남방이 아직 탐험되지 않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지도의 동해 부분에는 원도(原圖)인 「만국전도」에는 없는 '소동해(小東海)' 표기가 있고 울릉도도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알레니의 「만국전도」를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조선의 관점에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전국 지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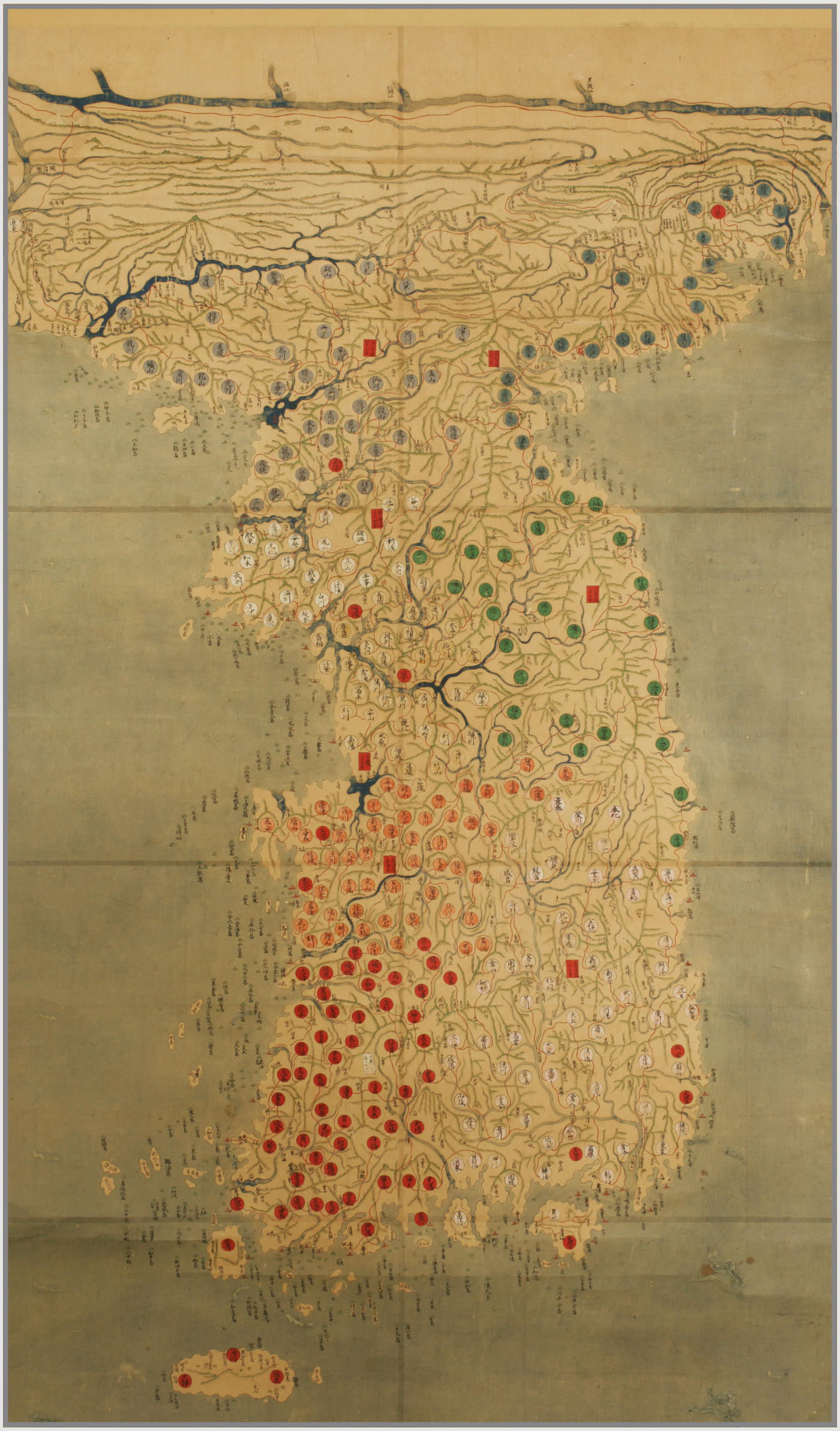
06 조선팔도지도
朝鮮八道地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6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137×91.1cm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선 전기 세종 대의 과학적인 지도 제작 사업은 세조 때 완성된 정척(鄭陟)과 양성지(梁誠之)의 「동국지도(東國地圖)」에서 결실을 보았다. 이 지도는 「동국지도」의 사본으로 추정되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 일대까지 포괄하고 있다. 한반도의 지형 표현은 중부와 남부 지방은 비교적 정확하나 북부 지방은 부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제외하면 하계망(河系網)이 비교적 정확하고, 산줄기는 풍수적 지리 인식에 기초하여 산줄기를 연결해서 그리는 연맥식(連脈式)으로 표현되었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동해안 지역의 섬들도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오방색(五方色)에 따라 도별로 색채를 구분하여 표현한 듯하나 황해도와 경상도를 흰색으로 표현하는 등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하계망은 청색으로 표현하였고, 도로는 붉은 선으로 그려 넣었다. 동해안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삼각형 기호로 표시되어 있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졌다. 두 섬의 크기가 비슷하게 그려져 있어서 본섬과 부속 섬의 관계가 명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등한 섬으로 인식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점은 전통 시대의 지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근대적 측량 기술이 없었던 전통 시대에는 근해가 아닌 원양에 존재하는 섬들이 크기나 거리, 방위 등이 왜곡되어 표현되곤 했다. 그럼에도 동해상에 두 개의 섬, 즉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07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팔도총도

『新增東國輿地勝覽』, 八道總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531년
형태, 크기 목판본, 27×34.2cm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부도(附圖)로 실린 전국 지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지도들을 『동람도(東覽圖)』라고 하며, 지지(地誌)를 보완하는 부도로서 제작되었기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매우 소략하다. 지지에 이미 많은 내용이 지역별로 수록되어 있어 지도에서는 단지 지역의 개략적인 모습만 보여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규격이 작은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지도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도 없었다. 세종 대에 제작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같은 이전 시대의 지리지는 국가의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을 파악하려는 목적이 강했기에 군사, 행정, 경제 등과 같은 실용적 측면에 비중을 두었다. 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전국적 지배체제의 확립 이후 왕권의 위엄과 유교적 지배원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우세하여 시문, 인물, 예속, 고적 등과 같은 항목이 강화되었다. 『동람도』의 「팔도총도」에도 이러한 지지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도로서 한반도 모양이 동서로 부풀려져 있고 남북으로는 압축된 모습이다. 특히 북부 지방이 남부 지방에 비해 매우 작게 그려졌다. 또한 압록강과 두만강의 유로가 거의 수평에 가깝게 그려져 있고 함경도 지방이 남쪽으로 치우치게 그려져 당시 변경 지역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지도의 내용은 사전(祀典)에 기재되어 있는 악(嶽)·독(瀆)·해(海)와 명산대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매우 소략하다. 지도 상단에 기재된 각 도의 군현 수는 후대의 소장자가 써넣은 것으로 보인다. 동해상에는 울릉도와 우산도 두 개의 섬만이 그려져 있는데, 남북으로 길쭉한 형상이고 우산도가 울릉도보다 작은 크기로 묘사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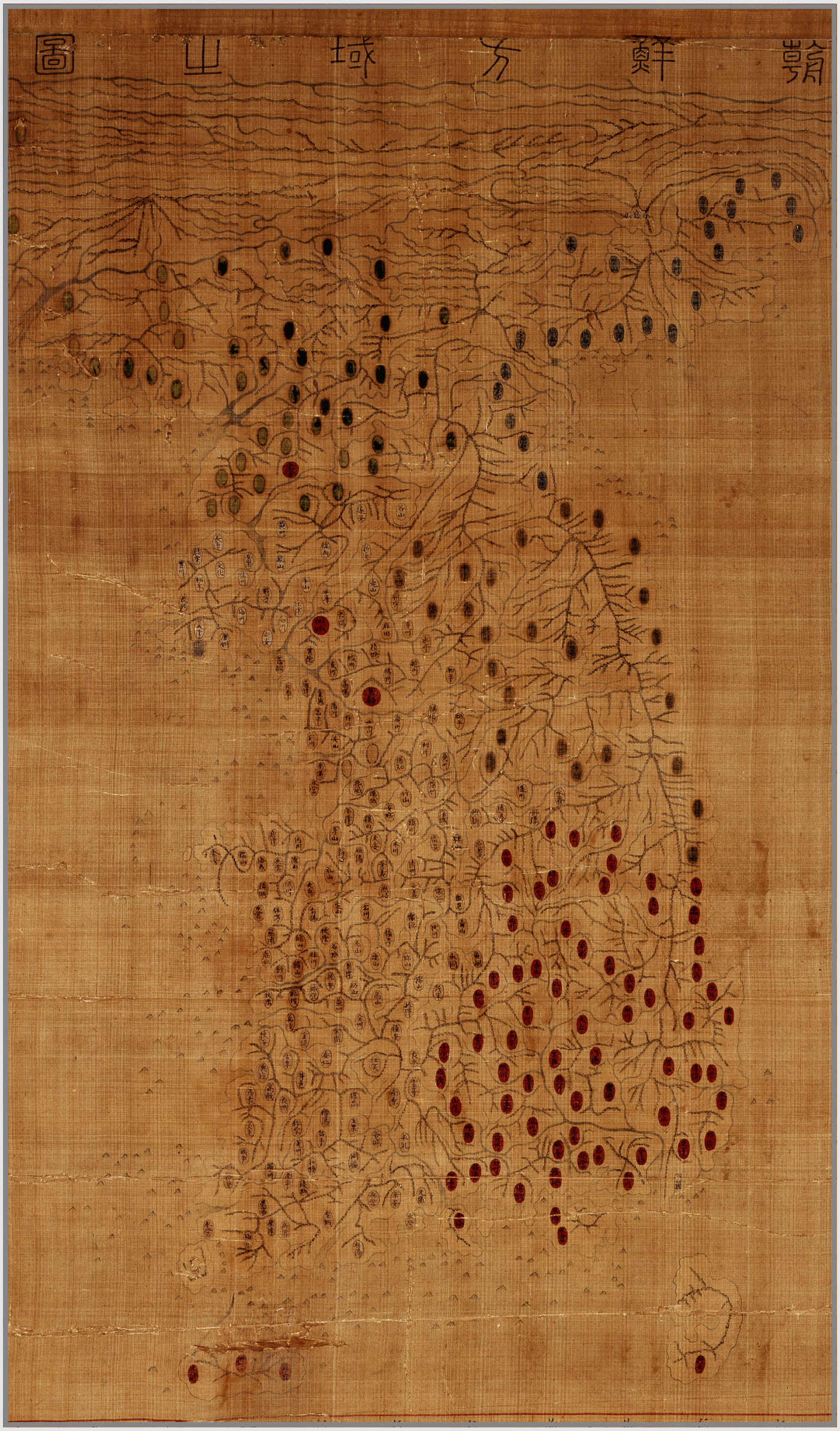
08 조선방역지도
朝鮮方域之圖

제작자 제용감
발행 연도 1557년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132×61cm, 국보 제248호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제작자와 제작 연대가 밝혀진 조선 전기의 전도이다. 이 지도는 왕실에 필요한 의복이나 식품 등을 관장하던 제용감(濟用監)에서 제작한 지도로, 대마도(對馬島) 종가(宗家)에서 보관해 오던 것을 1930년대에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에서 종가 문서의 일부로 구매한 것이다. 이 지도는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 사본으로 추정된다. 지도 상단에는 제목, 중간 부분에는 지도, 하단에는 제작에 참여한 제용감 관원의 명단을 적은 좌목(座目)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은 문인들의 모임을 그림으로 기록한 계회도(契會圖)에서 볼 수 있는 구도로, 지도와 회화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준다. 한반도 지형 표현은 중부와 남부 지방은 비교적 정확하나 북부 지방은 부정확하다. 만주 일대도 그려져 있어 당시의 개방적 영토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제외하면 하계망이 비교적 정확하고, 산줄기는 풍수적 지리 인식에 기초하여 연맥식으로 표현되었다. 해안의 섬들이 지명 표기 없이 모식적으로 그려졌고 울릉도와 독도는 표현되지 않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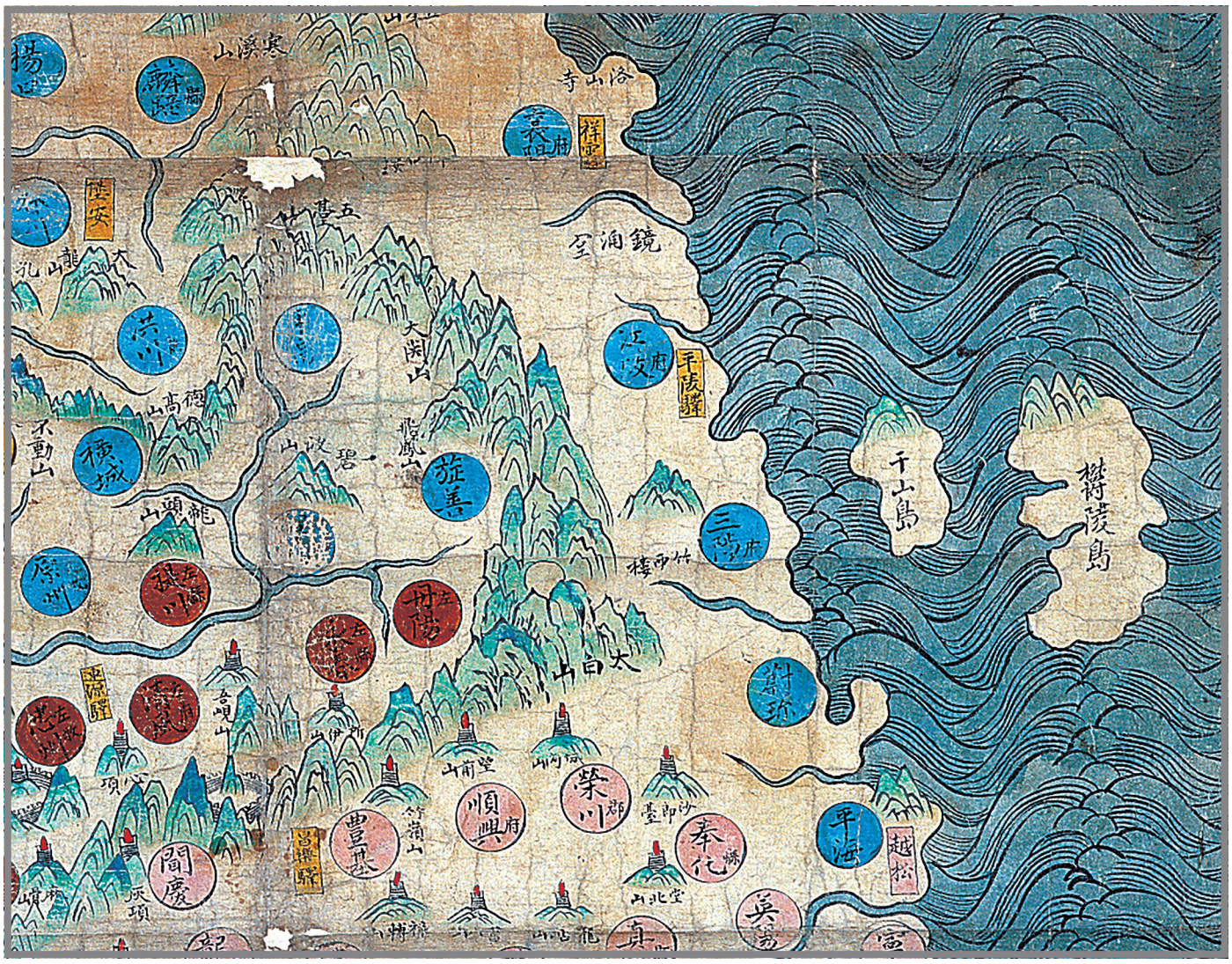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09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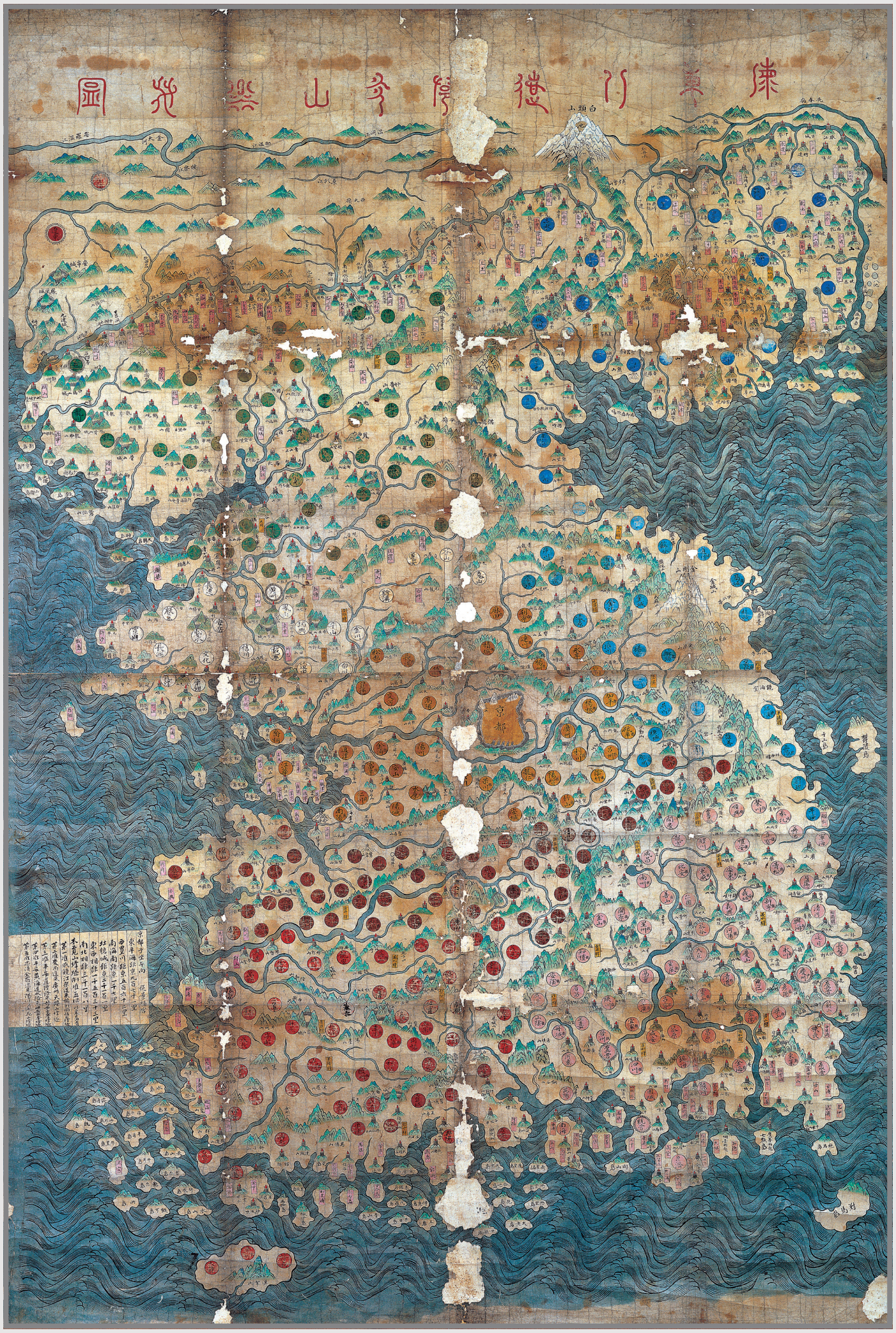
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700년 전후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218×148cm, 보물 제1533호
소장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전국 봉수대(烽燧臺)의 분포를 그린 지도이다. 1684년에 설치된 함경도의 무산부(茂山府)가 그려져 있고 1712년에 세워진 백두산정계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1700년 전후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지도의 윤곽은 조선 전기의 지도를 따르고 있어서 하삼도 지방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어 그려진 반면, 함경도 및 평안도의 북부 지방은 작게 처리되어 있다. 민족의 영산(靈山)인 백두산을 흰색으로 강조하였다. 산지는 개별 산을 그리면서도 산줄기를 염두에 두고 표현하였다. 팔도의 군현은 오방색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전국에 분포된 봉수를 산 위에 봉화 형태로 표현하였으나 봉수의 연결 관계는 표시하지 않았다. 전국의 봉수는 최종적으로 서울 목멱산(남산)의 봉수로 전달되는데, 지도에도 남산의 봉수를 5개의 봉대로 표현하였다. 제1봉수는 함경도와 강원도, 제2봉수는 경상도, 제3봉수는 평안도 육로, 제4봉수는 평안도와 황해도 수로, 제5봉수는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오는 봉수와 연결된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해당하는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울릉도를 더 크게 그렸고 그 서쪽에 우산도를 그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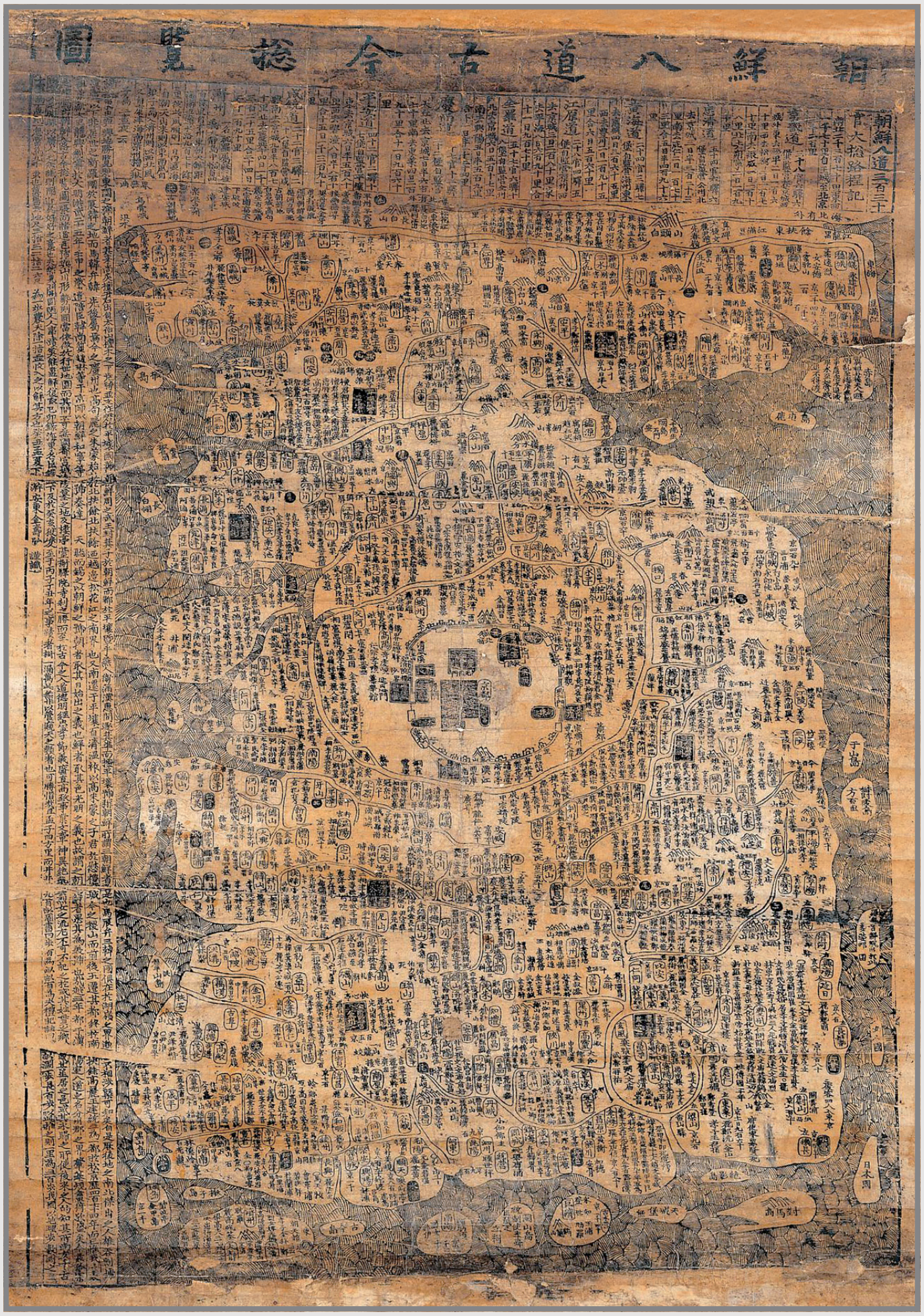
10 조선팔도고금총람도
朝鮮八道古今總攬圖

제작자 김수홍
발행 연도 1673년
형태, 크기 목판본, 137.5×107cm
소장처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지도의 제작자와 간행 연대가 명시된 대표적인 지도이다. 김수홍(金壽弘)이 1666년에 목판본으로 제작한 일종의 세계 지도인 「천하고금대총편람도(天下古今大摠便覽圖)」와 같이 지도 상단에 제목을 싣고 그 아래에 노정기(路程記) 형식으로 대표적인 지지 정보를 수록했다. 전체적인 한반도의 모습은 조선 전기 정척·양성지의 「동국지도」 계열을 따르고 있으나 윤곽의 왜곡이 심한 편이다. 지도는 독사(讀史) 지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역사적 사건이나 유명 인물을 출신지에 기재하였다. 특히 도성을 크게 강조하고 지도 중앙에 배치하여 도성의 권위를 부각하였다. 산지는 전통적인 연맥식 표현이 아닌 개별 산을 그려 표현하였다. 지도 상단에는 조선 팔도의 노정기를 수록하였고, 왼쪽에는 조선의 연혁을 기재하였다. 또한 다른 지도와 달리 하늘의 별자리를 배치한 점이 독특하다. 바다는 파도 무늬를 그려 표현하였고 해안의 섬들은 실제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그려졌다. 특히 동남쪽 일본국 위에는 가상의 섬인 여인국(女人國)의 모습도 보인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고, 우산도는 울릉도의 북쪽에 표시했다. 울릉도에는 '방백리(方百里)'라는 주기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전 시기 지도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 팔도총도
八道總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7세기 후반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124×90.5cm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만주 지역을 함께 그린 조선 전도로, 북부 지방인 관서와 관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그려져 있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 실측 지도인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와 같은 유형이다. 산지는 「동국지도」 계열인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의 「조선방역지도」나 「조선팔도지도」와 다르게 연맥보다는 독립된 산으로 표현되어 있다. 섬들도 산의 모습을 그려서 표현한 점이 독특하다. 하계망이 상세하며 군현, 병영(兵營), 수영(水營), 감영(監營) 등이 표시되어 있다. 특히 각 도의 중심지인 감영을 강조하였다. 백두산을 황금색으로 강조한 것에서 백두산을 중시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여백의 설명에는 팔도의 군현·진보·역·봉수의 숫자를 기록하였고, 하단에는 서울-압록강-북경에 이르는 거리를 표시하였다.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주도를 남해 연안에 배치하다 보니 대화탈, 소화탈 등의 섬 지명이 제주도에 표기되어 있다. 삼척 동쪽 바다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나타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2 여도
輿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전반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153.7×95cm
소장처 영남대학교 박물관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조선 전도로, 한반도의 윤곽을 사실에 가깝게 그려 낸 정상기(鄭尙驥)의 『동국지도(東國地圖)』가 나오기 전 단계에 속하는 지도로 보인다. 북부 지방이 남부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되어 있고 우산도가 울릉도의 좌측에 표시된 점 등으로 보아 조선 전기 정척·양성지의 「동국지도」 계열과 유사하다. 그러나 백두산이 전체 한반도 산맥의 조종(祖宗)으로 강조되었고, 연맥을 강조한 산맥 표현, 중국 접경 지역의 진보(鎭堡), 압록강·두만강 이북의 중국 지역 지명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17세기 말~18세기 전반 조선과 중국 사이에 백두산을 둘러싼 북방 지역의 국경 문제가 제기되어 북방에 대한 인식이 점차 중요해지던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진보는 황색의 작은 사각형, 군현은 큰 사각형, 병영 및 수영은 작은 원, 각 도의 감영이 있는 곳은 큰 원으로 표시하여 위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산성, 봉수, 교통로 등은 그리지 않았다. 산천의 명칭이 비교적 소상하게 표기되어 있으나 도서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략하고 위치 및 면적도 왜곡이 심한 점으로 보아 연해 및 도서에 대한 관심이 지도에 반영되지 않았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비슷한 크기로 그려져 있고 우산도는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졌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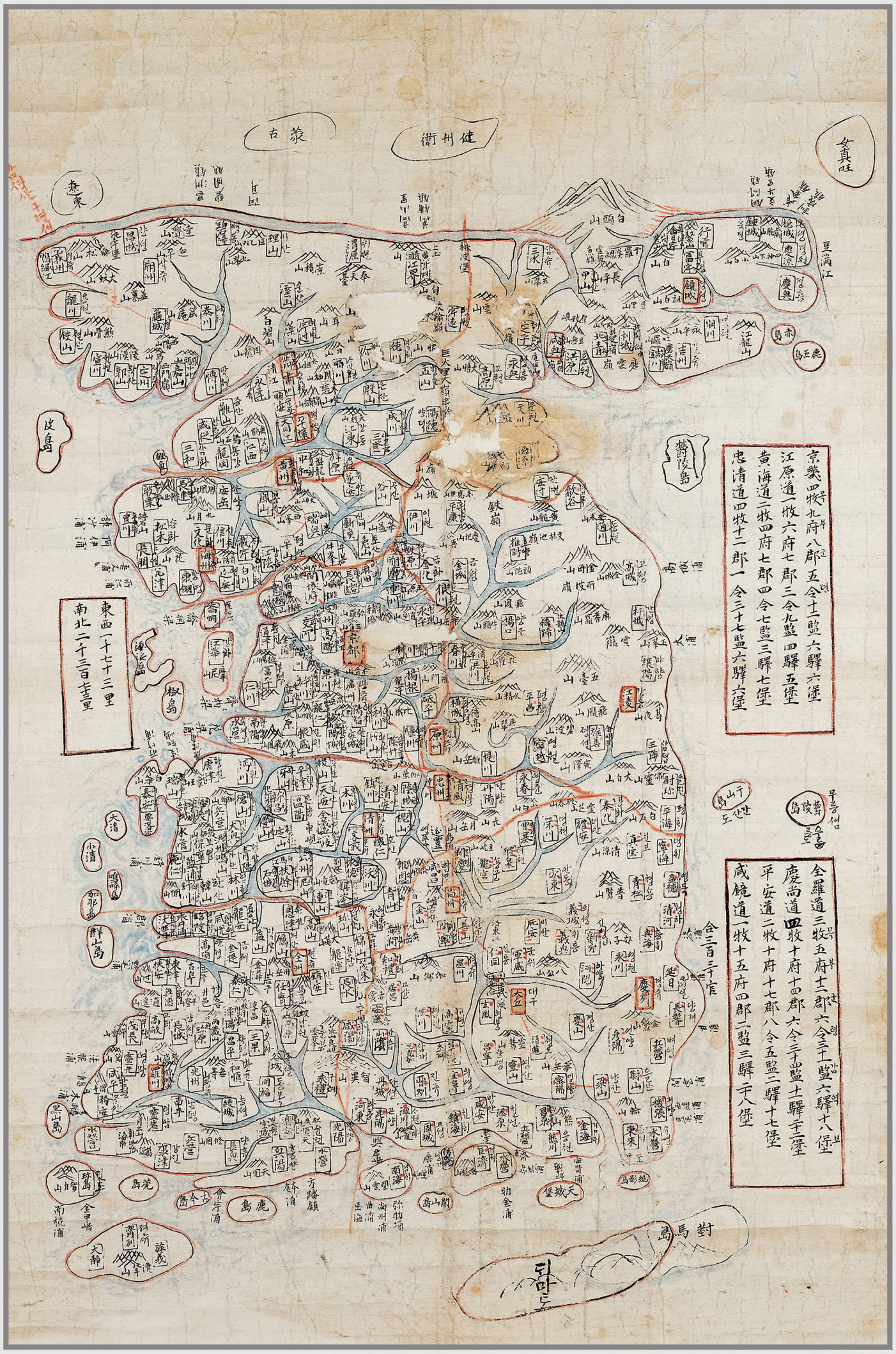
13 동국지도
東國地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전반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92.8×65.2cm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민간에서 제작된 우리나라 전도로 한글 지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 한반도의 윤곽은 조선 전기의 지도 양식을 따르며 북쪽 지방의 왜곡이 심하다. 팔도의 경계를 붉은색으로 표시했고 군현명과 더불어 일부 군현의 진산(鎭山)이 그려진 정도로 소략하다. 지도 여백에는 도별로 고을 수와 지방관 수, 역보(驛堡) 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도로는 조선 시대에 사신들의 왕래가 잦았던 영남로와 의주로만 그려져 있다.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나타나 있고, 원산만 부근에도 울릉도가 하나 더 그려져 있다. 울릉도 옆에는 한글로 '무릉셤'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울릉도를 무릉도라고도 불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독도에 해당하는 우산도에는 '간산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전 시기의 지도를 여러 번 베끼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4 『천하도』 내 동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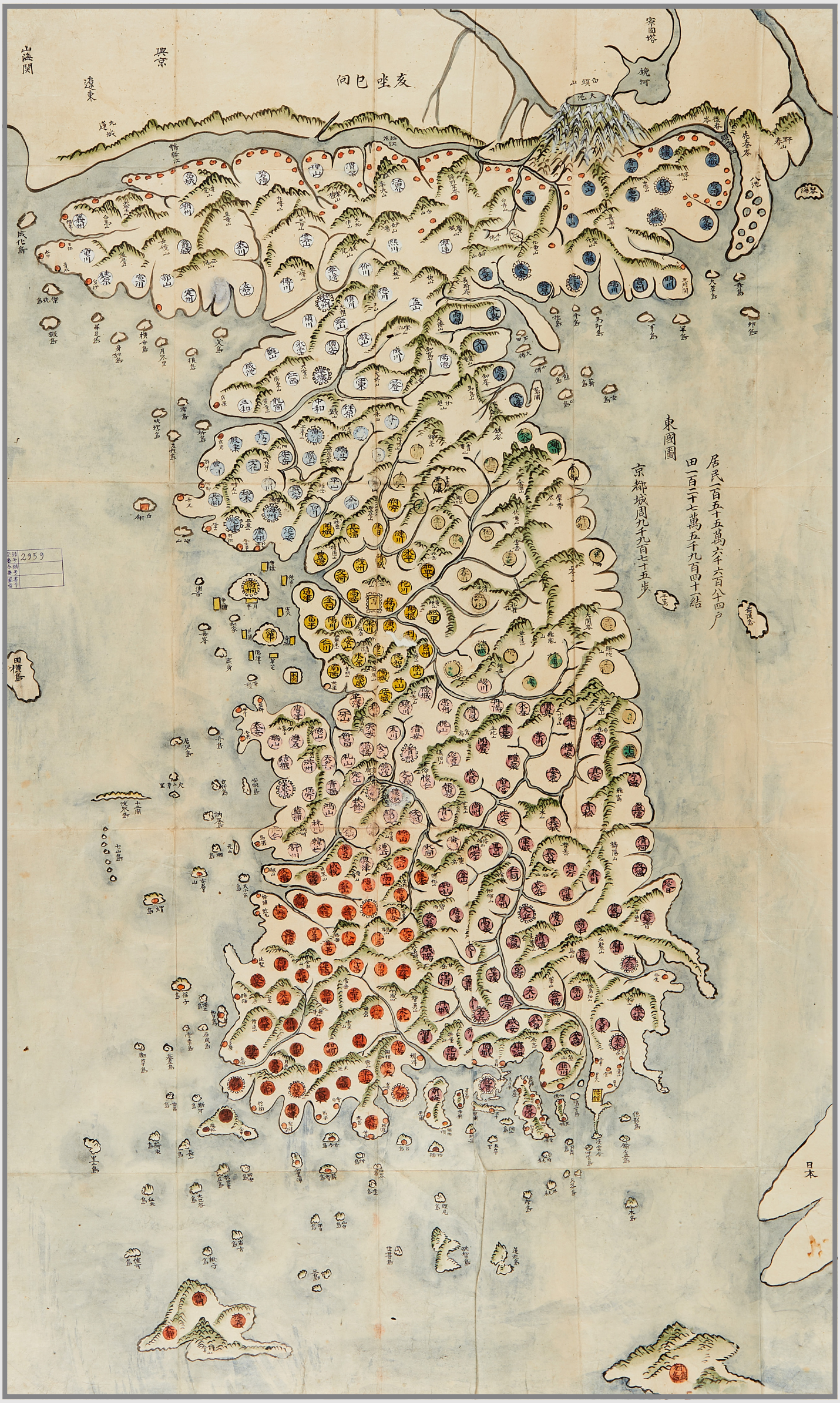
『天下圖』, 東國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후반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85.6×61.9cm
소장처 영남대학교 박물관

중국 지도, 일본 지도, 천하도가 같이 수록된 지도첩에 있는 조선 전도이다. 경상도의 안음(安陰), 산음(山陰)이 각각 1767년에 개칭된 안의(安義), 산청(山淸)으로 표기되었고, 경기도 금천(衿川)이 1795년 시흥(始興)으로 개칭되기 이전의 지명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된다. 지도의 전체적인 윤곽은 조선 전기 지도의 윤곽과 유사하며, 정확하거나 정교한 지도는 아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유로가 거의 수평으로 그려져 있고 남부 지방에 비해 북부 지방의 윤곽이 축소, 왜곡되었다. 압록강·두만강 이북의 대하천과 만주족의 옛 터전인 영고탑(寧古塔), 청나라가 개국했던 건주위(建州衛)인 흥경(興京) 등과 같은 몇몇 지명만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백두산의 모습은 매우 크고 웅장하게 그려 민족의 영산으로서 지니는 상징성을 강하게 부각한 점이 조선 전기의 지도와 다른 점이다. 산계(山系)는 맥세(脈勢)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였으며, 주요 산과 고개의 지명을 비교적 상세히 표기하였다. 하계(河系)도 청색을 사용하여 그렸으나 압록강과 두만강을 제외한 하천 대부분의 명칭은 표기하지 않았다. 팔도의 군현은 채색을 다르게 하여 도를 구분했으나 전통적인 오방색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각 도의 감영과 병영, 수영은 해바라기 모양의 성첩을 사용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해안과 접경 지방의 진보를 홍색의 원으로 표시하였고 해안의 도서들도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 넣었다. 동해에는 울릉도를 '盃陵島'로, 우산도(독도)를 '平山島'로 독특하게 표기하였으며, 독도가 울릉도 서쪽에 그려진 점도 조선 전기의 지도를 계승한 면을 보여 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5 조선국팔도통합도
朝鮮國八道統合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초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50×40.8cm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우리나라의 산계와 수계를 그리고 팔도 군현을 배치한 조선 전도이다. 지도의 윤곽은 평안도와 함경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된 조선 전기의 지도 유형에 속하며, 해안선과 산맥을 과감하게 일반화시킨 것이 큰 특징이다. 국토의 모습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그린 지도는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의 국토에 대한 독특한 인식이 잘 반영된 지도이다. 이 지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중국 지역을 검게 채색한 것으로, 이 당시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듯하다. 특히 여백의 주기(注記)에는 단군조선을 정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조선만만세(朝鮮萬萬歲)', '아조도한양만만세(我朝都漢陽萬萬歲)'라고 주기하여 조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동해에는 울릉도만 그려져 있고 우산도는 보이지 않는다. 양양 인근 해안가에 '동해묘(東海庙)'를 기재하였는데, 이는 동해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일본은 원 안에 표기하였는데, 다른 지도에서는 보기 힘든 경계선을 그려 넣었다. 대마도를 일본의 영역이 아닌 조선의 영역으로 표현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朝鮮國八道統合圖
地形如人立
海圍東西南
朝鮮國號有四曰檀君朝鮮 箕滿
朝鮮 箕子朝鮮至 我
朝鮮萬ㇾ歲
唐克二十五年戊辰東方初開始有君長
曰檀君降于太白山檀木下都于平
壤後移都白岳 太白今之妙香山 白岳今之九月山
檀君後朝鮮沿革
箕子都平壤國號朝鮮 衛滿逐箕準因都平壤又國號朝鮮 南有三韓
馬韓箕準今之益山地 辰韓今之慶州 弁韓今之松岳後漢武帝分其地
為四郡曰樂浪今之平壤 曰臨芚今之江陵 曰玄菟今之咸鏡南道 曰真番今之咸鏡北道後漢昭帝分置二都
督府曰乎那作其境內 及玄菟為平州都督 樂浪臨芚為東州都督 新羅都辰韓地
馬洛國首露王今之金海地 浴海君都今之江陵 高勾麗都今之咸川 百濟都今
之稷山 新羅末又三分 後百濟據完山 泰封據鐵原 高麗今開城
我 朝都漢陽萬ㇾ歲
八道原邑合三百三十五
地凡坎坐巳向
東西一千二百三十里
南北三千二百二里
正東江陵距京六百里
正西豐川距京五百六十二里
正南海南距京一千七里
正北穩城距京二千九十一里
八道官名捴錄
監司八 兵使八 牧使三十 水使六 防禦使七
府使六十七 郡七十七 令三十 監二百三十八 驛四十
僉使五十六 萬戶六十五 鎮五十六 堡七十七 山城三十
江原道二十六官
京畿道三十七官
忠清道五十四官
全羅道五十七官
慶尚道七十二官
平安道四十二官
咸鏡道二十四官
黃海道二十三官
遼東
建州衛
毛陽衛
白頭山
鴨綠江
豆滿江
對馬島
日本
耽羅
巨濟
南海
珍島
濟州
大靜
旌義
漢拏山
智異山
金剛山
妙香山
小白山
太白山
月出山
伽倻山
五臺山
雪嶽山
俗離山
九龍山
天磨山
天摩山
加智山
天馬山
天柱山
月生山
摩尼山
松都
江都
京
水原
開城
平壤
安州
寧邊
義州
江界
昌城
渭原
慈山
成川
順川
肅川
永柔
江西
三登
中和
祥原
黃州
鳳山
平山
金川
瑞興
谷山
遂安
新溪
兎山
平康
金城
伊川
安峽
鐵原
淮陽
楊口
狼川
抱川
永平
加平
抱州
高陽
楊州
積城
砥平
陽智
龍仁
振威
平昌
旌善
三陟
江陵
三陟
蔚珍
平海
襄陽
洛山
高城
杆城
通川
文川
德源
永興
咸興
定平
北青
利原
端川
吉州
明川
鏡城
富寧
會寧
慶興
鍾城
穩城
茂山
惠山
甲山
長津
三水
厚昌
渭源
碧潼
楚山
朔州
昌城
雲山
嘉山
定州
宣川
龍川
鐵山
郭山
龜城
博川
泰川
嘉德
昌城
義州

16 『해동지도』 내 대동총도

『海東地圖』, 大東總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중반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256.4×156.2cm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세기 중반 영조 연간에 제작된 종합적 아틀라스인 『해동지도』에 수록된 조선 전도이다. 전체적인 한반도의 윤곽은 조선 전기 정척·양성지의 「동국지도」 유형을 따르고 있다. 산지는 전통적인 연맥식으로 표현하였고 백두산, 금강산 같은 명산은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오방색을 사용하여 도별로 다르게 채색하였고, 감영은 붉은색으로 강조하였다. 도로는 붉은 선으로 그렸는데, 굵기를 다르게 하여 대로와 소로를 구분하였다. 해로는 붉은 점선으로 나타냈는데, 황해도 이북의 해로는 그려져 있지 않다. 남해안의 진보는 청색 사각형으로 상세하게 표시하였다. 무엇보다 해안의 섬들이 자세하게 그려져 이 시기 도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조선 전기의 지도에서와 달리 우산도가 더 작게 그려져 있다. 아울러 울릉도에는 '중봉(中峰)'이라는 지명과 함께 '삼척(三陟)'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울릉도의 수토(搜討) 결과로 파악된 정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고, '왜선창(倭船倉)'이 표시된 것으로 보아 아직 인식의 혼란이 남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7 한글본 조선전도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중엽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103×63cm,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00호
소장처 국립해양박물관

지명이 한글로 표기된 조선 전도이다. 경상도의 '산음(山陰)'이 1767년에 개칭된 '산청(山淸)'으로 표기되어 있고, 1776년 '초산(楚山)'으로 개칭된 평안도의 '이산(理山)'과 '니성(尼城)'으로 개칭된 충청도의 '니산(尼山)'이 개칭 전 지명 그대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1767~1776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한반도 윤곽은 조선 전기의 지도 유형과 유사하다. 오른쪽 여백에는 조선의 좌향(坐向)과 동서, 남북의 길이를 기재하였다. 산계는 봉우리를 이어 그려서 산줄기의 형태로 표현했고 주요 산들의 이름을 표기했다. 하계망은 청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주요 하천의 이름과 중요 나루터 등이 표기되었다. 전국의 군현 명칭을 수록했고, 과거 왕국의 수도에는 당시 존재했던 나라의 이름을 표기했다. 교통로는 그려져 있지 않으나 각 도의 감영이 있는 도회에는 서울로부터의 일정을 표기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울릉도에는 성인봉을 상징하는 산의 모습을 표현했고, 우산도는 울릉도 서쪽에 울릉도보다 작게 그렸다.



54 한일 고지도 속의 한반도, 동해 그리고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경기도삼십사관
충청도오십스관
황히도이십삼관
강원도이십육관
전라도오십칠관
경상도칠십일관
평안도스십이관
함경도이십삼관
합삼백삼십스관
아국지형이회스하
동서일찰칠십삼리
남북삼천삼백칠십삼리
중원절강선명주청리
의가예호로길스리

18 동국지도
東國地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초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크기 미상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古2702-7-4-8)

만주 지방이 같이 그려진 조선 전도로, 전체적인 한반도 윤곽은 왜곡이 심한 편이다. 1767년에 개칭된 경상도의 산음과 안음이 개칭되기 이전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고, 1712년에 세워진 백두산정계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대략 18세기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를 모식적으로 그려 정교함이 떨어지고 산의 명칭도 거의 표기되지 않았다. 전국의 군현이 모두 수록되었고 감영, 병영, 수영이 있는 곳은 크게 강조하여 그렸다. 진보, 산성, 역원 등은 기호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도별로 채색을 다르게 하여 표현하였으나 오방색을 뚜렷하게 구분하지는 않았다. 만주 지방에는 청나라가 설치한 유조변장(柳條邊牆)이 표현되어 있고 청나라의 발상지인 영고탑도 강조되어 있다. 동해에는 울릉도가 동쪽에 크게 그려져 있고 우산도는 그 서쪽에 작게 그려졌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 동국대지도
東國大地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중엽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272.7×147.5cm, 보물 제1538호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후기 지도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는 정상기의 「동국대전도」를 모사한 지도이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대전도(大全圖)와 팔도분도(八道分圖)가 있는데, 현존하는 것은 대부분 팔도분도이고 대전도는 매우 드물다. 이 지도는 정상기가 고안한 제척(梯尺)의 형태인 백리척(百里尺)을 사용하여 그린 대전도로, 당시로서는 대축척 지도인 약 1:42만 지도이다. 한반도 북부 지방의 왜곡된 윤곽이 이 지도에서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뻗어 내린 백두대간의 산줄기가 강조되어 그려져 있는 등 전통적인 산천 인식이 반영되었다. 다양한 인문적 요소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관문(關門), 산성과 같은 군사시설, 육로와 해로 등의 교통망이 자세히 그려졌다. 이 지도에는 한반도 부분뿐만 아니라 만주, 중국 동해 연안, 일본 등의 지도가 더 그려져 있어 최초 「동국대전도」 원형의 모습을 보여 준다. 『조선왕조실록』 내 기사와 비단에 그려진 수법의 정교함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정상기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던 「동국대전도」를 바탕으로 홍문관의 주관하에 도화서의 화원이 모사한 지도로 추정된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그려져 있는데, 『동람도』의 오류가 시정되어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그려졌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 팔도지도
八道地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전반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98.3×61.5cm
소장처 영남대학교 박물관

18세기에 조선 지도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의 사본에 수록된 소형 전도로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800년에 개칭된 지명인 함경도의 이원(利原), 충청도의 노성(魯城) 등이 있고, 1822년에 설치된 후주부(厚州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동국지도』 사본 중에서도 좀 더 후대에 제작된 지도로 보인다. 전도를 비롯하여 도별도(道別圖)에 축척을 나타내는 백리척(百里尺)이 그려져 있다. 소형 전도이지만 육로, 수로의 교통로가 상세하며, 팔도 각 지역을 발문에 기록한 오방색에 맞추어 구분하였다. 해안선의 윤곽은 원도인 『동국지도』 계열을 따르고 있다. 산천의 표현은 대략 도별도와 유사하나, 산지를 독립된 산과 연맥식으로 혼용하여 그린 점이 다르다. 동해에는 오촌(五寸)으로 구분된 백리척이 표시되어 있어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울릉도에는 죽전(竹田), 주토굴(朱土窟) 등의 새로운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우산도는 『동람도』에서와 달리 울릉도의 동쪽에 그려졌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1 『환영지』 내 조선팔도총도

『寰瀛誌』, 朝鮮八道總圖

제작자 위백규
발행 연도 1822년
형태, 크기 목판본, 31.8×20.9cm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호남의 실학자 위백규(魏伯珪)가 1770년에 기록한 필사본을 족손(族孫)인 위영복(魏榮馥)이 1822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환영지』에 수록된 조선 전도이다. 『환영지』는 천문과 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유서(類書)로 도설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지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부도인 『동람도』의 「팔도총도」처럼 간략한 형태를 보인다. 과거 왕조의 위치와 서울을 비롯한 팔도가 표시되어 있다. 지도 상단에는 조선의 분야(分野)와 좌향이 표시되어 있는데, '석목(析木)의 차(次)와 기미(箕尾)의 별자리'에 해당하고 '해좌사향(亥坐巳向)'의 좌향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동서와 남북의 거리를 표시했다. 동해에는 몇 개의 섬이 그려져 있는데, 북쪽에 두만강 아래에 있는 적도(赤島)가 표시되었고 그 아래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우산도는 울릉도의 동남쪽에 기다란 형태로 울릉도보다 크게 그려졌다. 그 동쪽에는 다른 지도에서 보기 힘든 이도(夷島)가 그려져 있는데, 일본에 속하고 야만인에 가깝다고 기술하였다. 아마도 지금의 홋카이도를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2 동국팔역산천일통전도
東國八域山川一統全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초반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138×57cm
소장처 미국 의회도서관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의 사본에 수록된 소형 전도로 1800년에 개칭된 지명인 함경도의 이원(利原), 충청도의 노성(魯城) 등이 있고, 1822년에 설치된 후주부(厚州府)가 없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도 하단에 있는 '갑인년(甲寅年)에 동산초당에서 글을 썼다'라는 기록으로 볼 때 1854년 갑인년에 제작된 것일 수도 있다. 동해에 축척을 나타내는 백리척(百里尺)이 그려져 있다. 소형 전도이지만 육로, 수로의 교통로가 상세하며, 팔도 각 지역을 발문에 기록한 오방색에 맞추어 구분하였다. 해안선의 윤곽은 『동국지도』 계열을 따르고 있다. 산천의 표현은 대략 도별도와 유사하나, 산지를 독립된 산과 연맥식으로 혼용하여 그린 점이 다르다. 백두산 아래에는 정계비 표시도 보인다. 교통로는 육로와 해로를 붉은 선으로 세밀하게 표현하였고, 각 도의 감영과 병영, 수영 등을 강조하였다. 지도 상단의 여백에는 팔도 소속의 고을 수와 역원, 진보, 산성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하단에는 '동국산천역대고적(東國山川歷代古蹟)'이 기재되어 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나타나 있는데, 우산도를 울릉도의 동쪽에 그렸고 지명은 '우도(于島)'로 표기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3 접역전도
鰈域全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초반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99×55cm
소장처 미국 의회도서관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의 사본에 수록된 소형 전도로 1800년에 개칭된 지명인 함경도의 이원(利原), 충청도의 노성(魯城) 등이 있고, 1822년에 설치된 후주부(厚州府)가 없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안선의 윤곽은 『동국지도』 계열을 따르고 있다. 산천은 전통적인 연맥식으로 표현하였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에서 볼 수 있는 교통로는 그려져 있지 않으며, 각 도의 감영과 병영, 수영 등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지도의 왼쪽 상단에는 지도 제목이 표기되어 있는데, '유명조선여지도(有明朝鮮輿地圖)'와 '접역전도(鰈域全圖)'라는 두 개의 명칭이 보인다. 접역은 조선의 형세가 가자미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유명조선'은 조선 중화를 강조한 표현이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나타나 있는데, 우산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그려졌고 지명은 '우도(于島)'로 표기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4 한글본 조선전도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크기 미상
소장처 프랑스 국립도서관

한글본 조선 전도로, 한반도의 윤곽과 지도의 내용은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 사본과 유사하다. 한글 지명과 더불어 알파벳 지명이 표기된 것으로 보아 구한말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지도로 보인다. 팔도의 경계가 그려져 있고 군현의 옆에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했는데, 아라비아 숫자는 끝자리가 십 단위로 표기되었다. 교통로가 붉은 선으로 자세히 그려져 있다. 산지는 봉우리를 연결하여 그리는 전통적인 연맥식 방법으로 표현했다. 하계망은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까지 세밀하게 나타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울릉도의 성인봉을 '즁봉'으로 표기했다. 우산도는 다른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에서와 같이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작은 크기로 표현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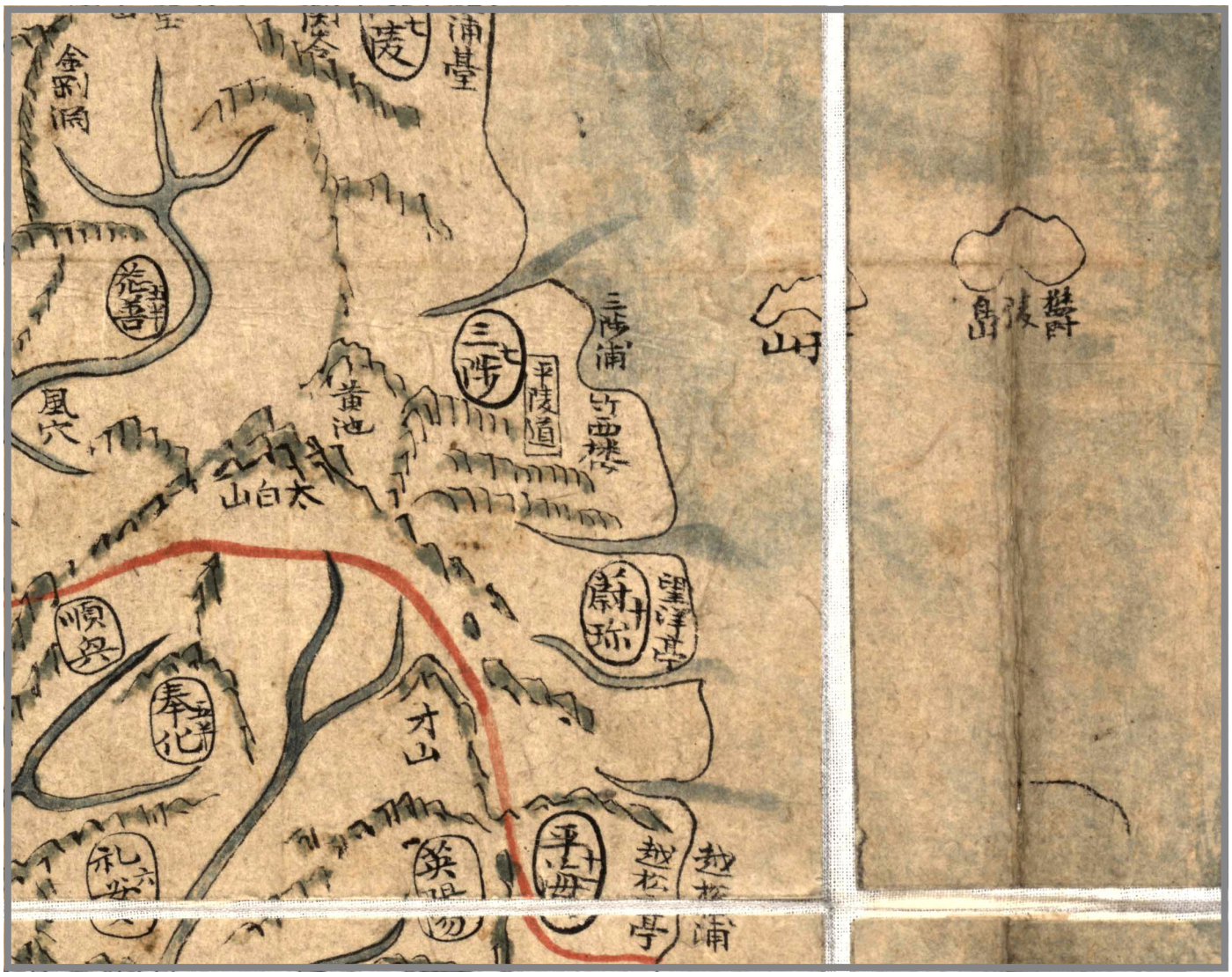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5 『대명일통산하도』 내 조선전도

『大明一統山河圖』, 朝鮮全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700년 전후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크기 미상
소장처 미국 의회도서관

이 지도는 1684년에 처음 설치된 함경도 무산부(茂山府)가 표시되어 있고 1712년에 세워진 백두산정계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대략 17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된다.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이 함께 그려진 지도로 전체적인 한반도 윤곽은 조선 전기의 지도 유형과 유사하다. 백두산을 크게 강조하여 그렸고 산지는 산봉우리를 연결하여 그려 산줄기 형태로 표현했다. 유명한 산의 명칭도 함께 표기했다. 팔도의 경계를 붉은 선으로 그려 구분했으며, 전국의 군현이 수록되어 있고 군현명 옆에는 서울로부터의 일정이 병기되어 있다. 제주까지의 일정은 보통의 지도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이 지도에서는 11일 반으로 기재하여 남해안에서 제주까지 도해하는 일정을 반일로 계산하였다. 도로망은 그려져 있지 않으나 찰방역(察訪驛)은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해안의 섬들도 비교적 자세하게 그렸으나 일부 섬들은 지명 표기 없이 모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동해의 삼척 동쪽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고, 우산도는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졌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6 『사해지방승개지도』 내 조선총람도

『四海地方勝槩之圖』, 朝鮮總覽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700년 전후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크기 미상
소장처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도서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동람도』의 「팔도총도」와 같은 유형의 전도이다. 전체적인 한반도 윤곽은 『동람도』의 「팔도총도」에서보다 왜곡이 심한 편이고, 그려진 내용도 약간 다르다. 「팔도총도」에 없는 금강산과 한양의 인왕산이 그려져 있으며 동해안에도 「팔도총도」에 없는 국도(國島)와 녹둔도(鹿屯島) 등의 섬이 그려져 있다. 반면에 거제도, 남해도 같은 남해안의 섬들은 누락되었다. 오른쪽 여백에는 우리나라 연혁과 지형에 대한 기록이 있다. 여기에는 '고려 때 활구(闊口)라 불린 은병(銀甁)을 화폐로 사용하였는데, 그 형태는 우리나라 지형을 본뜬 것'이라는 구절도 수록되어 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지도 화폐의 사례로 의미가 있다. 동해안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동람도』에서와 같이 우산도를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 넣었다. 우산도의 맞은편 해안가에 표기된 '동해(東海)'는 동해신묘(東海神廟)를 나타낸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7 『해동지도』 내 조선전도

『海東地圖』, 朝鮮全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6세기 후반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48.6×32.3cm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북부 지방의 왜곡이 심한 조선 전기의 전도 유형으로 소축척 전도에 해당한다. 지도에 표기된 지명으로 제작 시기를 추정하면, 1652년에 처음 설치된 황해도의 김천군이 없고 1600년에 혁파된 전라도의 진원현(珍原縣)이 있는 것으로 보아 16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산지는 백두대간처럼 큰 산줄기 위주로 연결하여 표현했다. 주요 산과 고개의 이름도 표기해 넣었으나 대관령을 '목관령(木關嶺)'으로 표기한 오류도 보인다. 각 도를 오방색으로 표현했으나 변색이 심하다. 도로는 서울에서 의주까지 통하는 의주대로가 그려져 있고 철령에서 경흥까지 이르는 도로도 그려져 있다. 지도 여백에는 각 도 소속의 군현과 역보(驛堡)의 수를 수록하였다. 지도의 오른쪽 하단에는 '칠곡루(漆谷漏)'라 하여 경상도의 칠곡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칠곡을 첨기하였는데, 이는 후대의 지도 소장자가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각 도의 감영, 병영, 수영을 강조하여 표시하였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동람도』에서처럼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졌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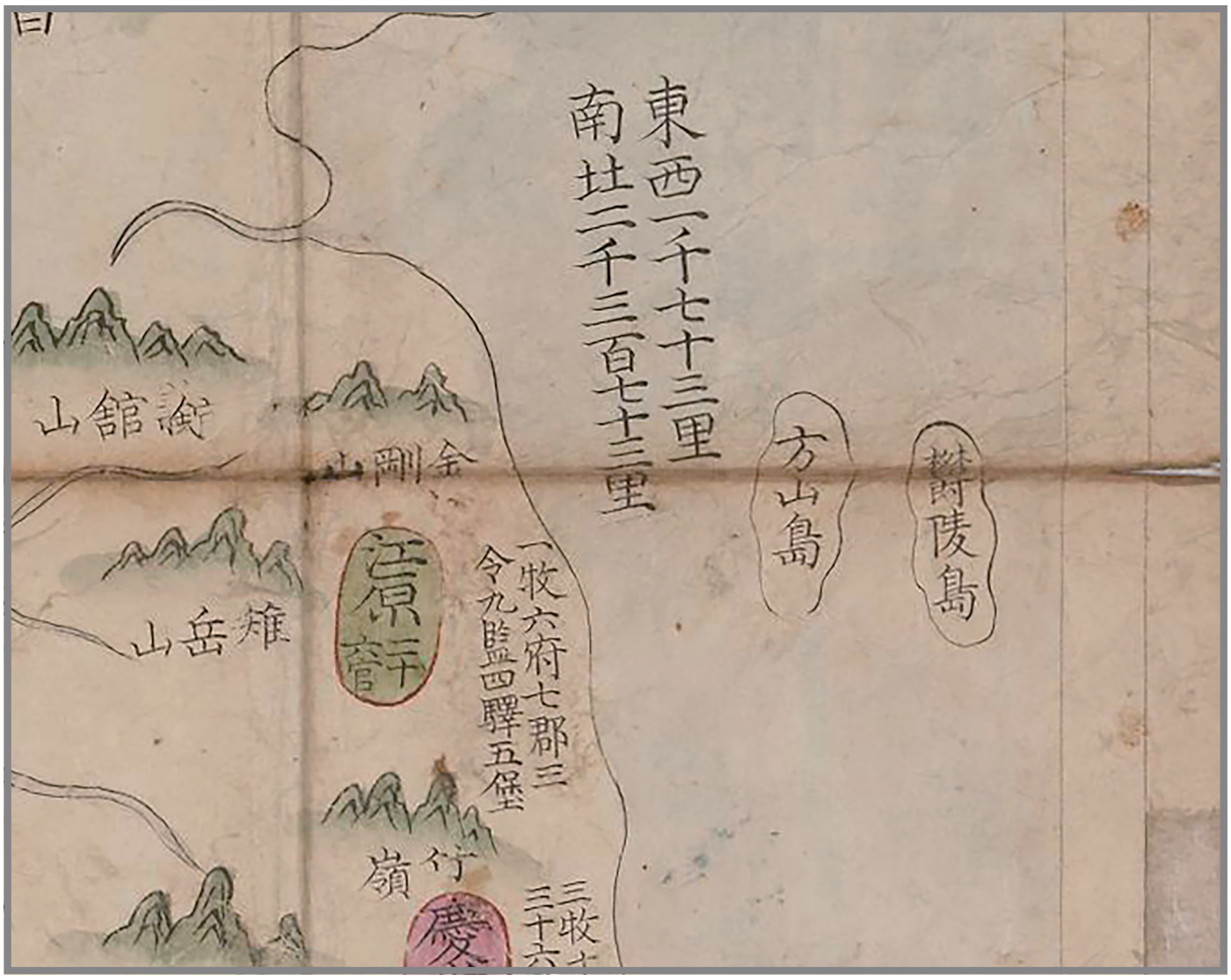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8 『해동총도』 내 조선총도

『海東總圖』, 朝鮮總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중반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32.5×42.2cm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부도인 『동람도』의 「팔도총도」 유형의 필사본 조선 전도이다. 지도의 한반도 윤곽이나 내용은 『동람도』의 「팔도총도」와 약간 차이가 있다. 「팔도총도」에 기재된 하천의 지명이 이 지도에서는 누락되어 있고, 동해·남해·서해 등의 해신묘(海神廟) 표시도 빠져 있다. 대신 각 도의 명칭 옆에는 도에 소속된 군현과 역보(驛堡)의 수가 기재되어 있다. 지도의 상단과 하단에는 단군 이래의 왕조에 대한 연혁이 수록되어 있는데 삼한, 삼국, 고려까지의 강역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명나라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에는 평안도가 과거 변한(弁韓)이고, 전라도가 마한 땅이라 했다고 한다. 최치원은 마한이 고구려, 진한이 신라, 변한이 백제라 했다"라는 기록도 보인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그 서쪽에 '방산도(方山島)'로 잘못 표기된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庚戌辰神人降太
白山檀木下國人立以
爲君是爲檀君朝鮮
甲午檀君上仝周武王
戊子封箕子都平壤
是爲箕子朝鮮漢惠
甲戌燕人衛滿亡入逃
箕準ニ即箕子四十代
孫也準浮海避居全
馬郡今之益山也是
爲馬韓秦人亡入馬韓
韓人割東界以與之是
爲辰韓所謂弁韓未
詳其始是爲三韓也
馬韓統五十四國辰卞
各統十二國全羅蘆嶺
以南慶尚高靈以南爲
卞韓地也漢武伐朝鮮
置樂浪臨屯玄菟真
番四郡漢成十五年百
濟始祖溫祚立于南漢
[illegible]南至海東至濊貊
[illegible]漢新羅始祖朴居
世立于鷄林東南至海
西至濊貊北至漢高句
麗始祖朱蒙立于平
壤東至海南至漢西北
踰遼河是三國新羅
滅靺鞨其後弓裔據
鉄原稱後高麗甄萱
據完山稱後百濟梁[illegible]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9 『천하지도』 내 조선국

『天下之圖』, 朝鮮國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27.7×30.7cm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동람도』 내 「팔도총도」 유형의 사본 지도이다. 『동람도』는 지지(地誌)를 보완하는 부도로 제작되었기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매우 소략하다. 지지에 이미 많은 내용이 지역별로 수록되어 지도에서는 단지 지역의 개략적인 모습만 보여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지도는 필사본으로 제작되었으나 지도 내용은 『동람도』의 「팔도총도」와 큰 차이가 없다. 일부 지명이 추가로 수록되었으며 서해안의 오호도(嗚呼島)가 그려져 있다. 이 섬은 한고조(漢高祖)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한 제(齊)나라의 전횡(田橫)이 수하들과 함께 피신해 들어갔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지도 상단에는 '아국지형해좌사향(我國地形亥坐巳向)'이라고 국토의 좌향을 표기했다. 가야진(伽倻津) 옆에는 『동람도』에 없는 주기가 기재되어 있는데, "일명 낙동강이고 상주 동쪽 30리에 있는데 선산 경계로 들어간다"라고 표기하였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동람도』의 「팔도총도」에서와 동일하게 그려져 있으며 울릉도는 붉은색으로 채색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咸鏡道
水流沸
在永興府
流入竜興江
義館
東海
于山島
鬱陵島
江原道
雉岳
嶺竹
慶尚道
山屹走
山沸于
津郎伽
界三州東南

30 『여지도』 내 아국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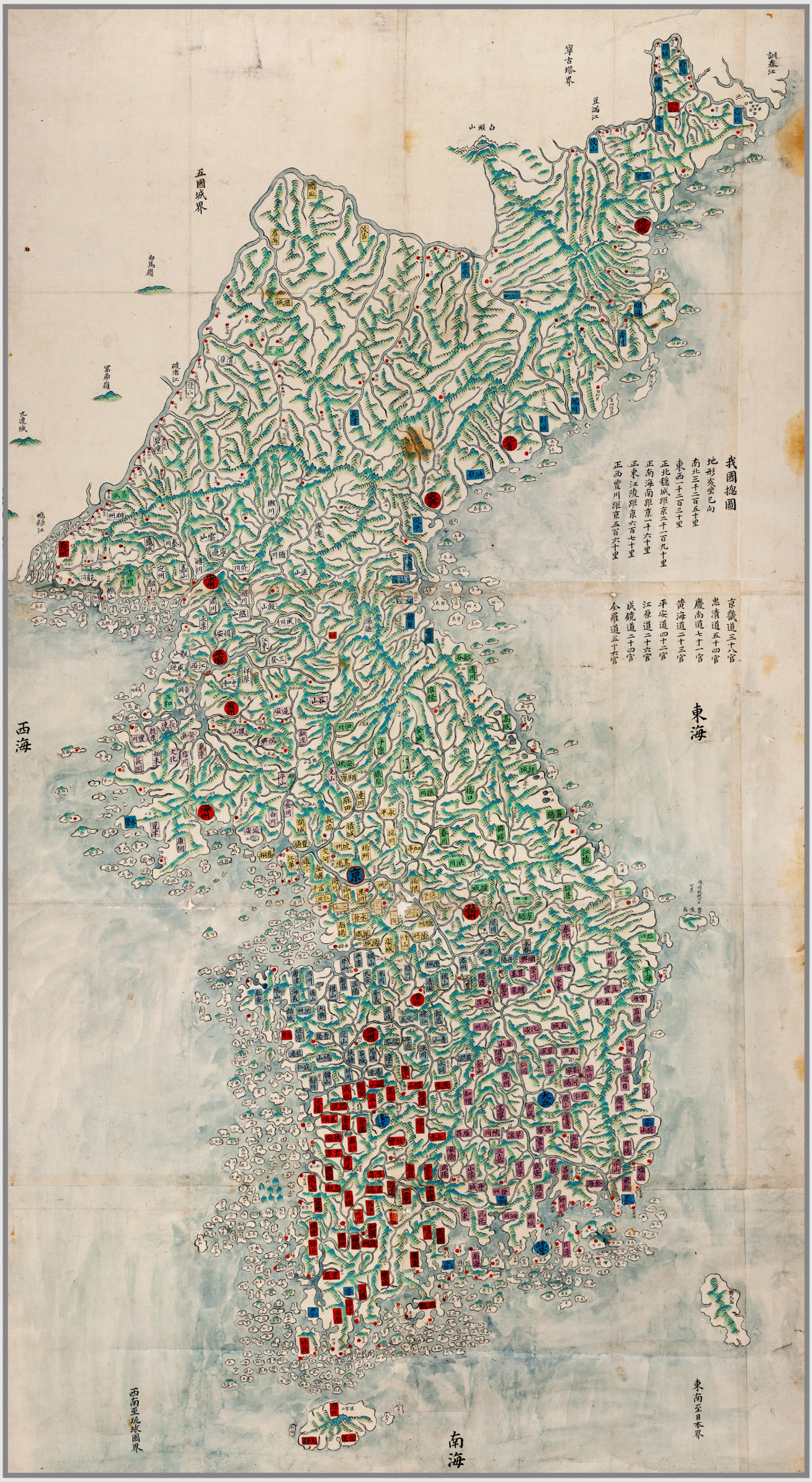
『輿地圖』, 我國總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말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152.5×82cm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조 대의 지도첩인 『여지도』에 수록된 전국 지도이다. 전체적인 한반도 윤곽은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따르고 있다. 이 지도는 무엇보다 화려한 색채가 돋보인다. 산줄기를 녹색, 하천을 청색으로 표시하고, 팔도의 군현을 다른 색채로 구분하였다. 또한 해안의 섬들이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당시 도서 지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던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지도 여백에는 국토의 좌향(坐向), 동서와 남북의 길이, 사방(四方)의 끝에서 서울까지의 거리, 각 도의 군현 수가 기재되어 있다. 지금의 독도가 울릉도 동쪽 동해(東海)에 '우도(于島)'라는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고 대마도도 그려져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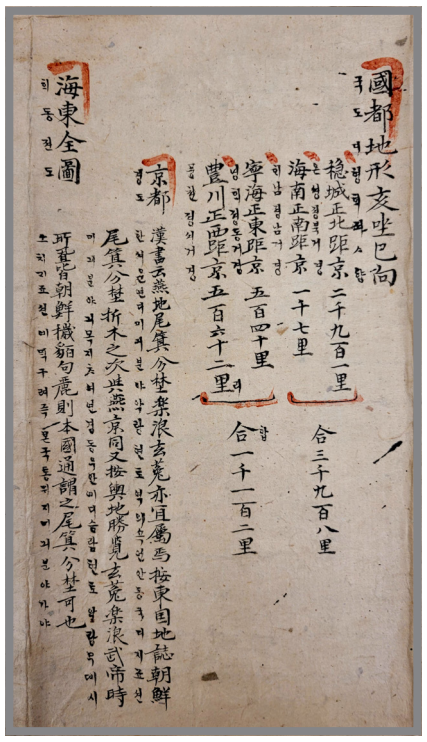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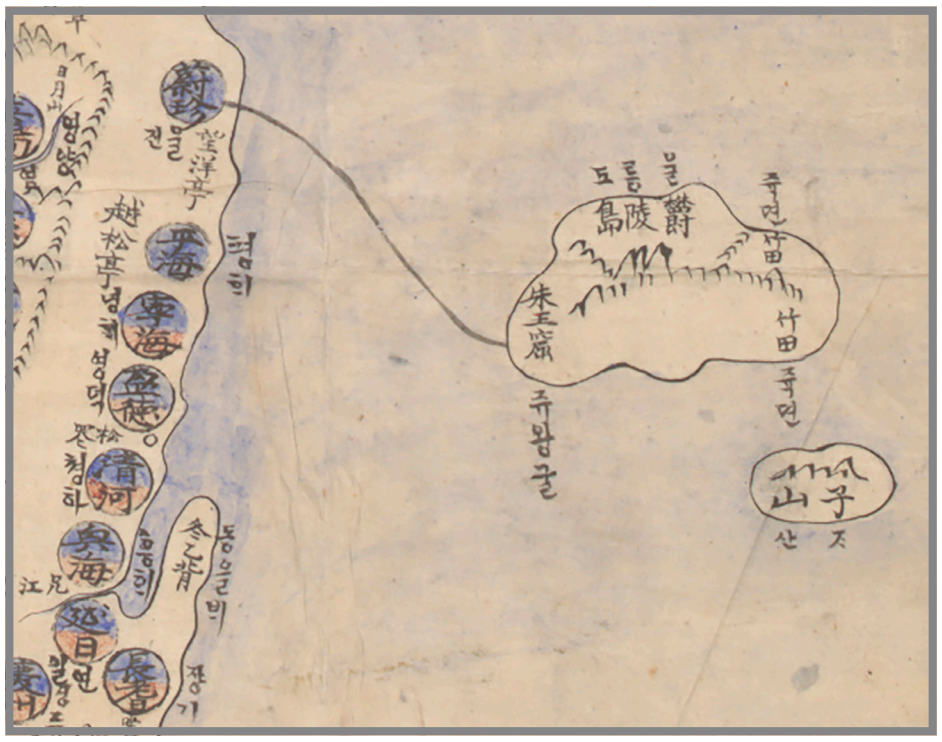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1 해동전도
海東全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말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71×43cm
소장처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한글과 한자가 병기된 조선 전도로, 한반도의 윤곽은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 사본과 유사하나 수록된 내용은 소략하다. 1822년에 처음 설치된 함경도의 후주부가 없는 것으로 보아 1800년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도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민속 조사를 위해 조선에 파견한 미국 해군 장교 버나두(J.B. Bernadou)가 1885년에 수집하였다. 지도의 내용은 팔도의 군현을 중심으로 그려졌으며 산지와 하천은 상대적으로 소략하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에서 볼 수 있는 도로망은 그려져 있지 않고 팔도의 경계나 기타 인문적 요소도 거의 수록되지 않았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류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남쪽에 그려져 있다. 그러나 우산도의 명칭이 '주산'으로, 울릉도의 주토굴이 '쥬왕굴'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울진에서 울릉도까지 수로선이 그려져 있으며, 이는 수토사(搜討使)의 수토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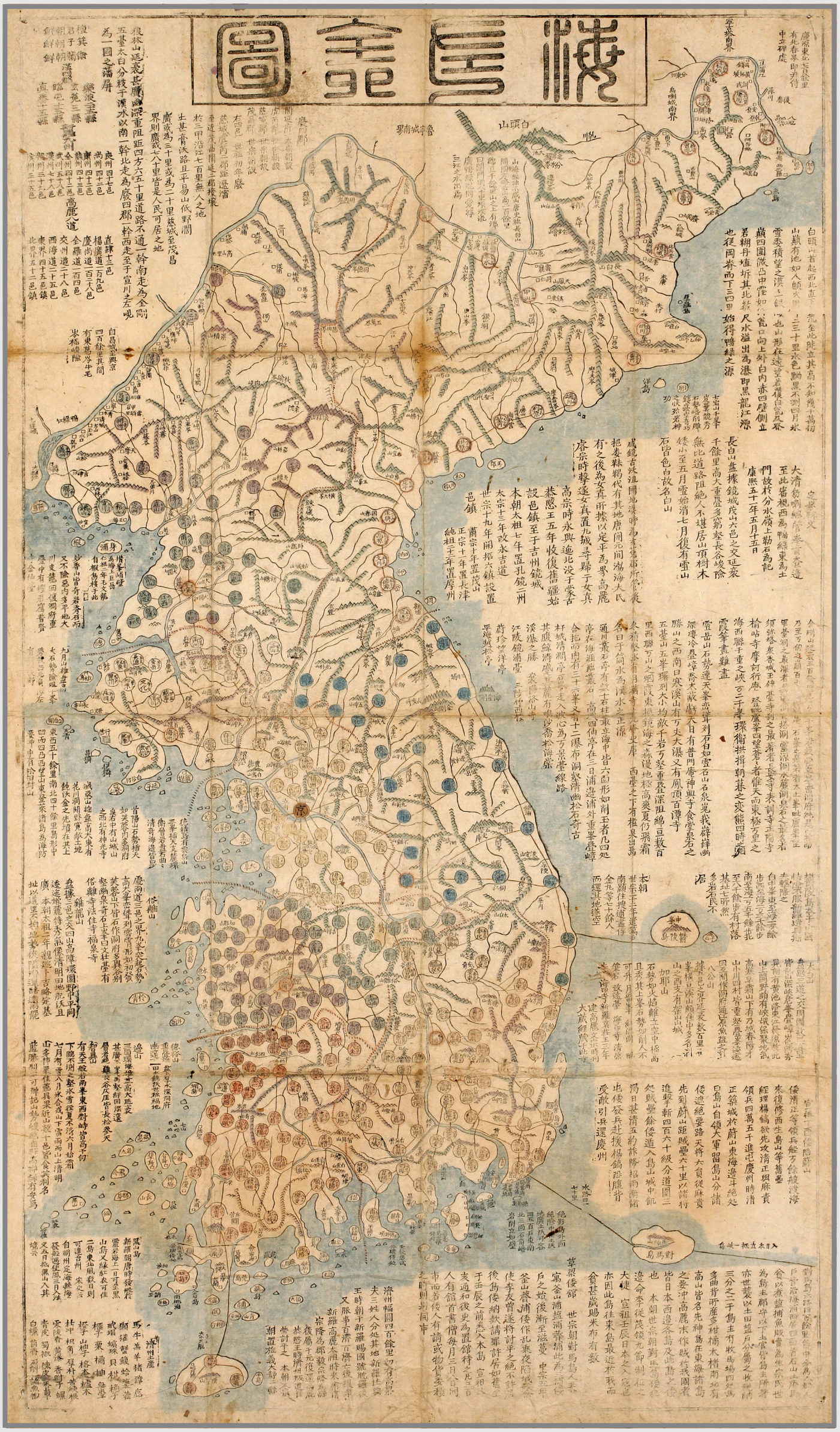
32 해좌전도
海左全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중엽
형태, 크기 목판본, 98.3×56cm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해좌전도」는 19세기 중엽에 제작된 대표적인 목판본 전도이며, 인쇄본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다수가 남아 전한다. 18세기에 정상기의 『동국지도』 이래로 축적된 성과가 잘 반영된 지도이며, 목판본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에 지도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을 시사하는 지도이다. 지도 여백에는 지지에 관련된 내용을 빽빽하게 기록해 놓아 지도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주기 중에 "순조 22년 치후주(置厚州)"라고 쓰여 있어서 순종(純宗)의 묘호(廟號)가 순조(純祖)로 승격된 1857년 이후에 제작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산맥, 하천, 군현 등의 표현 방법이 좀 더 간략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으며, 육로와 해로, 도의 경계 등도 비교적 소상하게 표시되어 있다. 18세기 이후 지도의 전통에 따라 울릉도와 우산도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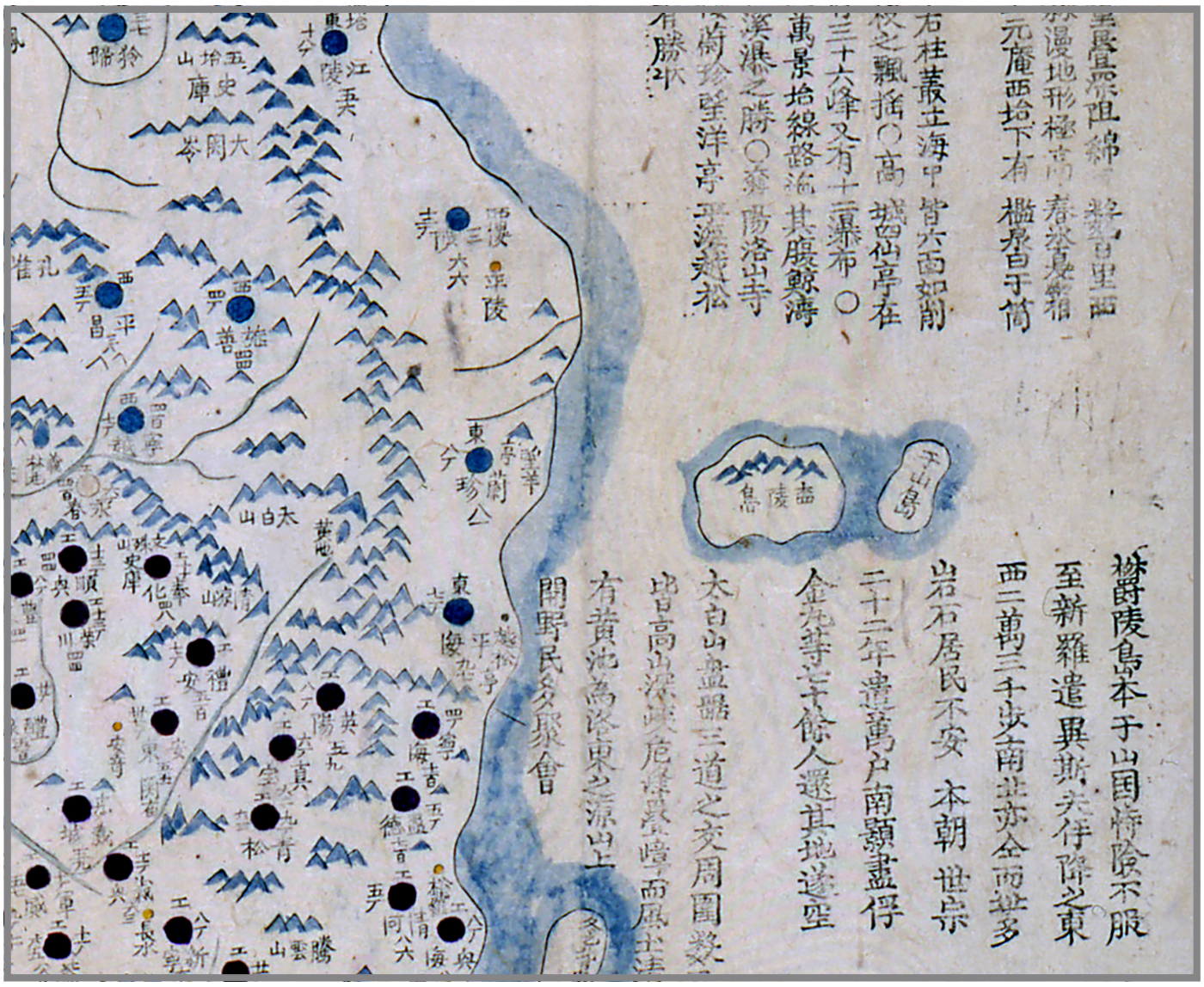

輿地圖
白頭山
鴨綠江
豆滿江
烏喇城南界
寧古塔南界
魯城南界
會寧
慶源
慶興
鍾城
穩城
茂昌
慈城
江界
厚昌
渭原
楚山
碧潼
理山
昌城
朔州
寧邊
雲山
嘉山
定州
宣川
鐵山
龍川
義州
威化島
統軍亭
三水之水出焉
大清統制疆宇奄有四海
至此猪根西為鴨綠東為土
門故於分水嶺上勒石為記
康熙五十一年五月十五日
長白山蟠據鏡城茂山六邑之交延袤
千餘里高大重疊多窮壑長谷峻險
無比道路阻絶人不堪居山頂樹木
矮小至五月雪始消七月復有雪山
石皆色白故名白山
咸鏡古沃沮國地漢時為玄菟郡所管後
把婁靺鞨代有其地唐開元間渤海大氏
有之後為女真所據以定平為畧高麗
睿宗時擊逐女真置九城尋歸于女真
高宗時永興逸北沒于蒙古
恭愍王五年收復舊疆始
設邑鎮至于吉州鏡城
本朝太祖七年置孔鏡二州
太宗十三年改永吉道
世宗十九年開拓六鎮設置
邑鎮
肅宗十年置茂山
正宗十年置長津
純祖三年置厚州
慶興府
慶源府
會寧府
鍾城府
穩城府
茂昌郡
慈城郡
厚昌郡
渭原郡
楚山郡
碧潼郡
理山郡
昌城郡
朔州郡
寧邊郡
雲山郡
嘉山郡
定州牧
宣川府
鐵山郡
龍川郡
義州牧
威化島
統軍亭
白頭山首起西北直下
至此陡立其高不知幾千萬仞
山頭有池如人鏡大周二三十里水色黝黑不測四月氷
雪委積望之漠漠一銀山形在遠望若覆白盂及登
巔四圍微凸中窪如釜口向上鮮白內赤四壁側立
若糊丹塗垛其北數尺水溢出為瀑即黑龍江源
也從岡脊而下三四里始得鴨綠之源
大清統制疆宇奄有四海
至此猪根西為鴨綠東為土
門故於分水嶺上勒石為記
康熙五十一年五月十五日
長白山蟠據鏡城茂山六邑之交延袤
千餘里高大重疊多窮壑長谷峻險
無比道路阻絶人不堪居山頂樹木
矮小至五月雪始消七月復有雪山
石皆色白故名白山
慶興府
慶源府
會寧府
鍾城府
穩城府
茂昌郡
慈城郡
厚昌郡
渭原郡
楚山郡
碧潼郡
理山郡
昌城郡
朔州郡
寧邊郡
雲山郡
嘉山郡
定州牧
宣川府
鐵山郡
龍川郡
義州牧
威化島
統軍亭
很林山延袤甚廣幽深重阻距四方六五十里道路不通一幹南走為全嶺
五臺太白分枝于漢水以南一幹北走為廢四郡一幹西走至于宣川之左峴
為一國之藩屏
樂浪王氣
檀箕儒
君子鄉
朝鮮朝鮮
朝鮮朝鮮
直隸十三邑
良州四十七邑
尚州四十二邑
慶尚道二百九邑
全羅道一百四邑
忠州五十八邑
交州道二十八邑
西海道二十五邑
東界四十五邑鎮
北界六十二邑鎮
高麗道
直隸十三邑
楊廣道一百九邑
慶尚道二百八邑
全羅道一百四邑
交州道二十八邑
西海道二十五邑
東界四十五邑鎮
北界六十二邑鎮
白頭山
白頭山
白頭山

33 『도리도표』 내 팔도전도

『道里圖表』, 八道全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후반
형태, 크기 목판본(가채), 135×58cm
소장처 영남대학교 박물관

18세기 이후 널리 유포되었던 목판본 『도리도표』로, 같은 판본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도리도표』 내 「팔도전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을 따르고 있으나 전체적인 해안선 윤곽은 다소 차이가 있다. 여타 『동국지도』 유형의 전도와는 달리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산과 고개, 하천 등이 그려져 있다. 지도 여백에는 조선 후기의 전도에서 많이 보이는 조선 지형의 좌향(坐向)과 정동·정서·정남·정북의 위치 및 거리를 주기하였다. 십촌(十寸)으로 구분된 백리척(百里尺)도 옆에 그려 놓아 이 지도가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국방상 요충지인 진보(鎭堡)와 산성, 역도(驛道)를 작은 원으로 표시하였으나 수륙 교통로는 표시하지 않았다. 지도 여백에는 범례와 주요 지역에 대한 연혁, 역도, 물산 총론 등의 지지(地誌)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962

八道全圖

地圖九則
一各道別乙取其方面東
青西白南朱玄而均用十
央二黃別西之粉和苹南之綠
未則玄灰色各取間色而別之道
之界則各取其界線之兩色而填青
禁山則用本圖而填青
一縣邑之南左右道者為其官廨在焉右視
口与江左之以東為東西亞之分南北者并標于西國
兰國〇二〇之標里之數則接壤邑境四至皆準之
一各邑之有古城者皆載之雖不可不錄而遠之數十里不得
不具書亦為有之數百數十里處於舉大數假令
一百二十里曰二三百三十里曰三則四五九從可推之
一列邑間坊之疑九里而錯故面標以方坊標以方
各道邊界比附隣境圖界詳於各官府用小黃圖

慶四郡

本朝太祖設閭延世稱沃美而慶城尤曰世祖初生慶
慈惠堂時臨近豺獐為閭延東北三甲路五百里無人之地而土甚膏腴似野洞
豐旦平易曾是人民可居云
狼林山延袤甚廣為東方鎮山一幹自走為金剛五臺太
白分枝于漢水以南一幹北走為四郡一幹西走為白頭
川之南幽為國之藩屏○妙香山皆奇岩秀石而又不險
惡內多平地大川中有檀君館并賢寺金仙臺

九月山壇 盤高踞峙石陰
祖平峰 特秀萬嶽西芽
一名山
首陽山 抑天峰 亞正似笑容
內多洞府中有山城山之西北有
神光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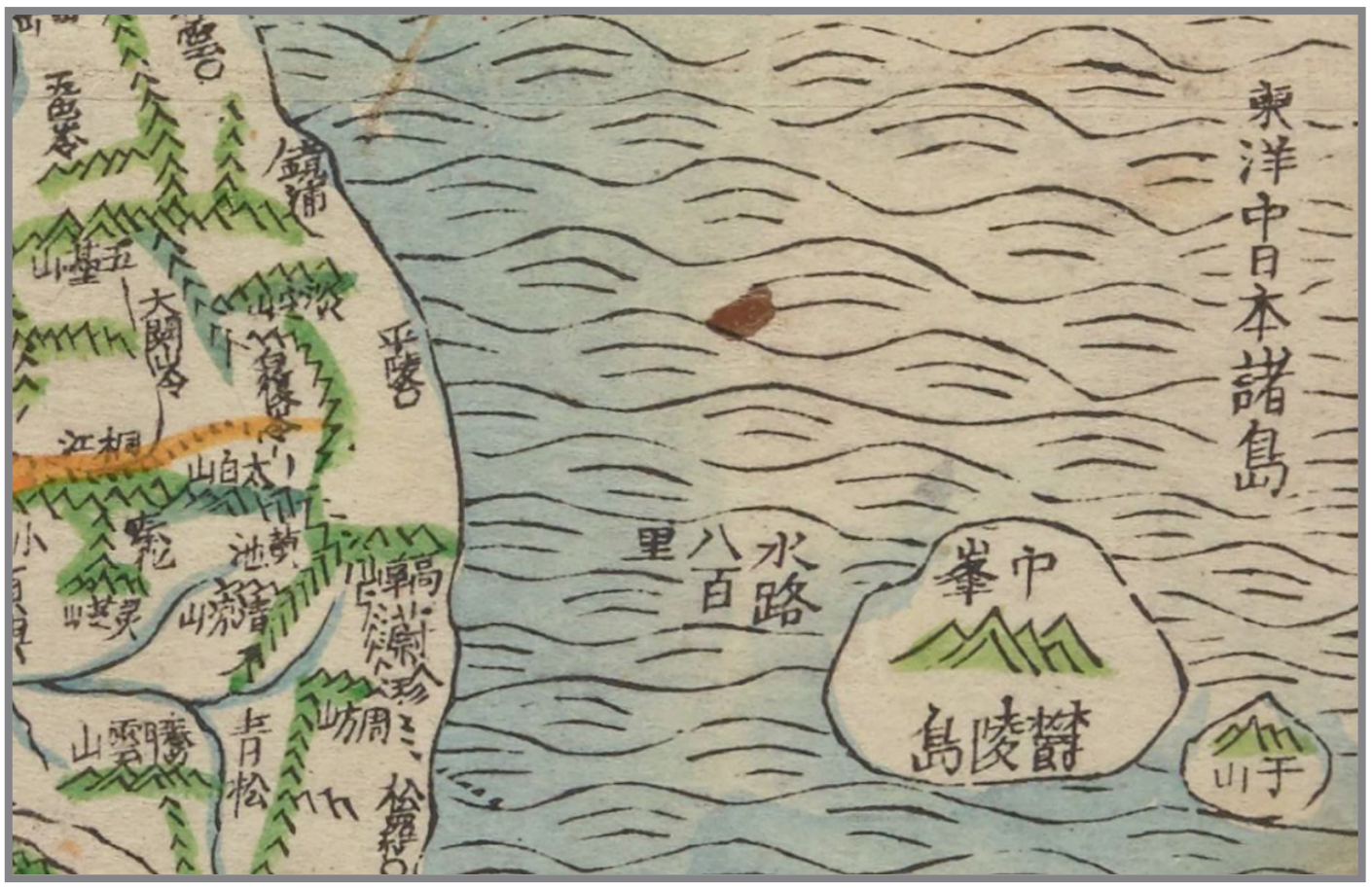
慶尚土譽
金海大鼻
安東三鼻
昌寧興陽各九處 青道各九處 金郊時各九處 金礼各二處 金郊時各九處 金郊時各九處 金郊時各九

34 『동여도』 내 대조선국전도

『東輿圖』, 大朝鮮國全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말
형태, 크기 동판본, 30.5×20.3cm
소장처 프랑스 국립도서관

19세기 말에 제작된 동판본 지도책 『동여도』에 수록된 조선 전도이다. 동일본 지도책이 『접역지도(鰈域地圖)』, 『동여전도(東輿全圖)』 등의 이름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영남대학교 박물관에도 『대조선전도(大朝鮮全圖)』라는 이름으로 소장되어 있다. 이 지도책은 조선 후기에 널리 보급된 목판본 지도책을 동판으로 간행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지도책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천하도와 중국·일본·유구국 지도를 제외하고, 대신 「한양경성도(漢陽京城圖)」와 「경성부근지도(京城附近之圖)」를 첨가하였다. 지도의 내용도 조선 후기의 목판본 지도책과 달리 도별도에서 정상기의 『동국지도』 이후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인쇄본 지도로서 목판본 지도첩이 동판본으로 새롭게 바뀌던 단계의 지도이다. 전통적인 표현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조선 후기의 지도학적 성과를 반영한 대표적인 지도라 할 수 있다. 남북으로 압축되어 있는 등 형태가 조금 다르지만, 19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목판본 전도인 「해좌전도」와 산맥·하천, 해안 지방의 도서, 수로의 표시, 팔도의 경계 등이 거의 일치한다. 특히 남해안에는 임진왜란 시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격파했던 전적지를 똑같이 표기하였다. 그러나 규격이 작은 동판본으로 제작되었기에 「해좌전도」에 수록된 지명 중 일부는 빠져 있고 육로도 그려져 있지 않다. 「해좌전도」와는 달리 바다에 수파묘(水波描)를 그려 넣은 점이 독특하다. 팔도의 각 군현명을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글자로만 표시한 데 반해 감영 소재지는 큰 원을 사용하여 위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울러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표시하였다. 동해상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처럼 그려져 있으나 산을 중봉(中峰)으로 표기한 점이 다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5 대한전도
大韓全圖

제작자 학부편집국
발행 연도 1899년
형태, 크기 인쇄본, 33.5×23.9cm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1899년(광무 3) 학부편집국(學部編輯局)에서 간행한 전국 지도이다. 이 지도와 함께 소장되어 있는 지도들은 1896년에 지방제도가 13도로 개편됨에 따른 13도의 도별 지도들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도 제작 기법과 서양의 근대적 기법이 혼재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지도이다. 이 전도에는 경위선이 그려져 있는데 경선은 중국 북경을 기준으로 한 편동도수(偏東度數)를 기초로 하였다. 그러나 도별도에는 경위선이 없어 전통적인 지도 제작 방식이 계승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도는 대중적 보급을 목적으로 한 소책자 형태를 갖추고 있기에 축척이 작다. 그러나 지도상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의 행정구역인 부(府)·군(郡) 등과 혁파된 감영, 병영, 수영, 찰방, 진보 등의 지명과 주요 산천, 도서 등으로 비교적 상세하다. 기법상으로는 산지를 표현하는 데 우모식(羽毛式, 지도에 표시된 일정한 등고선에 직각으로 짧은 쐐기 모양의 선을 기입하여 고도를 표시) 방법을 도입하였고, 범례를 지도 여백에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방위를 글자가 아닌 기호로 나타냈다. 특히 행정단위의 기호에서는 도형을 사용하여 위계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 시대의 전통적인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던 일본의 일부가 동남쪽 모서리에 그려져 있고 대마도의 윤곽도 이전과 달리 사실에 가깝게 그려진 점이 특이하다. 이 시기에 이르러 중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고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처럼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그려졌으나 울릉도 남쪽에 부속 도서가 4개 더 그려져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大韓全圖

光武三年十二月十五日學部編輯局刊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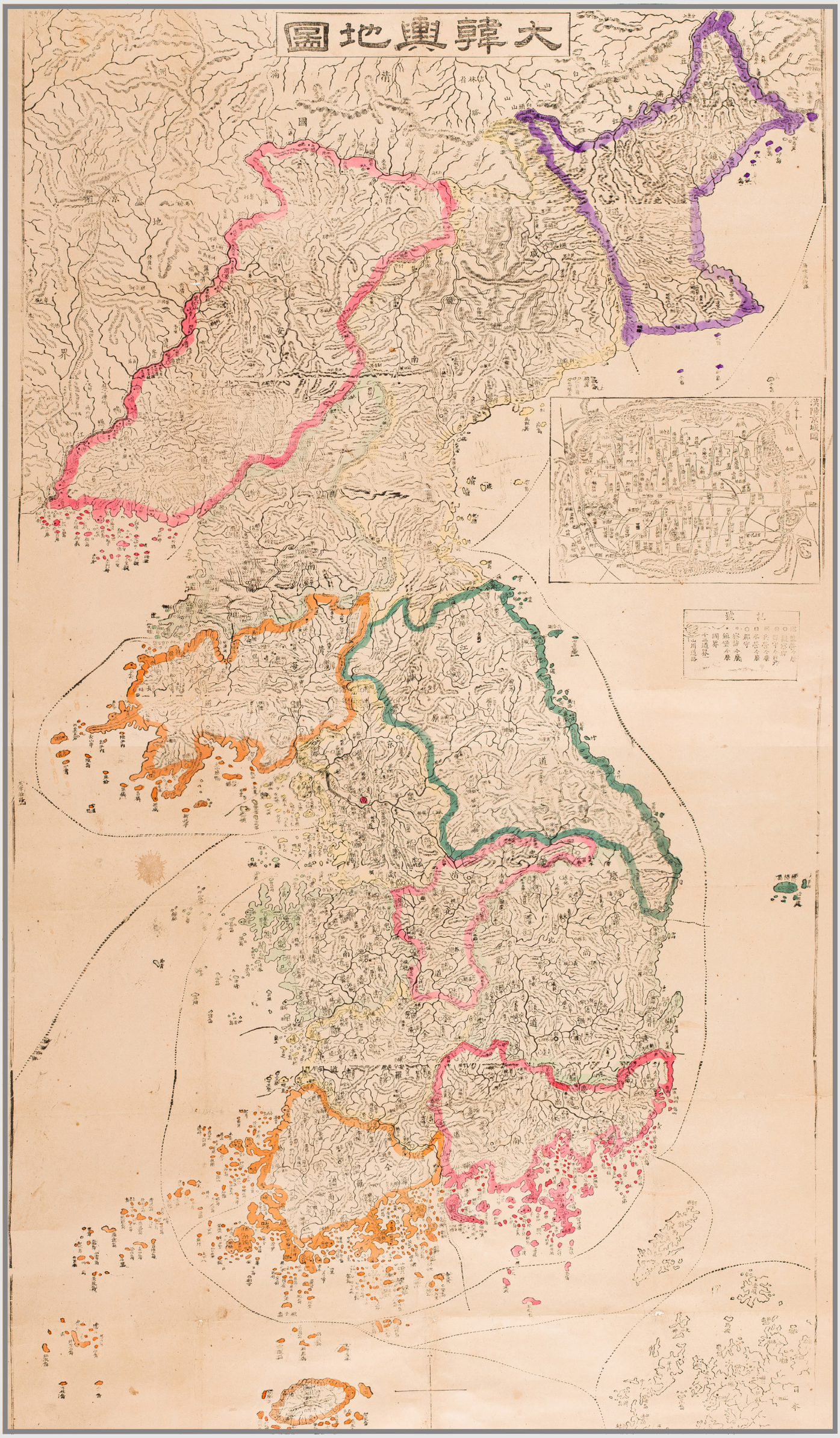
36 대한여지도
大韓輿地圖

제작자 학부편집국
발행 연도 1900년경
형태, 크기 동판본, 152×84.5cm
소장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대한제국의 학부편집국에서 학교 교육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지도이다. 지도의 윤곽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조선팔도지도」와 동일하여 이를 기초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한여지도」는 조선의 전통적인 지도 제작 방식에 일본을 통해 도입된 서양 지도학의 기법을 가미하여 제작되었다. 지형을 우모식으로 표시한 점과 대마도의 윤곽을 일본 지도에서 옮긴 점 등은 외래적 요소가 반영된 것이다.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도 우리나라와 같이 지형을 자세하게 나타냈으며, 의주 북쪽 중국 지역의 봉황성에서 개원(開元)까지 '유조변장(柳條邊牆)'이라 부르는 목책장성(木柵長城)이 표시되어 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배치된 점은 유사하나 울릉도 남쪽에 섬이 5개 더 그려져 있고 선박처(船泊處)도 표시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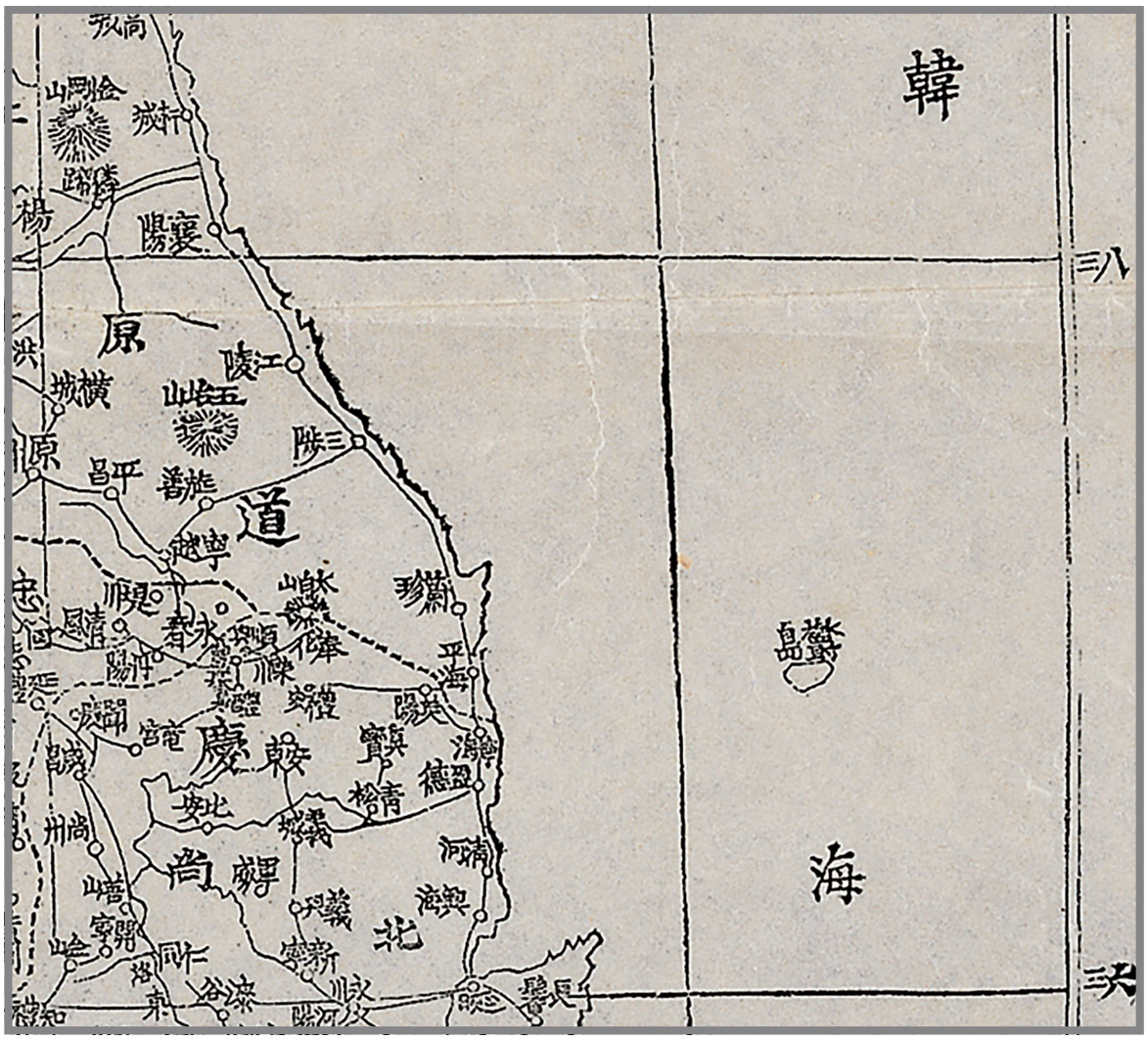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7 『대한신지지부지도』 내 대한전도

『大韓新地志附地圖』, 大韓全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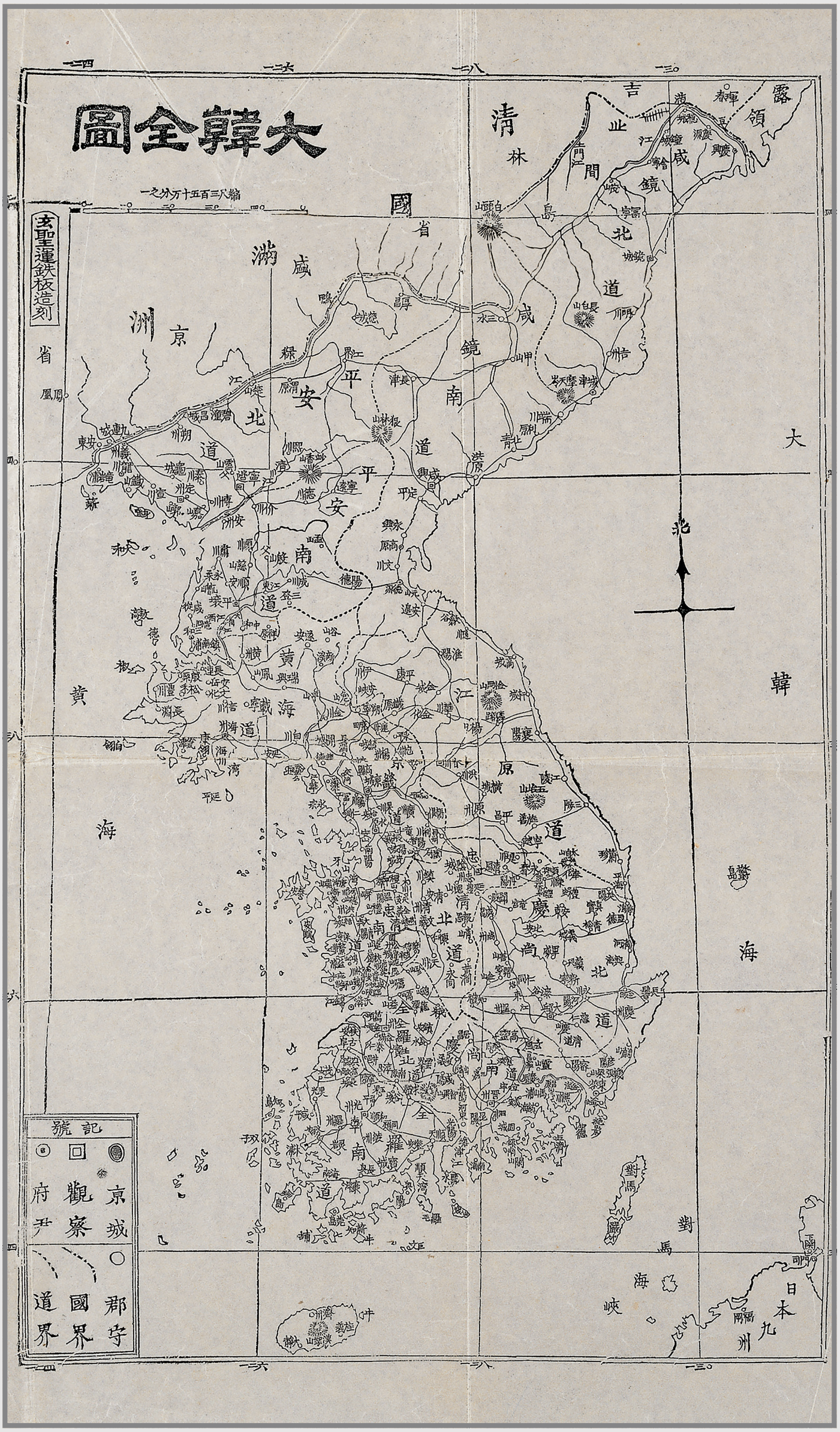
제작자 현성운
발행 연도 1907년
형태, 크기 철판본, 31.5×19.5cm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대한신지지부지도』는 1907년(광무 11) 6월 장지연(張志淵)이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저술한 『대한신지지(大韓新地志)』에 수록된 부도(附圖)만을 모아 만든 지도책이다. 여기에는 두모포 판찰관(辦察官)을 지낸 현성운(玄聖運)이 제작한 「대한전도」와 1896년 이후 13도로 행정구역이 바뀐 상황을 반영한 각 도별도가 수록되어 있다. 「대한전도」는 축척 1:250만의 지도로 근대적 경위선망이 사용되었고 방위, 범례 등이 기호로 표현되었다. 특히 경선은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지도에서 자주 보이는 중국 북경을 기준으로 하는 선이 아니라 영국을 기준선으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기법보다는 서양식 근대적 기법으로 만들어진 지도로 볼 수 있다. 지도의 왼쪽 상단에 '현성운철판도각(玄聖運鐵板造刻)'이라 기록해 놓아 철판 인쇄본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채색은 후에 더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에 표현된 내용은 각 도 행정구역의 명칭과 주요 산천명, 도로망, 도별 경계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을사늑약을 거치면서 대한제국이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즈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작된 계몽적 성격이 강한 지도이다. 따라서 이 지도에서는 두만강 이북 토문강 이남의 북간도를 우리 영토로 표시하였고, 동해를 '대한해(大韓海)'로 표기하여 독립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다. 울릉도는 이전 시기 지도와는 달리 '울도(鬱島)'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울릉도'가 '울도'로 개칭된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大韓全圖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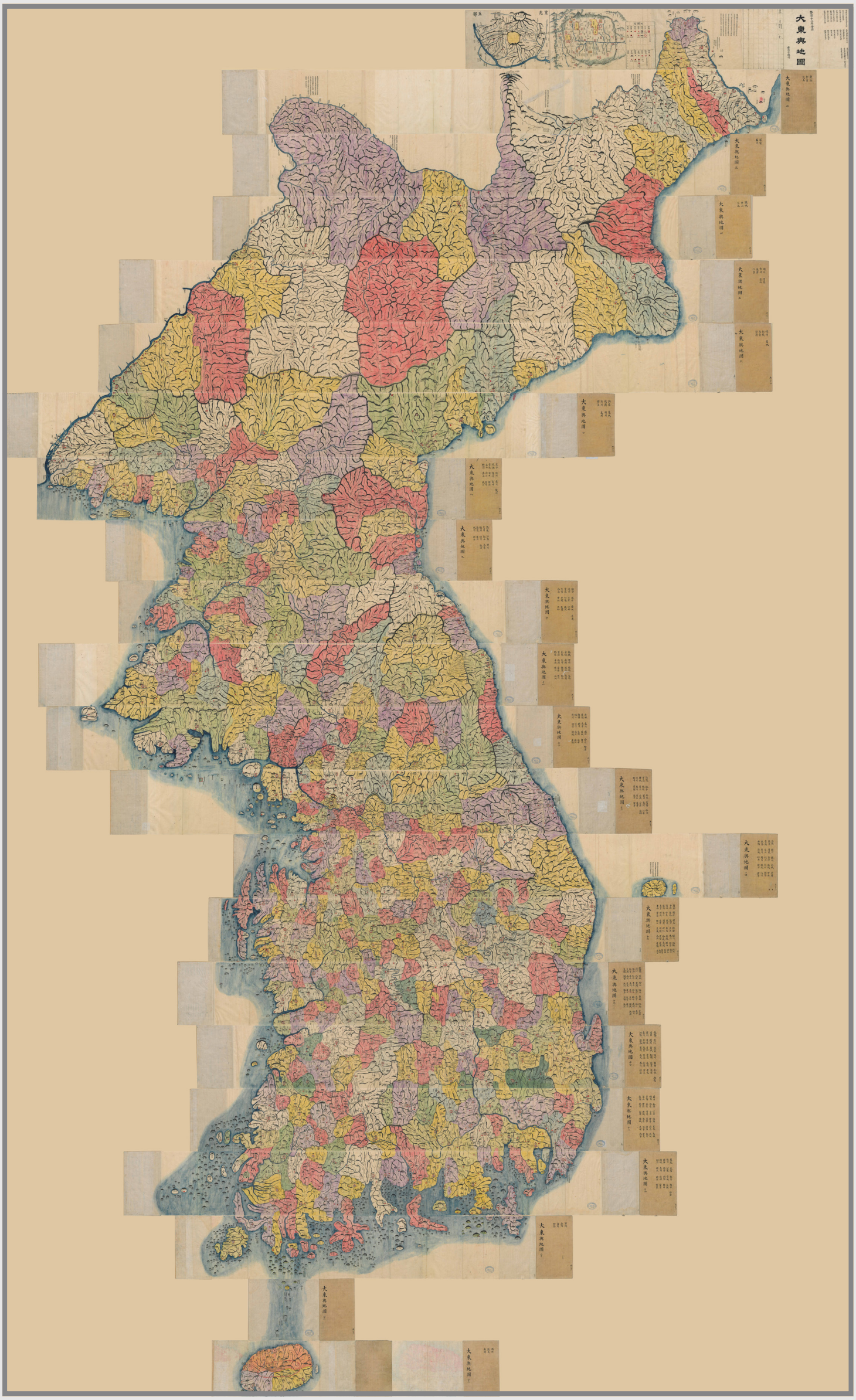
38 필사본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후반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22첩 각 30.5×20.1cm
소장처 한국연구원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여지도』를 필사한 지도로, 필사 수법이 비교적 정교하다. 군현별로 채색을 다르게 하여 구분하였다. 산지나 하천의 표현은 목판본 『대동여지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교통로도 목판본 『대동여지도』처럼 검은색 실선으로 그렸으나 10리 간격을 표시하려고 찍었던 점은 보이지 않는다. 창고나 역원, 산성 등의 기호도 목판본 『대동여지도』에서와 동일하다. 월경지도 경계 표시와 더불어 색깔로 구분했다. 울릉도의 모습도 목판본과 동일한데, 그 동쪽에 우산도가 추가로 그려져 있다. 울릉도에는 공암(孔岩), 죽전(竹田), 저전동(楮田洞), 주토굴(朱土窟), 선박처 등이 표시되어 있고 성인봉은 중봉(中峯)으로 표기되었다. 울릉도 위쪽에는 "영조 11년(1735)에 강원도 감사 조최수(趙最壽)가 장계를 올려 말하기를, '울릉도는 땅이 넓고 토지가 비옥하며, 사람이 거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도가 있는데, 역시 넓고 광활합니다'라고 이른즉, 소위 서자(西字)는 이 지도에서 동쪽에 있는 것과 서로 다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1834년에 제작된 김정호의 『청구도(靑邱圖)』에 수록된 기록으로, 필사본 『대동여지도』 제작자는 『청구도』를 보고 우산도와 이 기록을 첨가한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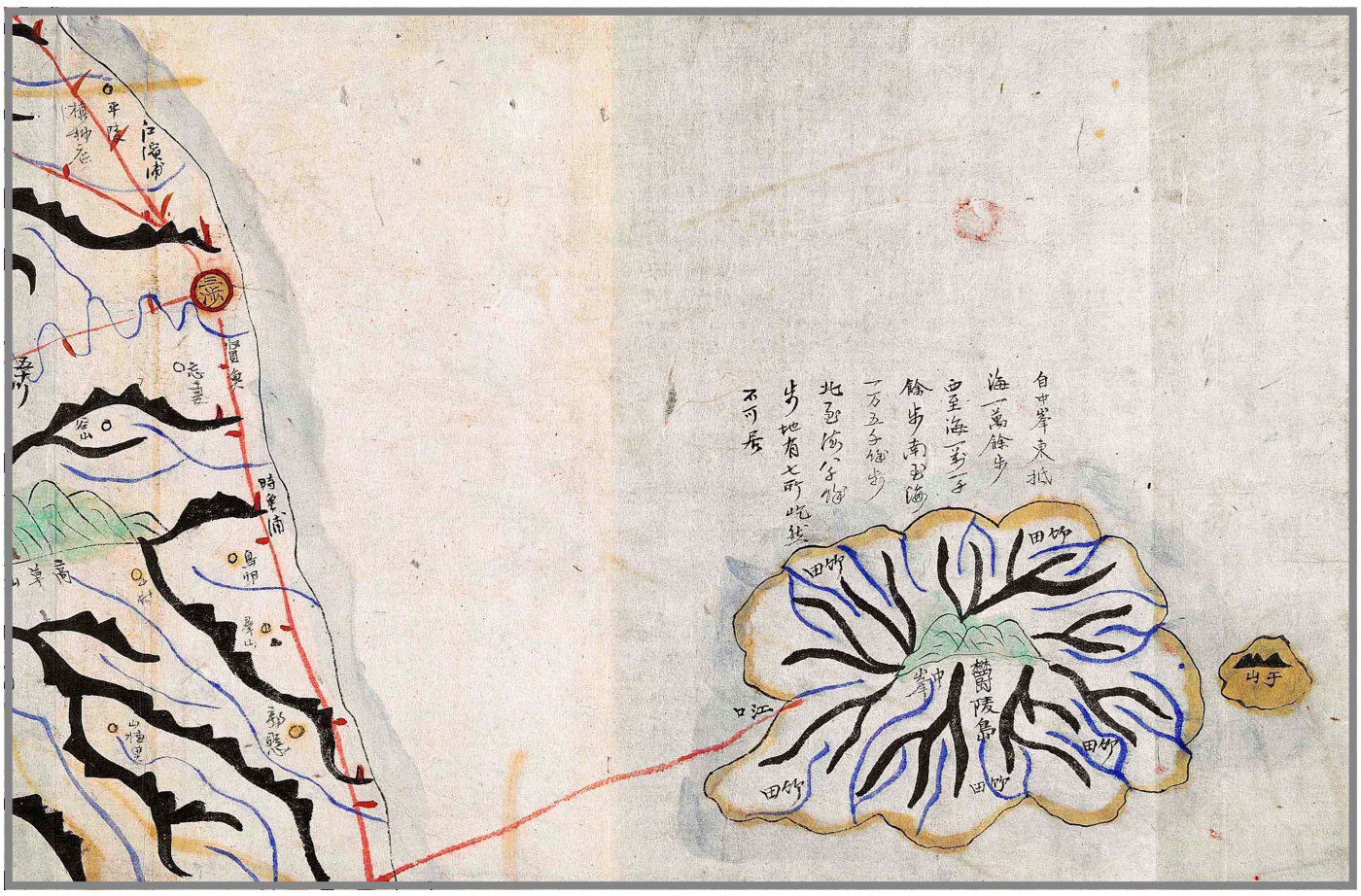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9 필사본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후반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22첩 크기 미상
소장처 영국 국립도서관

김정호의 목판본 『대동여지도』를 후대에 필사한 지도로, 필사 수법은 정교함이 떨어진다. 산줄기를 검은색으로 표현하고 산을 녹색으로 채색하여 표현한 점은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다르다. 도로는 붉은 선으로 그렸는데 10리마다 점을 찍어 표시했다. 울릉도의 모습도 목판본 『대동여지도』에서와 다른데, 울릉도 남쪽에 있던 바위섬들이 전혀 그려져 있지 않다. 대신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를 그려 넣었다. 울릉도 위쪽에는 중봉에서 동서남북 해안까지 이르는 거리를 보수(步數)로 표기했고, 산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어서 사람이 살기 힘들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목판본 『대동여지도』에는 없는 울릉도의 강구(江口)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해로를 붉은 선으로 표시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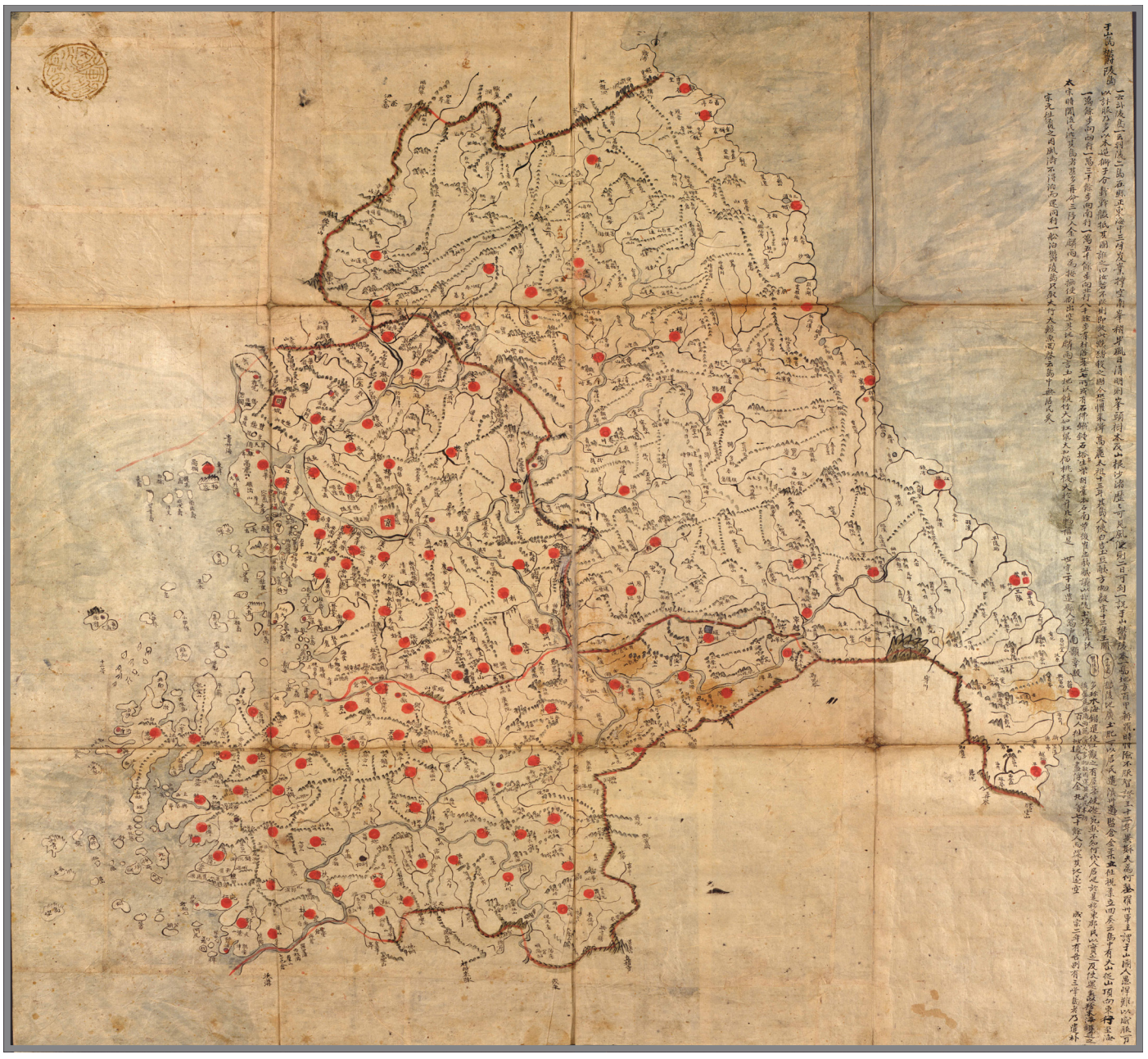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0 『선역도』 내 경기도·충청도·강원도 지도

『鮮域圖』, 京畿道・忠淸道・江原道 地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크기 미상
소장처 미국 의회도서관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가 같이 그려진 지도로, 전체적인 윤곽이나 내용은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과 유사하다. 그러나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임을 알 수 있는 백리척(百里尺)은 그려져 있지 않다. 산계(山系)는 연맥식으로 그렸고 하계(河系)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전반적으로 필사의 정교함은 다소 떨어진다. 역보(驛堡), 봉수(烽燧), 산성, 누정(樓亭), 진도(津渡), 창고, 제언(堤堰), 능원(陵園) 등의 인문적 요소를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정상기의 『동국지도』에는 교통로가 자세하게 그려졌는데 이 지도에는 그려져 있지 않다. 삼척 동쪽 바다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있는데, 울릉도에는 주토굴과 죽전 표시가 없다. 우산도는 울릉도와 비슷한 크기로 그려져 있다. 지도 여백에 우산도와 울릉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수록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강원도 울진현(蔚珍縣)조에 수록된 우산도·울릉도 관련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侄ㄴ可見風便則二日可到一說于山鬱陵本一島地
其島人使白吉土豆敵方物毅宗十三年王聞
本石南草後崔忠獻敵議以武陵土壤膏沃
仆凡物稱是 世宗二年遣縣人萬戶南顥寧數
多珍木海錯遣使往觀之有屋基破磁宛然不
後置為風濤所蕩霞州人多物故因還其居民本朝
百人往捕民盡浮金丸等七十餘人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1 『전세보』 내 조선지도

『傳世寶』, 朝鮮地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15.7×26.3cm
소장처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가 같이 그려진 지도로 전체적인 윤곽이나 내용은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과 유사하나 백리척(百里尺)은 그려져 있지 않다. 산계(山系)는 연맥식으로 그렸고 하계(河系)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필사의 정교함은 다소 떨어진다. 정상기의 『동국지도』에는 교통로가 자세하게 그려졌는데 이 지도에는 그려져 있지 않다. 전국의 군현이 전부 수록되어 있고 병영, 수영 등도 강조하여 표시하였다. 군현명 옆에는 군현의 품계도 기재했다. 삼척 동쪽 바다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울릉도에는 다른 『동국지도』 사본들에서처럼 주토굴과 죽전이 표시되어 있다. 우산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작게 그려졌다. 고성포의 동쪽에도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잘못 그린 오류로 볼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도별 지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2 『동람도』 내 강원도

『東覽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6세기
형태, 크기 목판본, 26×34.6cm
소장처 영남대학교 박물관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부도인 『동람도』에 실려 있는 「강원도」 지도이다. 『동람도』는 지지를 보완하는 부도로 제작되었기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매우 소략하다. 지지에 이미 많은 내용이 지역별로 수록되어 있어 지도에서는 단지 지역의 개략적인 모습만 보여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규격이 작은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지도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도 없었다. 세종 대에 제작된 『세종실록지리지』 같은 이전 시대의 지리지는 국가의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을 파악하려는 목적이 강했기에 군사·행정·경제와 같은 실용적 측면에 비중을 두었다. 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전국적 지배체제 확립 이후 왕권의 위엄과 유교적 지배원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우세하여 시문, 인물, 예속(禮俗), 고적과 같은 항목이 강조되었다. 『동람도』에도 이러한 지지의 특성이 반영되었다. 「강원도」 지도는 강원도 26개 군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린 지도이다. 군현의 진산(鎭山)과 하천 그리고 추지령(楸池嶺), 대관령(大關嶺), 소파령(所坡嶺) 등의 고개 이름도 수록되어 있다. 해안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우산도가 울릉도보다 더 육지에 가깝게 그려졌다. 울릉도와 우산도는 비슷한 크기로 표현되었고, 「팔도총도」에서의 모습과 달리 동서로 길쭉하게 그려져 있다. 지도 상단에는 서울에서 각 군현까지의 일정이 주기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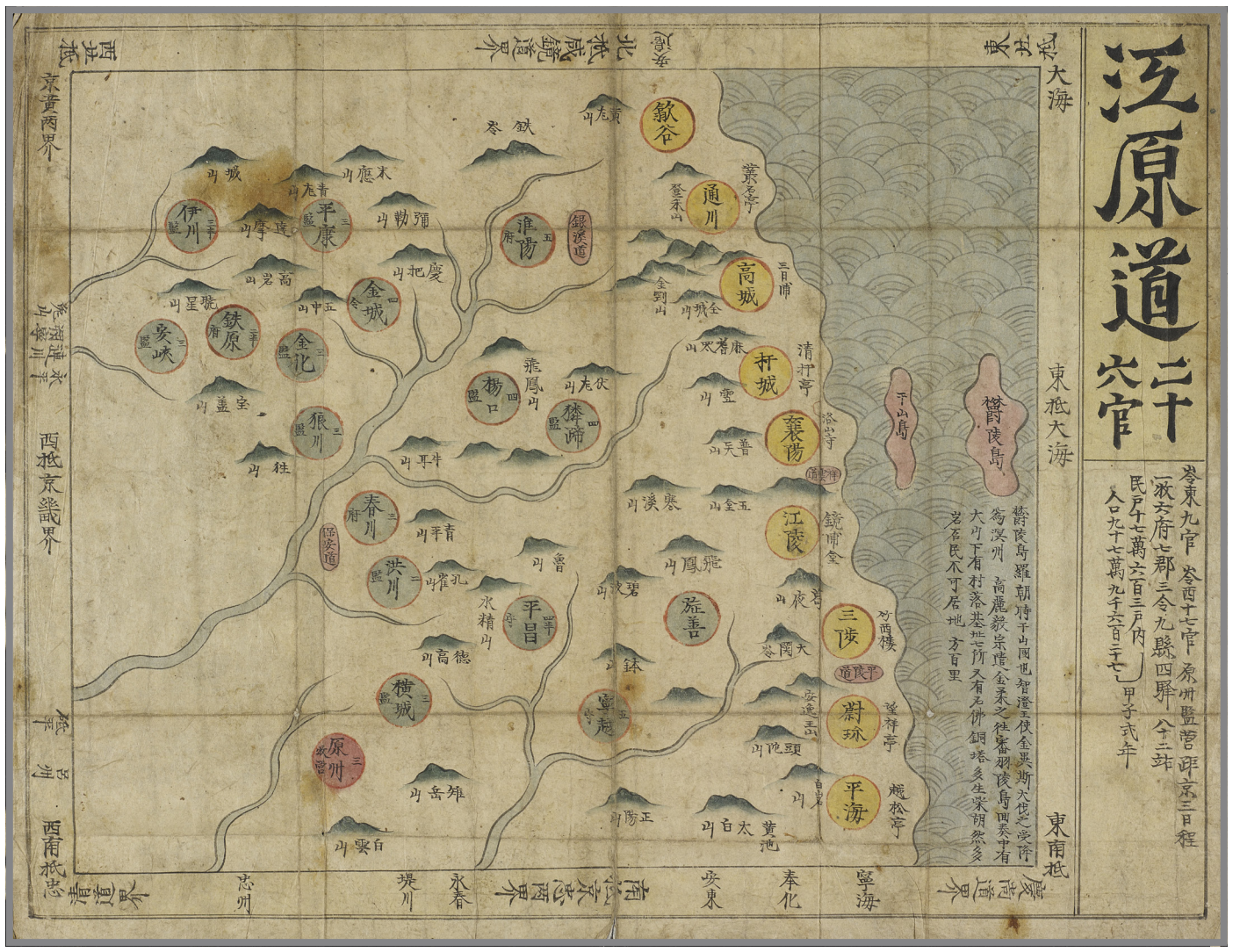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3 『사해지방승개지도』 내 강원도

『四海地方勝槩之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700년 전후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30×39cm
소장처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도서관

필사본 지도첩인 『사해지방승개지도』에 실려 있는 「강원도」 지도이다. 전체적인 윤곽과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부도인 『동람도』의 「강원도」 지도와 유사하다. 제목 아래에는 강원도의 군현 수 26관(官)을 기재했고 영동 지방에 9개, 영서 지방에 17개가 있음을 기재했다. 민호(民戶)는 170,603호이고 인구는 979,627명이라 기재되어 있다. 영동과 영서의 고을을 다른 색채로 표시해 구분하였다. 영서 지방의 군현명 옆에는 서울로부터의 일정이 표시되어 있으나 영동 지방의 군현에는 빠져 있다. 역원은 찰방역 위주로 표시되었고 교통로는 그려져 있지 않다. 동해안을 따라 늘어선 관동팔경(關東八景)도 해당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 동해안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우산도가 울릉도 서쪽에 그려졌다. 울릉도 아래에는 울릉도에 대한 연혁이 기재되어 있으며 면적은 방백리(方百里)로 표시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東抵大海

鬱陵島 羅朝時于山國也智證王使金異斯大伐之受降爲溟州 高麗毅宗遣金柔之往審羽陵島四麥中有大山下有村落基址七所又有石佛銅塔多生榮胡然多石石民不可居地方百里

于山島

東南抵

寧海 奉化 安東

通川 登永山 兼名亭

高城 三日浦 金剛山 全城山

杏城 麻著只山 清村亭

襄陽 雪山 洛山寺 道雲祥

江陵 普天山 鏡浦臺 五金山 寒溪

三陟 飛鳳山 蒼夜山 竹西樓 大關嶺 平陵道

蔚珍 安逸王山 望祥亭 頭陀山

平海 越松亭 白鬼山 黃池 太白山 正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4 『지도』 내 강원도

『地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중엽
형태, 크기 목판본, 28.8×35.5cm
소장처 영남대학교 박물관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목판본 지도책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전체적인 양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부도인 『동람도』를 따르고 있다. 주요 하천과 각 군현의 진산(鎭山)을 소략하게 그려 넣었다. 해당 군현명 옆에 군현의 품계를 나타내는 수령의 관직과 서울로부터의 일정을 병기하였다. 각 군현을 연결하는 교통로는 그려져 있지 않다. 도내의 주요 역도(驛道), 해안가·변경의 진보(鎭堡)가 직사각형 내부에 표기된 점과 바다의 물결무늬인 수파묘(水波描)가 없는 점 등은 『동람도』와는 다른 특징으로, 좀 더 상세한 지도를 만들고자 하였던 제작 의도를 살필 수 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동람도』에서와는 달리 우산도가 울릉도의 남쪽에 그려져 있고 지명 표기도 '자산도(子山島)'로 되어 있다. 이는 여러 번의 전사 과정을 겪으며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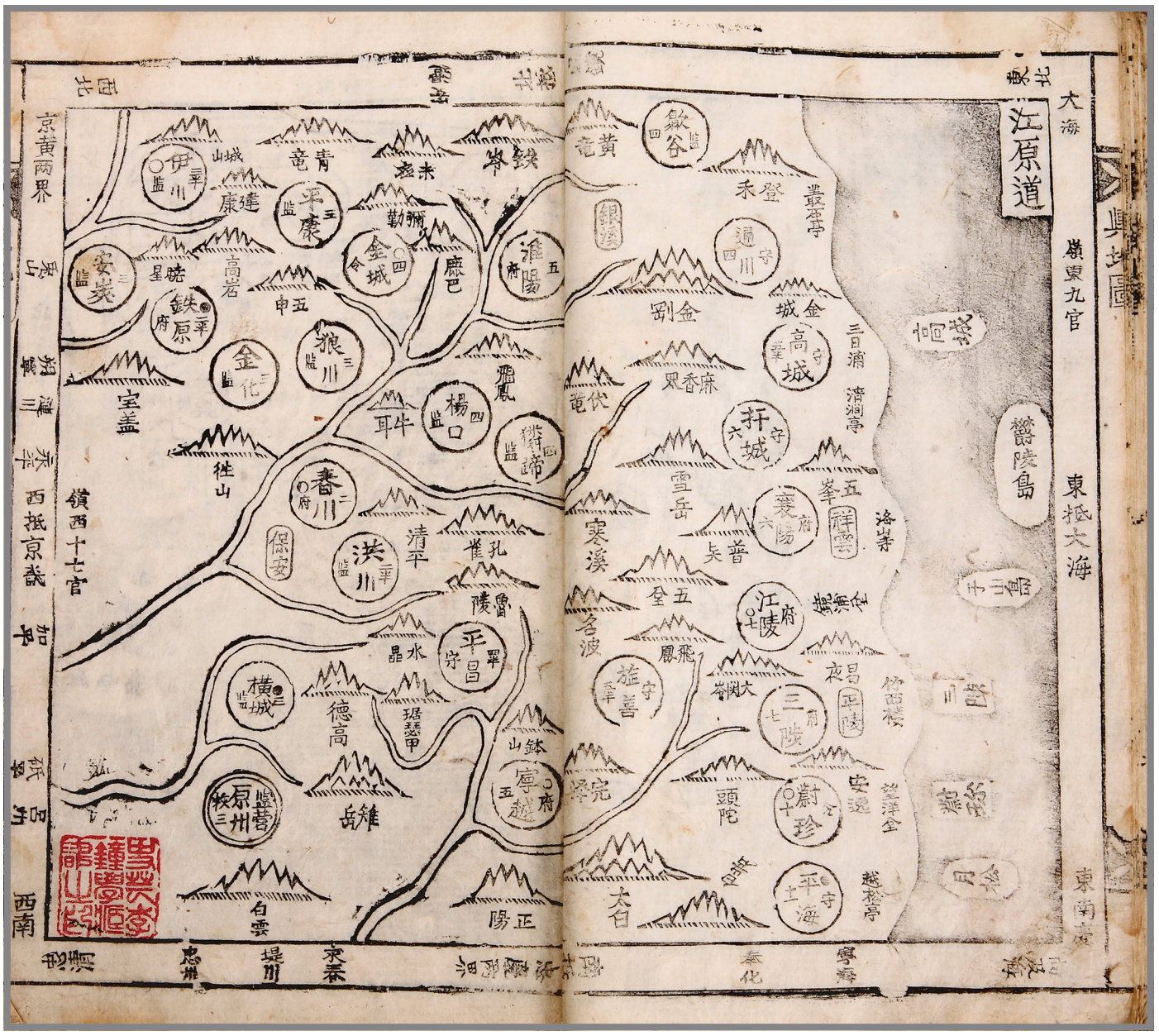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5 『감여전도』 내 강원도

『堪輿全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형태, 크기 목판본, 30.3×35cm
소장처 독도박물관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목판본 지도책 『감여전도』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전체적인 양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부도인 『동람도』를 따르고 있다. 주요 하천과 각 군현의 진산(鎭山)을 소략하게 그려 넣었다. 해당 군현명 옆에 군현의 품계를 나타내는 수령의 관직과 서울로부터의 일정을 병기하였다. 각 군현을 연결하는 교통로는 그려져 있지 않다. 감영 소재지인 원주(原州)는 이중의 원으로 강조했다. 도내의 주요 역도(驛道), 해안가·변경의 진보(鎭堡)가 직사각형 내부에 표기된 점과 수파묘가 없는 점 등은 『동람도』와는 다른 특징으로, 좀 더 상세한 지도를 만들고자 하였던 의도를 살필 수 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동람도』에서와는 달리 우산도가 울릉도의 남쪽에 그려져 있으며 울릉도와 달리 동서로 길게 표현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江原道

大海

嶺東九官

東抵大海

鬱陵島

三日浦

清澗亭

洛山寺

五峯

祥雲

襄陽府六

雪岳

寒溪

普矣

五垈

名波

飛鳳

江陵府○七

仙無遷

昌夜

平陵

三陟郡七

竹西樓

大關嶺

旌善郡

完澤

頭陀

安邊

望洋亭

蔚珍郡○十

越松亭

平海郡十

太白

黃竜

歙谷縣四

登禾

叢亭

銀溪

通川郡四

金剛

金城

高城郡

麻香里

伏竜

杆城郡六

雪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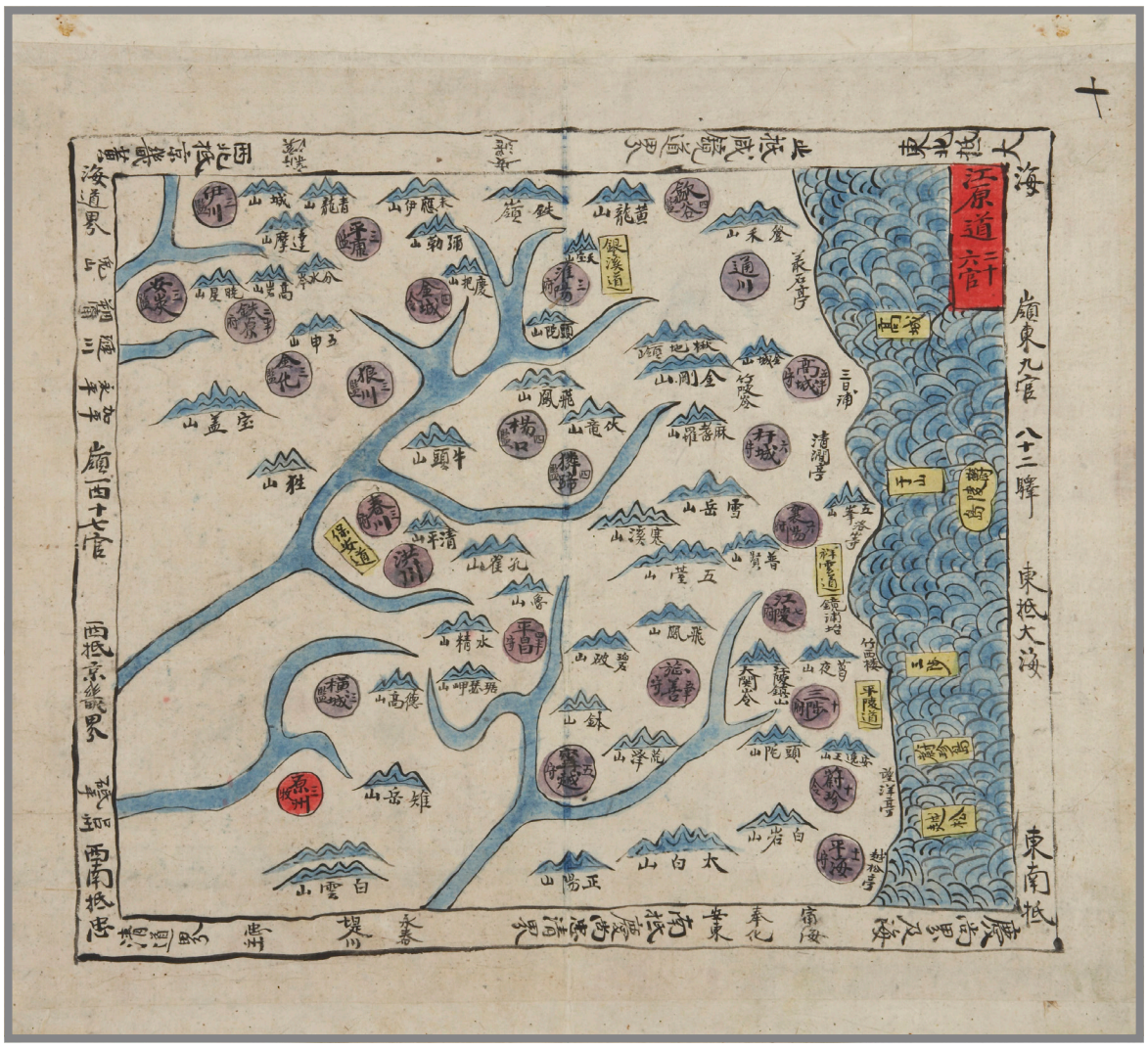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6 『천하지도』 내 강원도

『天下之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30.7×27.7cm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1-5-4-3-4)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필사본 여지도책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전체적인 양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부도인 『동람도』를 따르고 있다. 주요 하천과 각 군현의 진산(鎭山)을 소략하게 그려 넣었다. 해당 군현명 옆에 군현의 품계를 나타내는 수령의 관직과 서울로부터의 일정을 병기하였다. 각 군현을 연결하는 교통로는 그려져 있지 않다. 도내의 주요 역도(驛道), 해안가·변경의 진보(鎭堡)가 직사각형 내부에 표기된 점 등은 『동람도』와는 다른 특징으로, 좀 더 상세한 지도를 만들고자 하였던 제작 의도를 살필 수 있다. 동해에는 『동람도』와 같이 물결무늬를 그려 넣었다. 명승지인 관동팔경도 해당 위치에 기재하였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동람도』에서처럼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졌다. 그러나 우산도를 울릉도와는 달리 사각형으로 표현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7 『해동여지도』 내 강원도

『海東輿地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전반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52.7×57.5cm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한貴古朝61-35)

지도책 『해동여지도』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로 도리표(道里表)가 같이 수록되어 있다. 지도의 전체적인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부도인 『동람도』 계열을 따르고 있으나 다소 차이가 있다. 『동람도』에서는 산지를 독립된 산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 지도에서는 연맥을 강조하였다. 고을의 진산과 더불어 금강산의 모습이 독특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해안과 내륙을 잇는 봉수가 자세히 그려져 있고 군현을 연결하는 도로망도 검은색 선으로 표시되었다. 지도 여백에는 지지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지도를 보충하고 있다. 동해안에는 절경으로 이름난 관동팔경의 지명들이 기재되어 있다. 동해안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강릉 근처에 있는 죽도(竹島)가 더 위쪽으로 배치되었다. 옆에 도리표가 수록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위치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동람도』에서와 달리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그려졌는데, 18세기 이후 새로운 정보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울릉도와 우산도 위에 두 섬과 관련된 기록을 싣고 있는데, 조선 전기 지리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江原道 古濊貊地

里凡一萬二十峯岩嶽骨立峯峯洞府純是白石而乃至石間嶺頂大之最著者太上峯毗盧峯望軍臺洞之最深者万瀑洞百塔洞靈之最名者須彌塔衆香城玉鏡臺寺刹之最著者長安寺楡岾寺摩訶衍庵登毗盧峯四望蒼茫者惟天東極万里之峽万二千峯環圍拱揖朝暮之変煙霞四時之烟霞筆盡難盡

峯峯資質列石白如雪石泉石山嵐巖山辟辟幽深凄冷亭亭嶂嶂

普門庵神興寺食堂泉石之勝山之西南曰寒溪山有万丈大瀑又有

尖小均敵十岩万壑重疊深阻綿亘數百里西聯万山之烟霞東

地極高炎夏仍飛霜冬積堅氷有月精寺上元庵史庫 亭臺

名曰千筒水為漢水正源

数十石柱最立海中皆六面形如削玉者凡四處 亭在海涯臨最石

日浦邊浦外重峯疊嶂合抱而內有

瀑布洞壑清幽松石奇古

峯走入波心為万景基堂

盛其麓麓有鳴沙焉

勝

東抵大海

楸哥陵島本于山國特險不服

新羅遣異斯夫撃降之

自中峯東至海一万餘步西

至海一万三千餘步南至海

岩石民不居

本朝 世宗二十二年遣万五南

顒往搜浦盡俘金充等七

十餘人而還其地遂空

旌善 六百里

平昌 三百七十 三百十 五百里

蔚珍 三百八十 四百八十 六百七十 七百里

金城 二百十 七百五十 六百七十 四百里

歙谷 四百里 二百八十 三百四十 二百里

麟蹄 二百里 九十里 一百三十 一百七十 四百里 三百十 二百里

横城 二百三十 七十里 二百三十 四百六十 三百二十 四百三十 六百六十 五百七十

楊口 一百六十 八十里 三百十 二百三十 一百七十 二百十 四百六十 五百二十

洪川 一百六十 三百九十 三百里 二百五十 二百六十 三百十 五百十 六百十

狼川 三百三十 一百四十 九十里 二百五十 二百六十 三百十 四百十 五百十

伊川 九十里 一百四十 六

平康 五十里

金化 一百

竹島

于山島

鬱陵島

三陟浦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8 『여지고람도보』 내 강원도

『輿地攷覽圖譜』,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형태, 크기 목판본(가채), 24×28cm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한貴古朝61-18)

목판본 지도책 『여지고람도보』에 실린 「강원도」 지도이다. 목판본으로 제작되었으나 붉은색의 도로망과 상하의 주기는 소장자가 필사한 것이다. '강원도'라는 지도 제목 아래에는 강원도 지역의 연혁을 간략하게 기재하였다. 군현명 옆에는 고을의 별칭과 함께 서울로부터의 일정과 품계가 기재되어 있다. 찰방역을 사각형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하였고 동해안의 관동팔경도 해당 위치에 표기하였다. 지도 상단에는 강원도의 인구와 경지 면적, 명소에 대한 소개를 수록했다. 특히 우산도는 삼척의 동쪽에 있고, 울릉도는 평해(平海)의 동쪽에 있으며 6일이 걸려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단에는 역원, 진보, 산성 등의 주기가 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울릉도를 세로로 길게 그리고 우산도는 울릉도의 남쪽에 그렸다. 울릉도의 표기는 '울(鬱)' 자를 이체자인 '울(菀)' 자로 표기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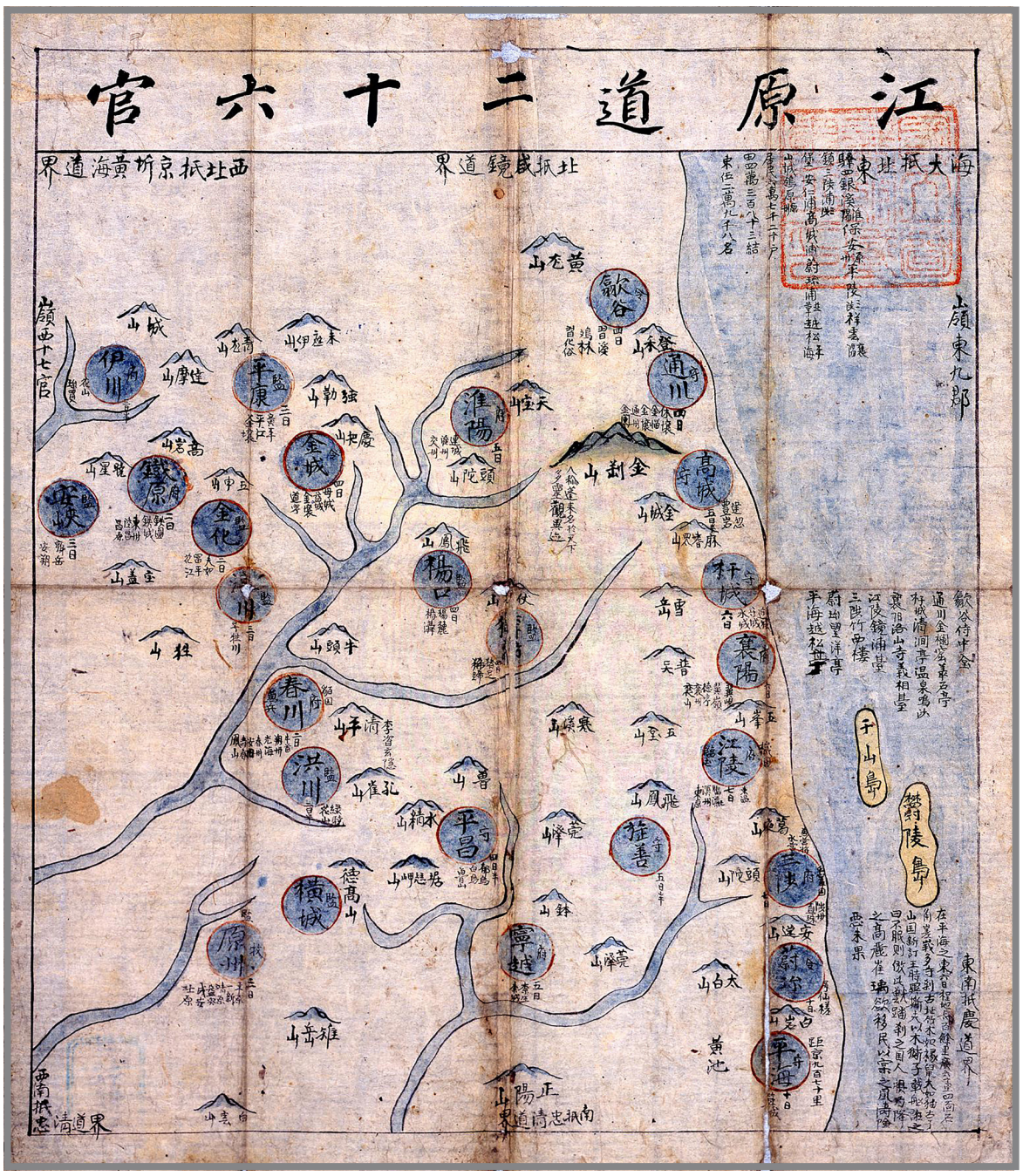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9 『조선지도급일본유구중원』 내 강원도

『朝鮮地圖及日本琉球中原』,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7세기 후반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34.9×30cm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古2702-10-3-2)

필사본 여지도책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부도인 『동람도』의 「강원도」 지도와 유사하다. 산지는 관내 고을의 진산을 위주로 그렸다. 조선 제일의 명산인 금강산을 강조하여 그렸는데, "사람들이 봉래산이라 부르고 신비로운 경관으로 천하에 이름났다"라고 기재했다. 군현명 옆에는 고을의 품계를 표기했고, 고을 이름 아래에는 서울로부터의 일정과 고을의 별칭을 수록했다. 지도 여백에는 강원도의 경지 면적, 인구, 역원, 진보, 산성 등의 자료를 기재했고 관동팔경도 표기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동람도』에서와는 다르게 우산도를 울릉도의 북서쪽에 그려 넣었다. 울릉도 아래에는 섬의 연혁을 기록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다. 울릉도가 평해의 동쪽에 위치하고 6일이 걸려 도착하는 곳이라고 기록한 점은 다른 지지 자료에서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歙谷侍中金
通川金樓宿兼石亭
村城清洞亭温泉鳴沃
襄州治山寺義相臺
江陵鏡浦臺
三陟竹西樓
蔚珍望洋亭
平海越松亭

于山島

鬱陵島

在平海之東六日程地方百餘里廣六里四面石角峯巒多寺刹古址竹木如椽曾大如抱人以木獅子載船誑之曰不服則倣此獸踏殺之国人懼降之高麗崔瑀欲移民以實之風濤險惡未果

東南抵慶道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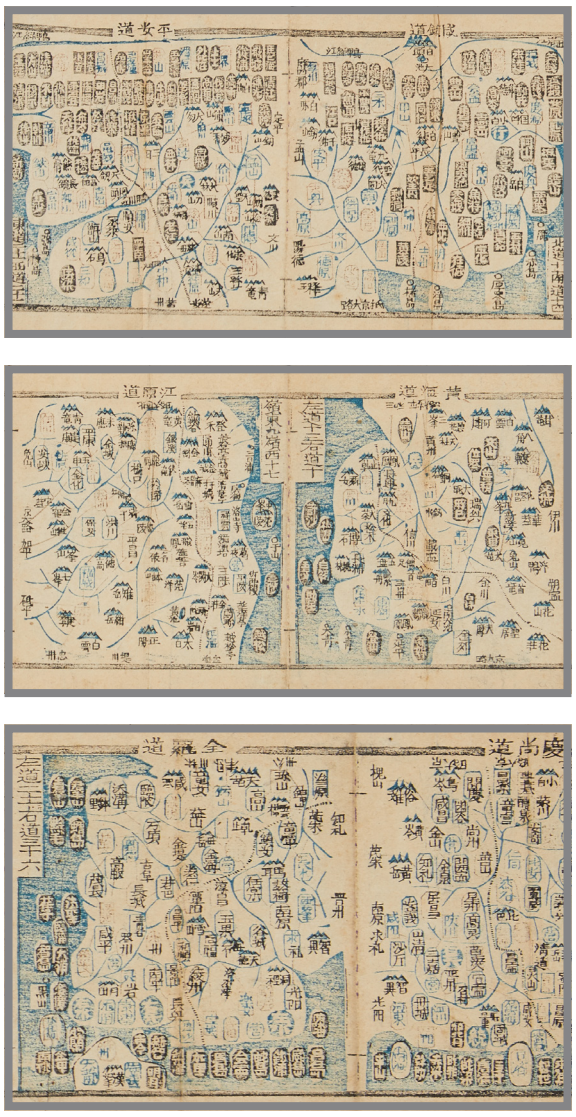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0 『동판수진일용방』 내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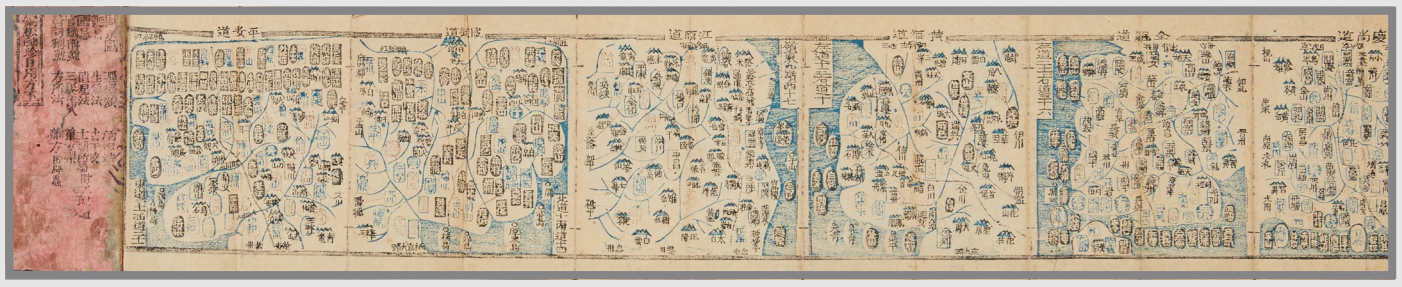
『銅版袖珍日用方』, 江原道

제작자 호고당
발행 연도 1871년
형태, 크기 동판본, 9×3.7cm
소장처 영남대학교 박물관

1871년에 호고당(好古堂)이 동판으로 제작한 것으로, 민간에서 일상생활의 의례 때 사용하는 각종 서식 및 양식, 팔도정리표(八道程里表)를 수록하고 여기에 지도를 합쳐 휴대하기 편리하게 만든 일종의 생활 백과 수첩이다. 수록된 지도는 군현, 산천, 도서명 정도가 수록된 『동람도』 유형의 소략한 도별 지도로 적색과 청색을 가미하여 찍었다. 교통로는 붉은 선으로 표시하였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에서 옷소매에 넣고 다니면서 일상생활에서 참고하였던 책자로, 일상에 필요한 서식과 열성계통도(列聖繼統圖), 국기(國忌), 탄일(誕日), 관직, 칭호(稱號), 질병의 처방, 팔도정리(八道程里) 및 지도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지도는 동판으로 제작되었으나 정교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흑·적·청의 삼색을 사용하여 찍은 점이 특징이다. 목판본에서 동판으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의 지도로 보인다. 이 지도는 조선 후기 정상기, 김정호 등의 지도학적 성과가 반영되지 않았고 『동람도』 유형의 전통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어 매우 소략하다. 그러나 민간에서도 지도가 생활 백과 수첩과 같은 책자에 수록되고 동판으로 제작되어 보다 대중적으로 보급되고 있던 현실을 보여 준다. 이 지도에는 다른 『동람도』 계열의 지도와는 달리 우산도가 울릉도의 남동쪽에 그려져 있고, 울릉도에 '중봉(中峯)'이라는 지명도 표기되어 있어서 18세기 이후 진전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1 『좌해여도』 내 강원도지도

『左海輿圖』, 江原道地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91.4×59.8cm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古2702-16-1)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으로 강원도를 그린 지도이다. 도별도의 체제는 원도인 정상기의 『동국지도』 체제와 같이 경기·충청도를 한 면에 그리고, 함경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리하여 그려,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 계열의 지도임을 알 수 있는 백리척(百里尺)은 그려져 있지 않다. 산계(山系)는 연맥식으로 그렸고 하계(河系)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금강산은 회화식을 가미하여 세밀하게 묘사했고, 해금강의 모습도 보인다. 역보(驛堡), 봉수(烽燧), 산성, 누정(樓亭), 진도(津渡), 창고, 제언(堤堰), 능원(陵園) 등의 인문적 요소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특히 교통로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감영 소재지인 원주는 붉은색으로 강조했고 일부 월경지도 표시되어 있다. 삼척 동쪽 바다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울릉도에는 주토굴과 죽전 표시도 보인다. 우산도는 단지 지명으로만 표시했다. 삼척의 해안가에 표기된 '동해비(東海碑)'는 허목(許穆)이 세운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를 의미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2 『팔도지도』 내 강원도

『八道地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71×71cm
소장처 영남대학교 박물관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으로 강원도를 그린 지도이다. 도별도의 체제는 원도인 정상기의 『동국지도』 체제와 같이 경기·충청도를 한 면에 그리고, 함경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리하여 그려,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 계열의 지도임을 알 수 있는 백리척(百里尺)은 오촌(五寸)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산계(山系)는 연맥식으로 그렸고 하계(河系)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역보(驛堡), 봉수(烽燧), 산성, 누정(樓亭), 진도(津渡), 창고, 제언(堤堰), 능원(陵園) 등의 인문적 요소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특히 교통로는 대로를 굵은 홍색 선으로 그려 위계를 표현하였고 서울로 통하는 해로도 홍색 선으로 표시하였다. 감영, 병영, 수영 소재지는 성첩(城堞)을 그려 강조하였으며, 각 군현의 월경지가 비교적 소상하게 기재된 점도 이채롭다. 이 지도에도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우산도는 지명으로만 표시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3 『팔도지도』 내 강원도

『八道地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99.1×63.5cm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으로 강원도를 그린 지도이다. 도별도의 체제는 원도인 정상기의 『동국지도』 체제와 같이 경기·충청도를 한 면에 그리고, 함경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리하여 그려,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 계열의 지도임을 알 수 있는 백리척(百里尺)은 그려져 있지 않다. 산계(山系)는 연맥식으로 그렸고 하계(河系)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금강산은 회화식을 가미하여 세밀하게 묘사했는데, 정양사(正陽寺)와 유점사(楡岾寺) 등 사찰의 모습도 보인다. 역보(驛堡), 봉수(烽燧), 산성, 누정(樓亭), 진도(津渡), 창고, 제언(堤堰), 능원(陵園) 등의 인문적 요소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교통로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고 군현명 옆에는 서울로부터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다. 감영 소재지인 원주는 붉은색으로 강조했고 일부 월경지도 표시되어 있다. 삼척 동쪽 바다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울릉도에는 주토굴과 죽전 표시도 보인다. 우산도는 울릉도의 동북쪽에 울릉도보다 작은 크기로 그려져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4 『팔도지도』 내 강원도

『八道地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후반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99.2×58.2cm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으로 강원도를 그린 지도이다. 도별도의 체제는 원도인 정상기의 『동국지도』 체제와 같이 경기·충청도를 한 면에 그리고, 함경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리하여 그려,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 계열의 지도임을 알 수 있는 백리척(百里尺)은 그려져 있지 않다. 산계(山系)는 연맥식으로 그렸고 하계(河系)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금강산은 회화식을 가미하여 세밀하게 묘사했는데, 정양사(正陽寺)와 장안사(長安寺) 등 사찰의 모습도 보인다. 역보(驛堡), 봉수(烽燧), 산성, 누정(樓亭), 진도(津渡), 창고, 제언(堤堰), 능원(陵園) 등의 인문적 요소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교통로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고 찰방역은 붉은색 사각형으로 표시했다. 감영 소재지인 원주는 붉은색으로 강조했고 일부 월경지도 표시되어 있다. 지도 하단에는 각 고을의 인구와 창고, 면 수 등을 수록했다. 삼척 동쪽 바다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울릉도에는 주토굴과 죽전 표시도 보인다. 우산도는 울릉도의 동북쪽에 울릉도보다 작은 크기로 그려져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5 『여지도』 내 강원도

『輿地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74.5×59.6cm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으로 강원도를 그린 지도이다. 도별도의 체제는 원도인 정상기의 『동국지도』 체제와 같이 경기·충청도를 한 면에 그리고, 함경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리하여 그려,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 계열의 지도임을 알 수 있는 백리척(百里尺)은 그려져 있지 않다. 산계(山系)는 연맥식으로 그렸고 하계(河系)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금강산은 회화식을 가미하여 세밀하게 묘사했는데, 정양사(正陽寺)와 유점사(楡岾寺) 등 사찰의 모습도 보인다. 오대산 월정사에는 사고(史庫)도 나타나 있다. 역보(驛堡), 봉수(烽燧), 산성, 누정(樓亭), 진도(津渡), 창고, 제언(堤堰), 능원(陵園) 등의 인문적 요소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교통로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고 찰방역은 붉은색 사각형으로 표시했다. 감영 소재지인 원주는 붉은색으로 강조했고 일부 월경지도 표시되어 있다. 해안에는 촛불 형태의 봉수도 자세히 그려져 있다. 삼척 동쪽 바다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졌는데, 우산도는 '간산도(杆山島)'로 표기되었다. 울릉도 아래에는 "울진에서 순풍을 얻으면 2일 만에 도착한다"라는 주기가 수록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6 『여지도』 내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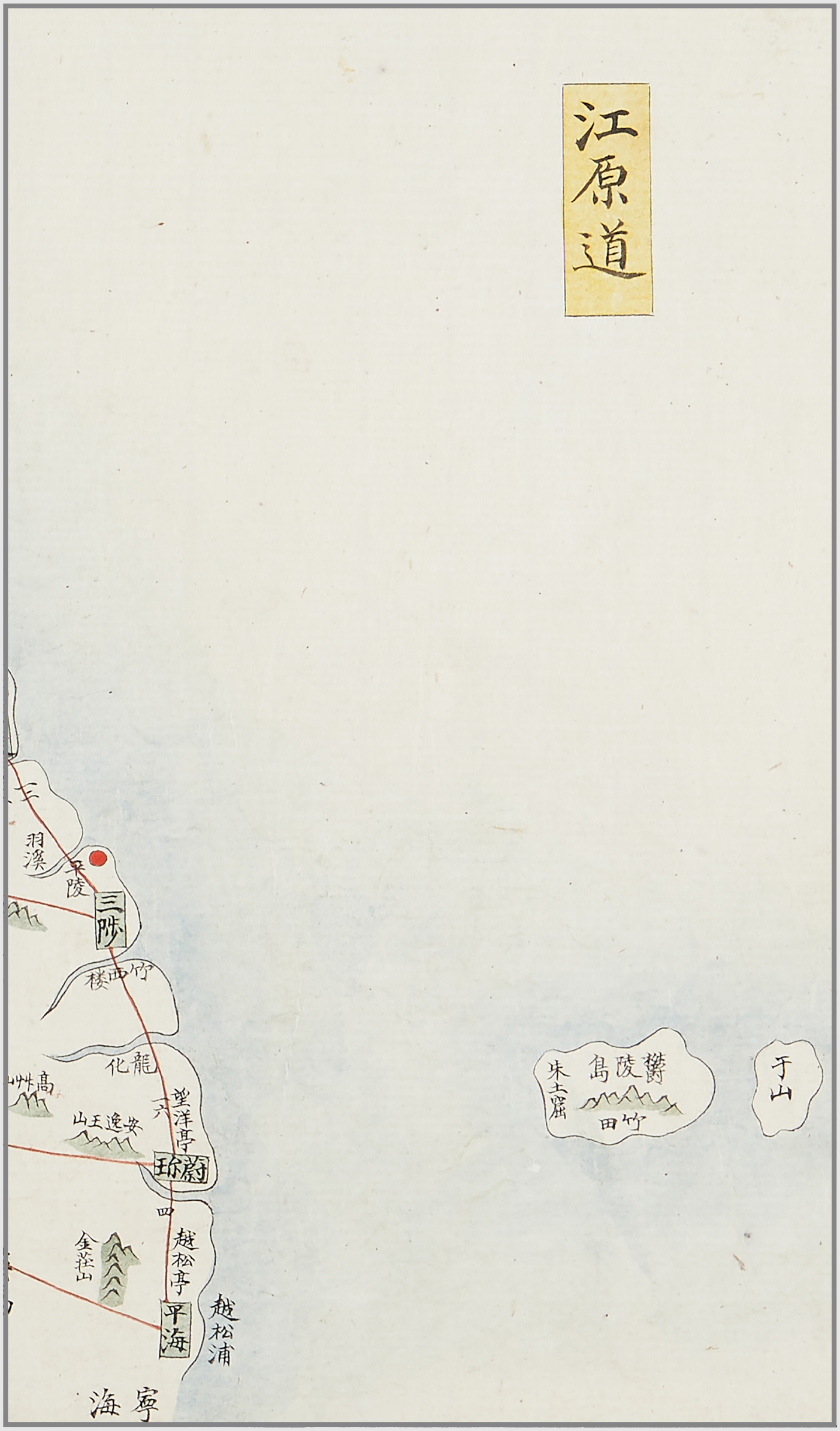
『輿地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전반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33.6×43.6cm
소장처 영남대학교 박물관

천하도, 중국도 및 북경도, 중국 14성도, 조선 전도, 팔도분도, 일본 지도, 유구 지도가 수록된 동아시아 일대의 채색 필사본 지도책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이 지도책의 제작 시기는 조선의 팔도분도 가운데 1800년에 개칭된 충청도의 노성(魯城)과 함경도의 이원(利原)이 표기되어 있고 1822년에 설치된 함경도의 후주(厚州)가 없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팔도분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마찬가지로 경기와 충청을 합쳐 그렸으나 함경도는 북도와 남도로 분리하지 않고 한 장에 그렸다. 원도를 축소하여 그렸기 때문에 산계는 연맥식이 아닌 독립적인 산으로 그렸다. 반면 하계망은 상대적으로 자세히 강조되었다. 무엇보다 이 도별 지도의 특징은 육로가 붉은 선으로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 군현 간의 거리도 도로선상에 표기되어 도로 지도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는 것이다. 거리는 십 단위를 뺀 숫자로 기록하였는데, 예를 들면 30리를 '三'으로 표시하였다.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는 축척인 백리척을 표시함으로써 거리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 지도에서는 축척 표시 대신 숫자로 거리를 기록한 것이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과 동일하게 그려져 있으며, 울릉도에는 주토굴, 죽전 등이 기재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7 『해동총도』 내 강원도

『海東總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중반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42.5×32.5cm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1-42-4-1)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부도인 『동람도』의 「강원도」 지도와 같은 유형의 필사본 지도이다. 산지를 진산 위주로 독립적으로 표현한 점은 『동람도』와 동일하다.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黃池)를 황색으로 채색하여 표현했다. 『동람도』와 다르게 하천의 명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교통로는 붉은 선으로 그려 넣었으며 찰방역은 사각형으로 표시했다. 감영 소재지인 원주는 붉은색으로 채색하여 강조했다. 관동팔경도 해당 위치에 표시하였고 총석정(叢石亭)은 해변에 회화식으로 그려 표현했다. 동해안에 분포한 석호(潟湖)들도 자세하게 그려 넣었다. 고성포(高城浦)와 삼일포(三日浦) 등의 포구를 마치 섬처럼 표현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다른 지도에서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울릉도를 동쪽에 길게 그리고, 우산도는 울릉도의 서쪽 안쪽으로 그려 마치 모자 관계처럼 표현한 점이 이채롭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江原本濊貊地為高句麗新羅所有至高麗為朔方道又為東州道又為交州道

江陵本以濊國都至漢武為臨屯郡

三陟本以悉直國降于新羅

春川本貊國降于新羅

鐵原本高句麗地後弓裔自私岳来都國號泰封

柳西厓曰江原道原州則與忠州為犄角輔車之勢淮陽則當北路內與揚州相倚外方鉄關江陵則合海邊亘備禦東海

芝峯曰楓岳俗号皆骨僧謂之金剛亦名涅槃亦曰衆香城華嚴經云東北海中有金剛山一萬二千曇無竭菩薩國温水惟伊川葛山水最重為第一云


江原道
兼君
西北京黃界
東大海
西京界
西南海
東南海
歙谷
通川
高城
杆城
襄陽
楊口
伊川
安峽
平康
金城
金化
鐵原
狼川
春川
洪川
横城
原州
淮陽
麟蹄
祥雲
平昌
寧越
旌善
三陟
蔚珍
平海
金剛山
太白山
會稽山
雪嶽山
五臺山
楓岳山
鏡浦湖
青草湖
淸澗亭
海松亭
叅波亭
竹西樓
望洋亭
三陟浦
高城浦
平海浦
干山島
池蕉
黃龍山
銀溪
道溝
昌道
菩提津
西江
川南
江陰
江錦
川勒
溪寒
川保黃
川銅
川南
川前
川白
川平清
川雲白
川紅石
川五公
川加平
川碧雲
川王逸安
山廣福
山華法
山烏鵲
山水分
山林竹
山慶杷
山申五
山高岩
山美宅
山星啓
山豊田
山頭牛
山雀乳
山馬
山破帽
山峙松
山岳華
山岳雄
山麻天
山龍伏
山岳雪
山尾罷
山白
山岩白
山銅
山錦峽
山玉逸安
山缸石
山金剛
山寶天
山禾登
山石亭
山三日浦
山四仙亭
山口浦
山呑月
山卯湖
山麻姑
山鳳凰
山仙棲
山蓬萊
山副峯
山翠雲樓
山松浦亭
山竹西樓
山望洋亭
山海松浦
山干島
山百里
山鏡湖
山智湖
山鳴珍
山萬景臺
山仙遊潭
山鏡浦
山鏡湖
山仙遊潭
山鏡浦
山仙遊潭
山鏡浦
山仙遊潭
山鏡浦

58 『여지도』 내 강원도

『輿地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33×33cm
소장처 미국 의회도서관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부도인 『동람도』 유형의 필사본 「강원도」 지도이다. 『동람도』에서는 산지를 진산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표현했으나, 이 지도에서는 산봉우리를 연결하여 전통적인 연맥식 방식으로 표현했다. 하계망은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까지 상세하게 그려 넣었다. 『동람도』와 달리 교통로를 그리고 서울로부터의 거리도 표시했다. 역원은 찰방역을 노란색으로 표현했다. 감영 소재지인 원주를 강조하여 표현했고, 동해안의 명승지인 관동팔경도 해당 위치에 표시했다. 지도 여백에는 원장부에 기재된 경지 면적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지 면적을 구분해서 기재했다. 동해안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울릉도를 좀 더 크게 그리고 산의 형태를 강조했다. 우산도는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졌고, 봉우리를 연결하여 산지를 표현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9 『여지도』 내 강원도

『輿地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63.5×99.1cm
소장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필사본 지도책 『여지도』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전체적인 지도의 윤곽과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부도인 『동람도』를 따르고 있다. 산지는 고을의 진산을 위주로 독립적으로 표현했다. 군현명 옆에는 고을의 품계와 서울로부터의 일정을 기재했다. 역원은 찰방역만을 사각형 안에 표시하였고, 동해안의 명승지인 관동팔경도 해당 위치에 표시했다. 울릉도와 우산도도 그려져 있는데, 『동람도』에서와는 달리 우산도가 울릉도의 남쪽에 그려져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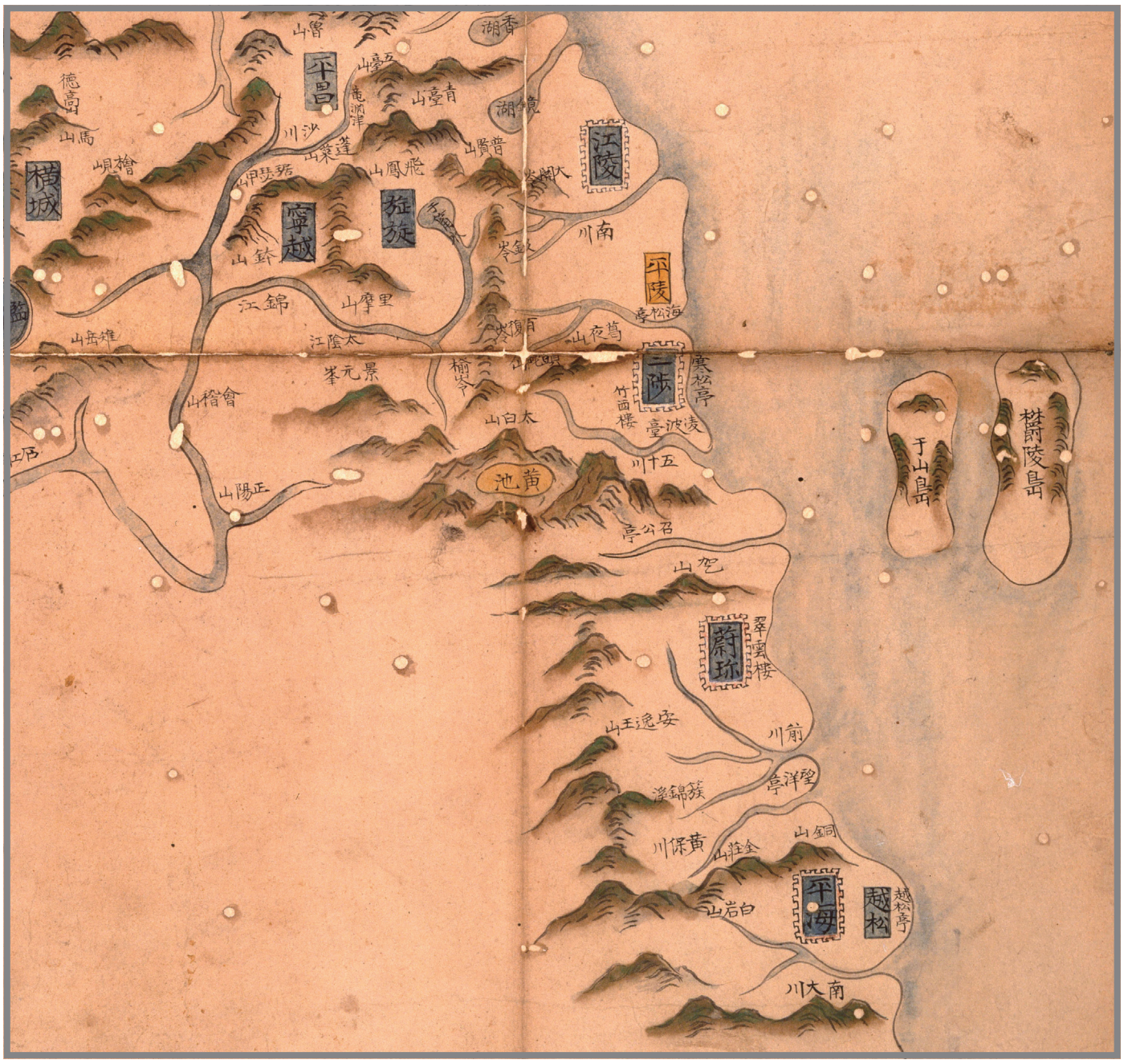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0 『지도』 내 강원도

『地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66.6×45.3cm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필사본 지도첩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전체적인 지도의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부도인 『동람도』보다는 상세하고 정상기의 『동국지도』보다는 소략한 느낌을 준다. 산지는 고을의 진산 이외에도 여러 산을 그리고 고개도 자세하게 표현했다. 특히 『동람도』와 달리 산을 연결하여 산줄기 형태로 표현했다. 명산인 금강산은 회화식을 가미하여 봉우리를 아름답게 표현했다. 하계망은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까지 상세하게 그려 넣었다. 도로망은 그려져 있지 않고 찰방역만 노란색으로 표시했다. 감영 소재지인 원주를 강조하였고 읍성이 있는 군현은 성가퀴를 둘러 표현했다. 관동팔경도 해당 위치에 표시했고 산성의 모습도 보인다. 강릉의 경호(鏡湖)를 비롯하여 해안가의 석호도 그려져 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있는데, 우산도를 울릉도의 서쪽에 울릉도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그려 넣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遼安
朴山
鐵嶺
黃龍山
嶺谷
傅串峯
峭壁亭
嶺館義
通川
淮陽
和川
嶺池楸
太寶山
嶺
山禾登
防墻峭
山伯貢
嶺水分
山龍青
城山
法華山
山赤白
伊川
山林竹
古城津
川南
菩堤津
新安
山犯愛
金化
吾山
昌道
通浦
安峽
平康
山申五
真木
生昌
山岩高
峴烏
晩星山
山蓋寶
鐵原
山星啓
狼川
豊田
江津
日雲山
山華岳
安保
席破嶺
山岳三
春川
大龍山
孔雀山
德崗
山馬
石花山
楸城
南川
原州
山岳雉
松峙
江路
山檜會
山陽正
楊口
曲澤
山配頭
山竜伏
川菊弥
麟蹄
庸峙
茶城
天柱山
時弥
山竜伏
真空岑
太谷石
承香
驪山
高城
江南
湖鏡
釣湖
川岳巨
山麻天
炭嶺
山
山
山

61 『지도』 내 강원도

『地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33×39.2cm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필사본 여지도책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전체적인 양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부도인 『동람도』를 따르고 있다. 주요 하천과 각 군현의 진산을 소략하게 그려 넣었다. 『동람도』와 달리 교통로가 자세하게 그려졌는데, 군현명 옆에는 서울로부터의 거리가 표기되었고 군현 간 거리도 도로망 위에 표시되어 있다. 지도에는 여러 번의 필사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오류도 보이는데 동해안의 진보와 포구에 해당하는 울진, 월송 등이 섬으로 표시되어 있다. 명승지인 관동팔경도 해당 위치에 기재하였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동람도』에서와 달리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남쪽에 그려졌다. 울릉도의 크기가 훨씬 크고 여러 개의 산봉우리도 표현되어 있다. 우산도는 상대적으로 작게 그려져 부속 도서의 느낌을 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2 『지나조선고지도』 내 울진·평해 지도

『支那朝鮮古地圖』, 蔚珍·平海 地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7세기 후반
형태, 크기 필사본, 41.8×33.2cm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古朝61-58)

『지나조선고지도』는 숙종 연간의 지리학자인 정경흠(鄭慶欽)이 제작한 『황여고실(皇輿攷實)』과 『동여고실(東輿攷實)』 사본으로 추정된다. 지도에 표시된 사항은 『읍지(邑誌)』 내 고적(古蹟)조에 표시된 항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사찰 분포가 상세하다. 역사 부도(附圖)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최소한 조선 전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지도이기도 하다. 이 지도와 같은 사본이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에 『동여고실』이라는 제목으로 소장되어 있다. 지도에는 교통로가 그려져 있지 않으나 원으로 역을 표시했다. 고려 시대 군현의 명칭과 더불어 산성의 모습도 보인다. 울릉도가 그려져 있고 그 서남쪽에 우산도 대신 '무릉도(武陵島)'가 그려져 있어 『동람도』 계통의 표기와 다르다. 그러나 무릉도 옆에 '일운우산(一云于山)'이라 하여 '우산도'에 해당하는 섬임을 명시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3 『동여비고』 내 울진·평해 지도

『東輿備考』, 蔚珍・平海 地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7세기 후반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41.8×33.2cm
소장처 개인(장윤석)

『동여비고』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기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필사본 전국 지도로, 숙종 연간의 지리학자인 정경흠의 『동여고실』 사본으로 추정된다. 지도에 표시된 사항은 『읍지(邑誌)』 내 고적(古蹟)조에 표시된 항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사찰 분포가 상세하다. 역사 부도(附圖)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최소한 조선 전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지도이기도 하다. 이 지도와 똑같은 사본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조선강역총도』라는 명칭으로 소장되어 있다. 지도에는 교통로가 그려져 있지 않으나 노란색으로 역을 표시했다. 고려 시대 군현의 명칭과 더불어 산성의 모습도 보인다. 지도에는 울릉도가 그려져 있고 그 서남쪽에 우산도 대신 '무릉도(武陵島)'가 그려져 있어 『동람도』 계통의 표기와 다르다. 그러나 무릉도 옆에 '일운우산(一云于山)'이라 하여 '우산도'에 해당하는 섬임을 명시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4 『대조선지도』 내 강원도

『大朝鮮地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29×32cm
소장처 미국 의회도서관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필사본 여지도책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전체적인 양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부도인 『동람도』를 따르고 있다. 주요 하천과 각 군현의 진산을 소략하게 그려 넣었다. 해당 군현명 아래에 군현의 품계를 표시했다. 각 군현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상세하게 그려진 점이 『동람도』와 다르다. 또한 도내의 주요 역도(驛道), 해안가와 변경의 진보(鎭堡)가 직사각형 내부에 표기된 점도 『동람도』와는 다른 특징으로, 좀 더 상세한 지도를 만들고자 하였던 의도를 살필 수 있다. 오대산에는 다른 지도에는 없는 사고(史庫)의 표시도 보인다. 명승지인 관동팔경도 해당 위치에 표시하였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동람도』에서처럼 우산도가 울릉도의 남쪽에 그려졌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5 『천하지도』 내 강원도

『天下地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795년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30×33cm
소장처 미국 의회도서관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필사본 여지도책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전체적인 양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부도인 『동람도』를 따르고 있다. 주요 하천과 각 군현의 진산을 소략하게 그려 넣었다. 해당 군현명 옆에 군현의 품계를 나타내는 수령의 관직과 서울로부터의 일정을 병기하였다. 각 군현을 연결하는 교통로는 그려져 있지 않다. 도내의 주요 역도(驛道), 해안가와 변경의 진보(鎭堡)가 직사각형 내부에 표기된 점 등은 『동람도』와는 다른 특징으로, 좀 더 상세한 지도를 만들고자 하였던 의도를 살필 수 있다. 명승지인 관동팔경도 해당 위치에 기재하였는데, 다른 지도에서와 달리 건물의 모습을 그려 표현했다.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黃池)는 태백산에 노란색으로 표현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남북으로 기다란 형태로 그려져 있고, 『동람도』에서처럼 우산도가 울릉도의 남쪽에 그려졌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6 『해동전도』 내 강원도

『海東全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43×31.2cm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1-46)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 사본으로 강원도를 그린 지도이다. 도별도의 체제는 원도인 정상기의 『동국지도』 체제와 같이 경기·충청도를 한 면에 그리고, 함경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리하여 그려,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 계열의 지도임을 알 수 있는 백리척(百里尺)은 그려져 있지 않다. 산계(山系)는 연맥식으로 그렸고 하계(河系)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역보(驛堡), 봉수(烽燧), 산성, 누정(樓亭), 진도(津渡), 창고, 제언(堤堰), 능원(陵園) 등의 인문적 요소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특히 교통로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동해안의 삼척포와 월성포는 섬의 형태로 그려졌는데, 이는 『동람도』 계열의 지도에서 보이는 모습이다. 삼척 동쪽 바다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고, 울릉도에는 주토굴과 죽전 표시도 보인다. 우산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작은 크기로 그려졌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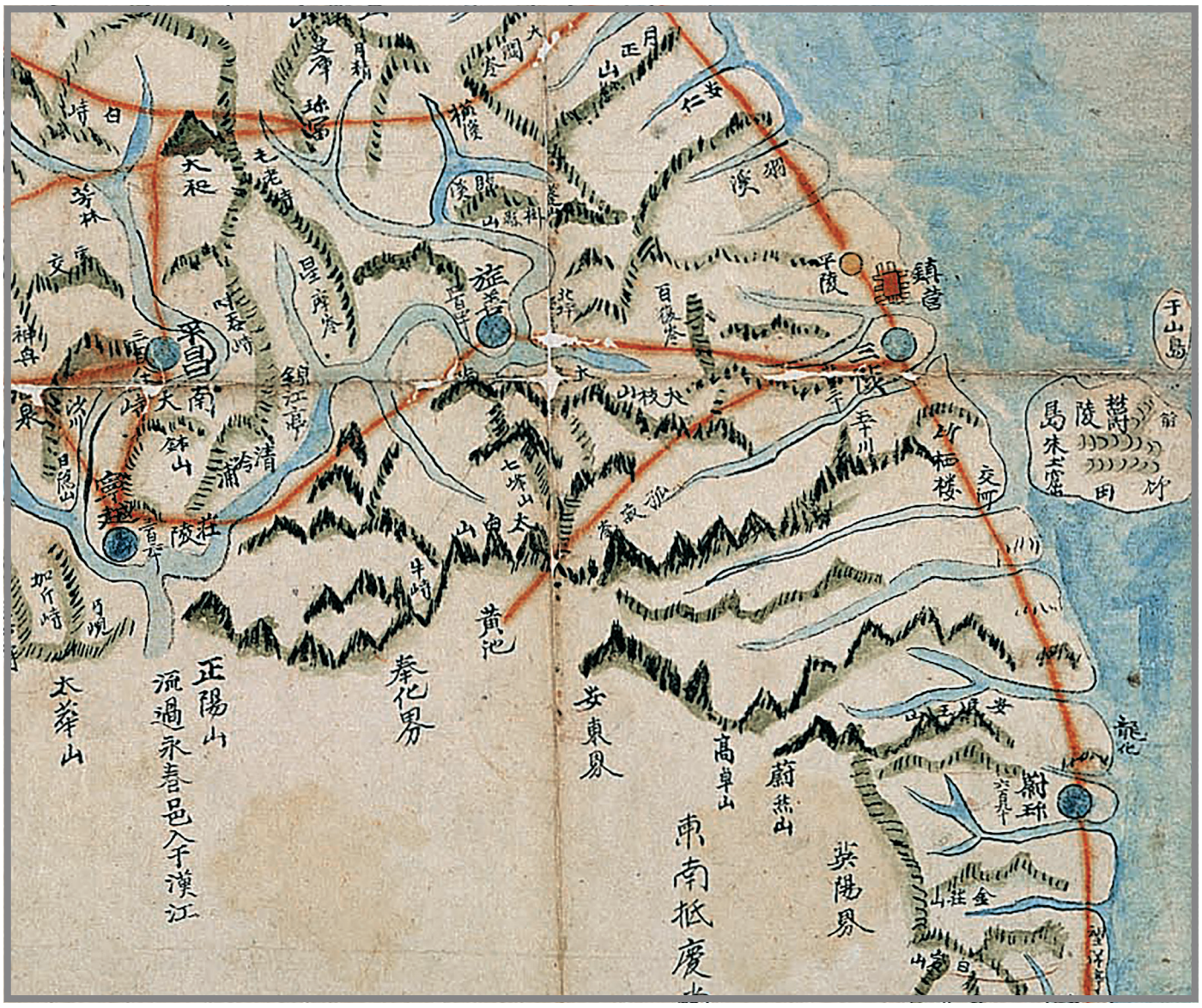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7 『팔도지도』 내 강원도

『八道地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69.3×58.1cm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古2702-9-46)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 사본으로 강원도를 그린 지도이다. 도별도의 체제는 원도인 정상기의 『동국지도』 체제와 같이 경기·충청도를 한 면에 그리고, 함경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리하여 그려,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 계열의 지도임을 알 수 있는 백리척(百里尺)은 그려져 있지 않다. 산계(山系)는 연맥식으로 그렸고 하계(河系)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금강산은 회화식을 가미하여 세밀하게 묘사했는데, 정양사와 장안사 등 사찰의 모습도 보인다. 통천의 총석정과 고성의 해금강도 회화식을 가미하여 표현했다. 역보(驛堡), 봉수(烽燧), 산성, 누정(樓亭), 진도(津渡), 창고(倉庫), 제언, 능원(陵園) 등의 인문적 요소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특히 교통로가 『동람도』와 달리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삼척 동쪽 바다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고, 울릉도에는 주토굴과 죽전 표시도 보인다. 우산도는 울릉도의 동북쪽에 울릉도보다 작은 크기로 그려졌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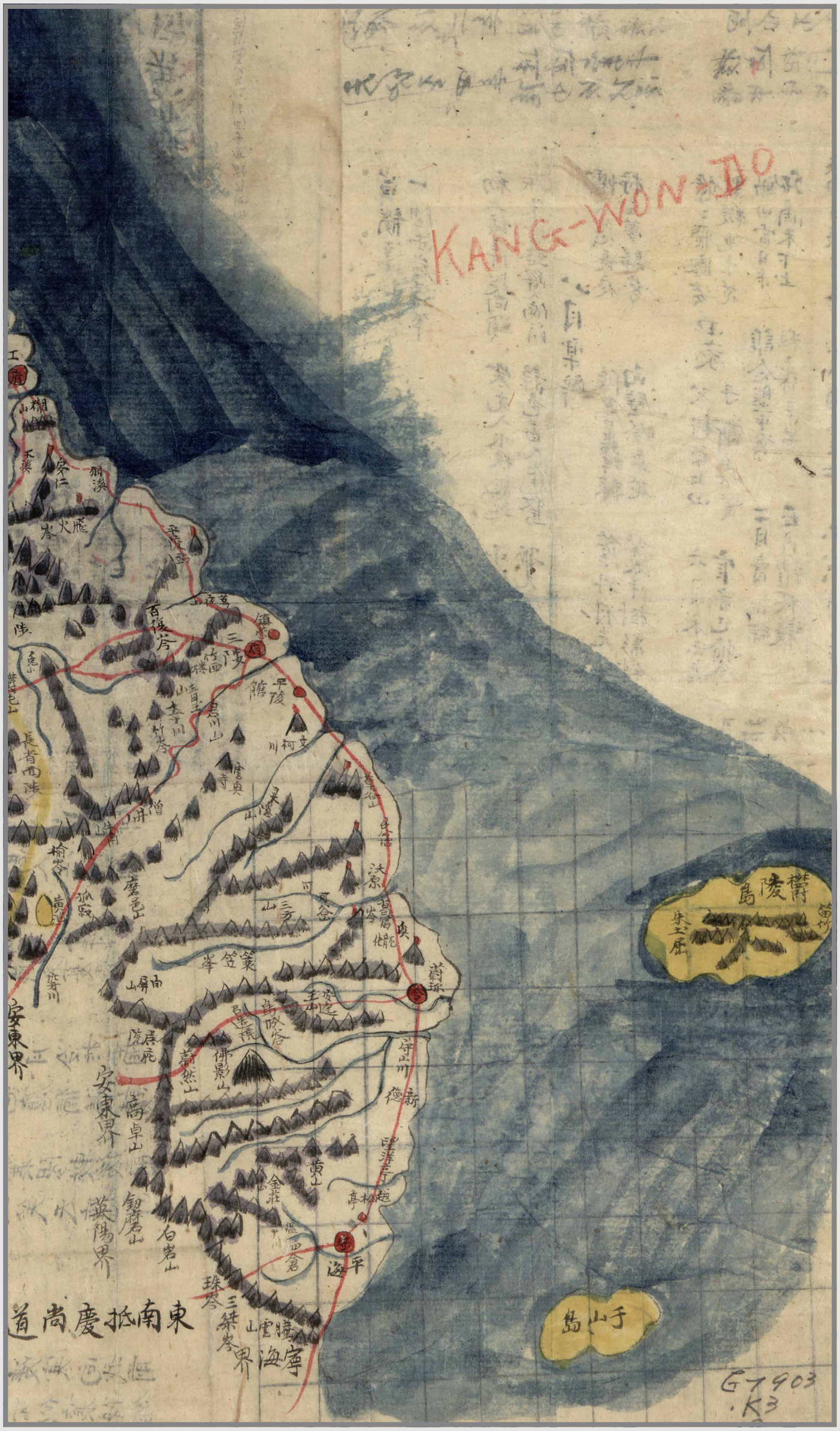
68 강원도지도
江原道地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81×78cm
소장처 미국 의회도서관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 사본으로 강원도를 그린 지도이다. 도별도의 체제는 원도인 정상기의 『동국지도』 체제와 같이 경기·충청도를 한 면에 그리고, 함경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리하여 그려,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 계열의 지도임을 알 수 있는 백리척(百里尺)은 그려져 있지 않다. 산계(山系)는 연맥식으로 그렸고 하계(河系)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역보(驛堡), 봉수(烽燧), 산성, 누정(樓亭), 진도(津渡), 창고(倉庫), 제언, 능원(陵園) 등의 인문적 요소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특히 교통로가 『동람도』와 달리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해안의 봉수는 산봉우리에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삼척 동쪽 바다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고, 울릉도에는 주토굴과 죽전 표시도 보인다. 우산도는 울릉도의 남쪽에 울릉도보다 작은 크기로 그려졌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9 『여지도』 내 영동

『輿地圖』, 嶺東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미상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60.5×36.6cm
소장처 영국 국립도서관

필사본 지도첩에 수록된 「영동」 지도이다. 전체적인 지도의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부도인 『동람도』보다는 상세하고 정상기의 『동국지도』보다는 소략한 느낌을 준다. 산지는 고을의 진산 이외에도 여러 산을 그리고 고개도 자세하게 표현했다. 특히 『동람도』와 달리 산을 연결하여 산줄기 형태로 표현했다. 명산인 금강산은 회화식을 가미하여 봉우리를 아름답게 표현했다. 하계망은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까지 상세하게 그려 넣었다. 도로망은 그려져 있지 않고 찰방역을 분홍색 사각형으로 표시했다. 감영 소재지인 원주를 강조하여 표현했고, 관동팔경은 건물의 모습을 그려 해당 위치에 표시했다. 강릉의 경호를 비롯하여 해안가의 석호도 그려져 있다. 고성포와 삼척포가 『동람도』의 영향을 받아 섬의 모습으로 표현됐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동람도』에서처럼 우산도를 울릉도의 서쪽에 울릉도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그려 넣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嶺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0 『여지도』 내 강원도

『輿地圖』, 江原道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중후반(1823~1869년)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46×63cm
소장처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AAG 컬렉션

이 지도는 19세기 말 조선에 파견되었던 미국 해군 장교 조지 클레이턴 포크(George C. Foulk)가 수집한 조선 지도집인 『여지도』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한자로 표기된 지도에 알파벳 지명이 부기된 것은 조선에 대한 지리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지도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부도인 『동람도』보다는 상세하고 정상기의 『동국지도』보다는 소략한 느낌을 준다. 산지는 고을의 진산 이외에도 여러 산을 그리고 고개도 자세하게 표현했다. 특히 『동람도』에서와 달리 산을 연결하여 산줄기 형태로 표현했다. 명산인 금강산에는 장안사, 유점사 등의 사찰도 표시했다. 통천의 총석정 바위를 독특하게 묘사한 점이 이채롭다. 하계망은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까지 상세하게 그려 넣었다. 붉은 선으로 도로망을 표현했고, 감영 소재지인 원주를 붉은색으로 강조하여 표시했다. 명승지인 관동팔경도 해당 위치에 표기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처럼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그려졌다. 울릉도에는 주토굴, 죽전 등이 표시되어 있고 산지도 표현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Kang wondo –
Nang chi'hön & Ch'i'hön
Chi'hön are noted for
tigers.

The Eight homes of beautiful
men are
1. Chi'hông ~~ta~~ Sök Chöng
2. Sam il phō

chōn 100 in all – Sa
and large.

ng pha
san hō
söng
inwha tam (lake)
Kwang pū
chūk
竹
-Nak san sa
yang
yang
Shang
Ūn
yöng
江陵
鏡浦金
Kyöng
pho
tae
Kang mung
Ū-Kē
陵羽
平陵
Phyöng nung
三陟
Sam
Chhök
鎮堂
Chin yöng
Chūk sŏ Kot
竹西
交柯
Kyo
Ka
化竜
yöng wha
Ūl-lung tō
鬱陵島
于山島
Ū
san
dō
朱雀臺
竹田
Chūk
chön
chū
phō
Kūl
蔚珍
Ūl chin
Hwang san
山王
Kom chang
山莊
金
鳳凰臺
Huang yang tae
山然蔚
Ūl yŏn san
Kŭm
gol
Kwi
龍松
Kwŏl sŏng
平海
Phyŏng
Hae
Yŏng
yang
Kē
英陽界
三乘峯
Sam
chŭ
ryŏng
Sa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1 『대조선국지도』 내 강원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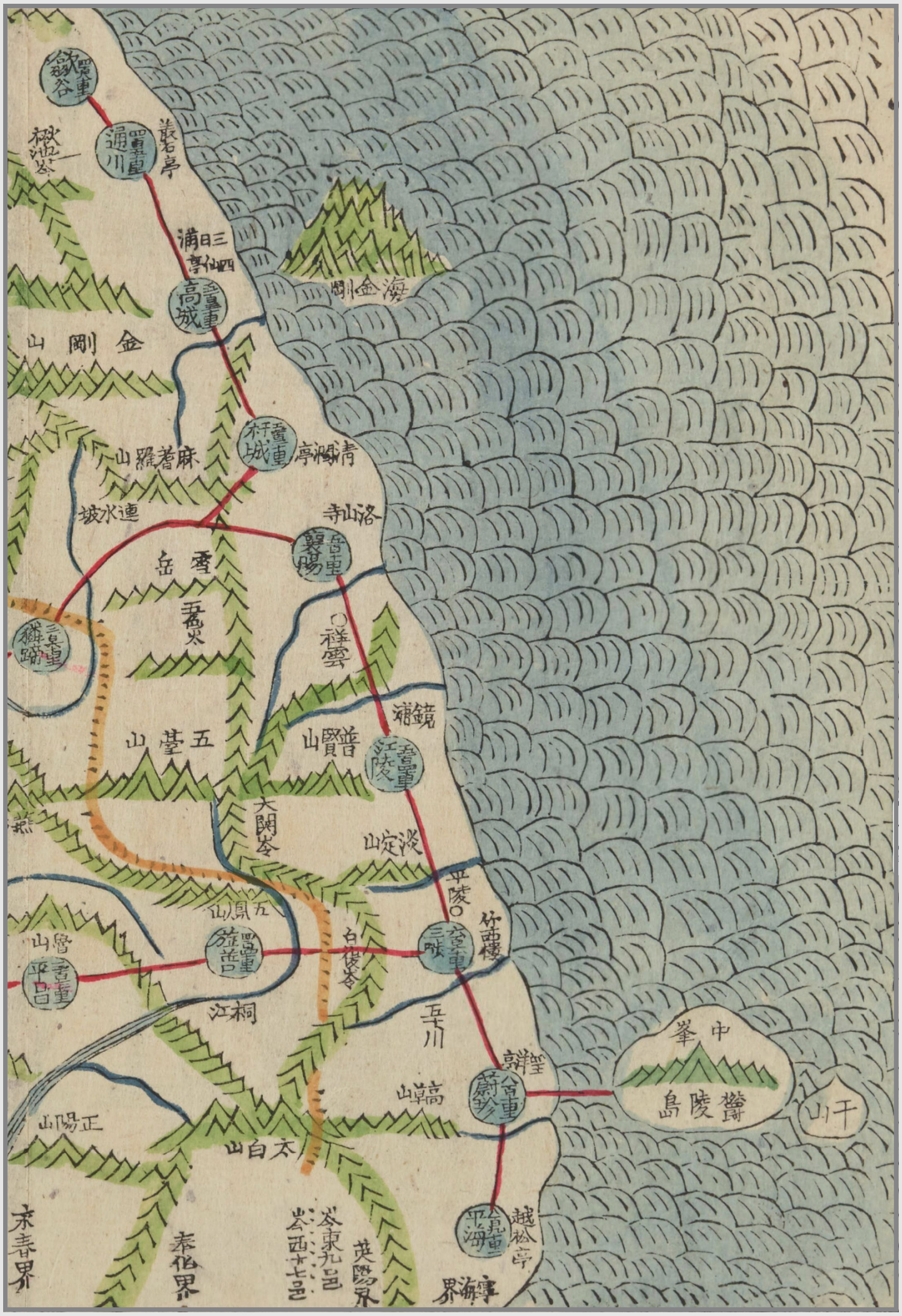
『大朝鮮國地圖』, 江原道圖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9세기 말
형태, 크기 동판본, 29×38cm
소장처 프랑스 국립도서관

19세기 말에 제작된 동판본 지도책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동일본 지도책이 『접역지도(鰈域地圖)』, 『동여전도(東輿全圖)』 등의 이름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영남대학교 박물관에도 『대조선전도(大朝鮮全圖)』라는 이름으로 소장되어 있다. 이 지도책은 조선 후기에 널리 보급된 목판본 지도책을 동판으로 간행한 것이다. 원래 흑백으로 인쇄된 것에 채색을 가미했다. 지도의 내용은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나타난 성과를 계승하였으며 연맥식의 산계 표현, 하계망의 묘사 등이 유사하다. 고성의 해금강은 독특하게 바다에 표현했다. 특히 교통로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군현명 옆에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재했다. 울진의 동쪽에 울릉도와 우산도를 그렸는데, 우산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작게 그려졌다. 울진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해로도 붉은 선으로 표시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울릉도 지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2 『조선지도』 내 울릉도

『朝鮮地圖』, 鬱陵島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38.5×49.8cm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세기에 제작된 경위선표식(經緯線表式) 군현 지도에 수록된 「울릉도」 지도이다. 여기의 경위선은 경도와 위도를 나타내는 선이 아니라 격자망에 해당한다. 경위선표식 군현 지도는 영조 대에 전국 각지의 군현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지도이다. 4.1~4.2cm 정도의 20리 방격을 기초로 그려져 있는데 거리와 방향이 회화식 군현 지도에 비해 훨씬 정확하다. 또한 도면상의 전역에 동일한 축척을 적용했기 때문에 읍치(邑治)가 상대적으로 과장되는 현상도 없어졌다. 주변 군현과의 연결 관계도 쉽게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지도 여백에 지지적인 항목들을 수록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순수한 형태의 지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 「울릉도」 지도는 전체 구도나 내용으로 볼 때, 이전 시기에 울릉도 수토 결과로 제작된 울릉도 지도를 기초로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성인봉인 중봉(中峯)을 중심으로 산줄기가 표현되어 있고, 곳곳의 죽전과 과거의 집터, 가거처(可居處), 돌무덤, 각석입표(刻石立標) 등은 이전 시기의 울릉도 지도에서와 유사하다. 또한 남쪽에 그려진 5개의 섬도 같은 형태로 그려져 있다.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전 시기의 회화적 기법을 가미한 울릉도 지도에 비해 울릉도 본섬에서 더 떨어져 있다. 방격 1칸을 20리로 본다면, 거리가 대략 40리 정도 된다. 또한 '소위우산도(所謂于山島)'라는 표기 대신에 '우산(于山)'이라고 쓰여 있다. 이는 이전 시기의 수토 지도를 바탕으로 한 울릉도 지도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다. 우산도를 별도의 해역으로 구분하였고, 지도상의 거리도 최소 40리(20km 정도) 이상 떨어져 있어서 지금의 죽도가 아닌 독도를 그린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3 울릉도
鬱陵島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크기 미상
소장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경위선표식 군현 지도책에 수록된 울릉도 지도로 강원도 삼척 지도와 같이 그려져 있다. 경위선표식 군현 지도는 영조 대에 전국 각지의 군현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지도이다. 4.1~4.2cm 정도의 20리 방격을 기초로 그려져 있는데 거리와 방향이 회화식 군현 지도에 비해 훨씬 정확하다. 또한 도면상의 전역에 동일한 축척을 적용했기 때문에 읍치가 상대적으로 과장되는 현상도 없어졌다. 이 울릉도 지도는 전체 구도나 내용으로 볼 때, 이전 시기의 울릉도 수토 결과로 제작된 울릉도 지도를 기초로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성인봉인 중봉을 중심으로 산줄기가 그려져 있고, 곳곳의 죽전과 과거의 집터, 가거처, 돌무덤, 각석입표 등은 이전 시기의 울릉도 지도에서와 유사하다. 또한 남쪽에 그려진 5개의 섬도 같은 형태로 그려져 있다.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전 시기의 회화적 기법을 가미한 울릉도 지도에 비해 울릉도 본섬에서 더 떨어져 있다. 이 섬에는 '소위우산도(所謂于山島)'라는 표기 대신 '우산(于山)'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금의 독도를 그린 것이다. 지도 여백에는 울릉도에 관한 지지적인 사항을 기재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鬱陵島

于山島在三陟之東鬱陵島在平海之東六日程地
長百餘里廣六十里四面石角嶙峨多寺刹古址竹大如椽
鼠大如猫古于山國新羅智證王時異斯夫以木獅子載
船誑之曰不服則放此獸踏殺之國人惧乃降高麗崖
璃欲移民以實之風濤險惡未果自中峯東至海一
萬餘步西至海一萬三千餘步南至海一萬五千餘步北
至八千餘步有村落基址七旺然多巖石民不居
本朝 世宗二十二年遣萬戶南顒往搜逋盡俘金九
等七十餘人而還其地遂空

于山

刻石立標

竹田 基址二處

北

孔岩

自中峰二十里

可居

竹田

自中峰三十里

東 笛 基址三四處

朱土處

石菓

基址三四處

西

中峯

寬澗

大川

自中峯四十餘里

基址大小處

石菓

南 笛

竹田可居

自中峯二十里 竹田

船泊

刻板立標

待風所

營將 面十二面倉六
戶三千六百零
軍一千九百零
結一千六百零
需二百四十石
距京六百六十里監營三百六十里城

北下面

竜中站

平陵站

軍大里

江陵界

唐台里驛

业上面

新興

北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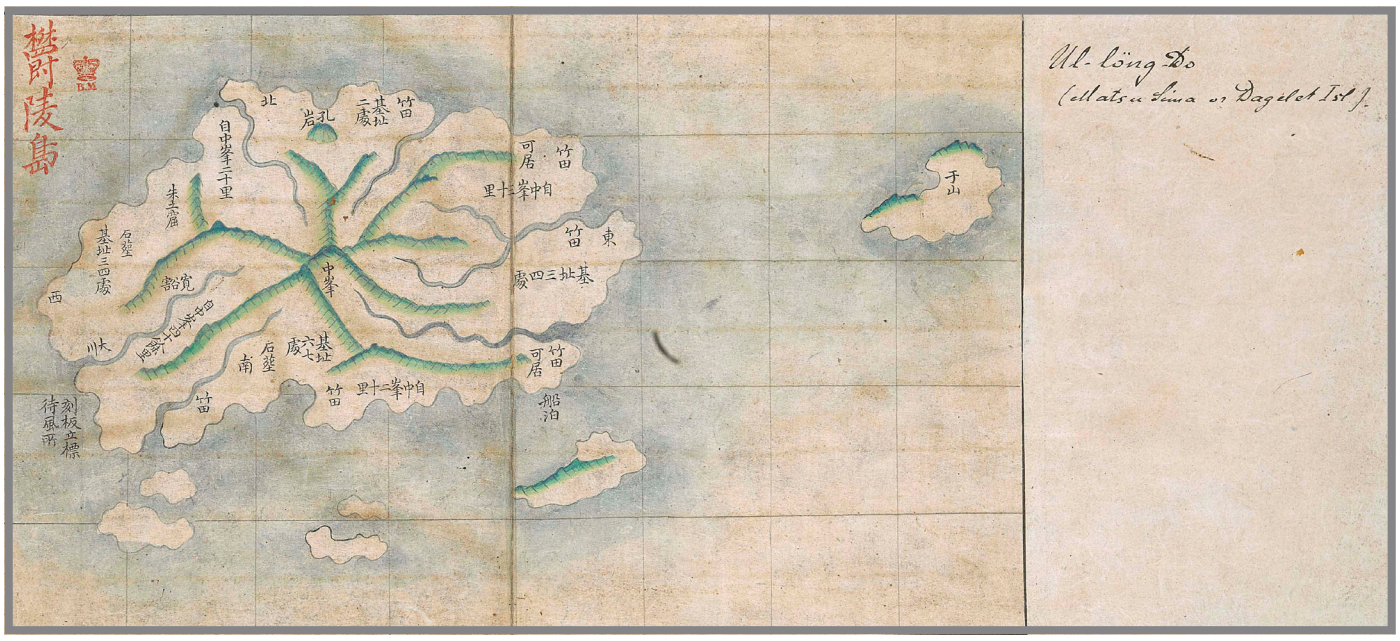
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 고지도 속에 나타난 한반도와 동해 그리고 독도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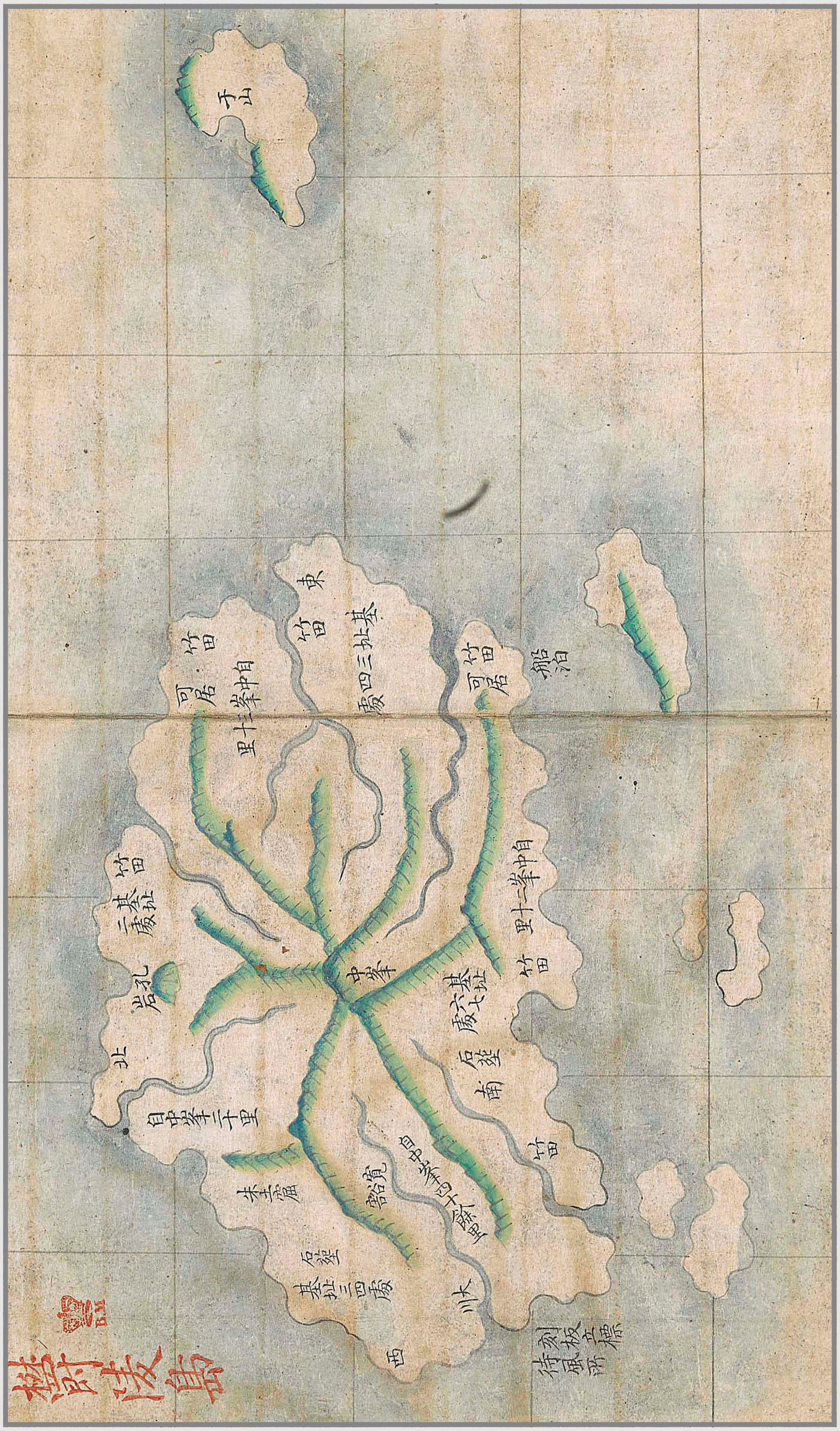
74 울릉도
鬱陵島

제작자 미상
발행 연도 18세기
형태, 크기 채색 필사본, 크기 미상
소장처 영국 국립도서관

18세기에 제작된 경위선표식 군현 지도에 수록된 「울릉도」 지도이다. 여기의 경위선은 경도와 위도를 나타내는 선이 아니라 격자망에 해당한다. 경위선표식 군현 지도는 영조 대에 전국 각지의 군현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지도이다. 4.1~4.2cm 정도의 20리 방격을 기초로 그려져 있는데 거리와 방향이 회화식 군현 지도에 비해 훨씬 정확하다. 또한 도면상의 전역에 동일한 축척을 적용했기 때문에 읍치가 상대적으로 과장되는 현상도 없어졌다. 주변 군현과의 연결 관계도 쉽게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지도 여백에 지지적인 항목들을 수록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순수한 형태의 지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 「울릉도」 지도는 전체 구도나 내용으로 볼 때, 이전 시기에 울릉도 수토 결과로 제작된 울릉도 지도를 기초로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성인봉인 중봉을 중심으로 산줄기가 그려져 있고, 곳곳의 죽전과 과거의 집터, 가거처, 돌무덤, 각석입표 등은 이전 시기의 울릉도 지도에서와 유사하다. 또한 남쪽에 그려진 5개의 섬도 같은 형태로 그려져 있다.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전 시기의 회화적 기법을 가미한 울릉도 지도에 비해 울릉도 본섬에서 더 떨어져 있다. 방격 1칸을 20리로 본다면, 거리가 대략 40리 정도 된다. 또한 '소위우산도(所謂于山島)'라는 표기 대신에 '우산(于山)'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는 이전 시기의 수토 지도를 바탕으로 한 울릉도 지도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다. 우산도를 별도의 해역으로 구분하였고, 지도상의 거리도 최소 40리(20km 정도) 이상 떨어져 있어서 지금의 죽도가 아닌 독도를 그린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